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蘇軾 次韻詩의 특징

2016年 8月

서울대학교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李 多 娟

蘇軾 次韻詩의 특징

指導教授 柳 種 睦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4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李 多 娟

李多娟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6年 6月

委 員 長	宋 龍 準	(印)
副委員長	李 永 朱	(印)
委 員	柳 種 睦	(印)

【 국 문 초 록 】

次韻詩는 和韻詩의 일종으로 原詩의 운자를 순서대로 사용하여 창작한 시를 말한다. 차운시는 唐代의 원진과 백거이로부터 시작되었고, 晚唐의 피일휴와 육구몽이 적극 받아들여 주변 문인들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하나의 詩體로 굳어져갔다. 이후 宋代 초기에는 西崑派의 등장으로 和意不和韻의 풍조를 이루다가 구양수와 매요신 등의 문인들이 다시 차운시를 활발하게 짓기 시작했다. 이것은 소식에 이르러서는 보편화되며 송대 사대부들의 유희를 통한 교유를 만족시켜 주는 놀이 수단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유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차운의 교유적 기능과 맞물려 차운시가 성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이 시기의 문단의 영수였던 소식은 차운시를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하여 차운시의 효용성을 높였다.

이 시기에는 이전에 비해 차운시가 성행하였기에, 차운시에 관한 다수의 기존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창화에서의 소재 분류와 교유 대상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차운시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상태였다. 이는 차운시가 창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창화의 내용적 측면으로만 접근한 탓이었다. 그래서 본고는 차운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차운시 자체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본고는 문인들의 놀이에서 탄생한 차운시가 소식에 이르러 다양화되고, 대량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시작했다. 소식이 새로운 운각을 사용하여 자신의 시를 창작하지 않고, 굳이 차운의 방식을 선택한 원인이 분명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차운시가 가진 놀이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소식은 原詩의 운각을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문인으로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놀이는 그 특성상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식은 이러한 차운시를 다양하게 지어 자신의 시 창작에 활용하였다. 본고는 이를 차운 방식과 차운 대상의 측면

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소식 차운시의 특징은 창화 방식의 다양화였다. 이는 유희의 극대화로 해석된다. 먼저 기존의 1회의 唱과 和로 이루어졌던 창화가 연장된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시인들은 반복되는 운각의 사용을 통해서 유희를 추구할 수 있었다. 또한 일대일 관계에서 행해진 기존의 방식과 달리 여러 사람과 계속 차운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문인들은 특정한 집단 내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교유를 한 것이다. 그리고 타자간 관계에 개입하여 차운하는 형식도 있었다. 原詩 작자는 분명 다른 受信者에게 시를 썼지만, 소식은 그 시에 차운함으로써 原詩 작자와 그 受信者 사이에 개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식은 原詩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정서 위에서 그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성공적으로 교유를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소식 차운시의 특징은 차운 대상의 다양화였다. 소식은 다른 이의 시를 차운의 대상으로 삼는 기존의 차운시를 벗어나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은 시에 차운한 자화시를 지었고, 古人의 시에 차운한 추화시를 짓기도 하였다. 먼저 자화시는 소식이 자신의 原詩와 연관성을 지어 특정한 규칙 아래에서 차운시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놀이성 측면이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으로 연속 창작의 경우와 연속 창작이 아닌 경우로 구분되었는데, 전자의 경우 한 편의 시와 같이 이어지고, 후자의 경우 原詩와 자화시의 정서가 대체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原詩와 자화시는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시인의 심경을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자화시는 연작시로 파악되었다. 추화시는 크게 화도시 이전의 추화시와 화도시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화도시 이전의 추화시는 시인과 原詩 작자가 같은 상황에 처해져 만들어진 것으로, 유희를 위해 지었다는 점에서 일반 창화시의 창작 목적과 비슷하였다. 반면 화도시는 운각에 집중하여 차운시 창작에 몰입함으로써 시인의 슬픔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소식은 차운시를 놀이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화도시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얻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본론의 마지막장은 소식 차운시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소식과 같은 대문호도 상당수의 차운시를 짓다보면 운각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차운시

는 정해진 운각을 반드시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각의 제약을 받아 부자연스러운 시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특히나 句數가 많은 고체시의 경우에 이러한 한계점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는, 운각의 글자를 교체하면서 시를 자연스럽게 전개한 경우가 있었다. 이 또한 차운시의 기본적인 창작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운시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었다. 정해진 운각으로 원하는 시상을 전개할 수 없을 때, 소식은 같은 韻部 내에서 다른 운자로 교체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차운시는 문인들의 놀이였고, 소식은 차운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하였으며 차운의 대상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차운시의 창작 조건인 정해진 운각의 사용으로 인한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본고는 소식 차운시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 시대의 주변 문인들의 차운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소식 차운시의 특징 연구는 북송 시대 문인들의 교유 양상 및 차운시의 확장된 영역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주며, 차운시의 본질을 알게 해 주는 데 의의가 있었다.

주요어 : 蘇軾, 次韻詩, 唱和, 交遊, 놀이, 自和詩, 追和詩, 韻脚.

학 번 : 2014-20089

〈목 차〉

【국문초록】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5
제2장 창화 방식의 다양화	9
제1절 창화 횟수의 연장	9
제2절 창화 참여자의 다양화	17
제3절 타자간 관계에의 개입	30
제3장 차운 대상의 다양화	39
제1절 自和詩	39
(1) 연속 창작의 경우	43
(2) 연속 창작이 아닌 경우	52
제2절 追和詩	60
(1) 화도시 이전의 추화시	62
(2) 和陶詩	68
제4장 소식 차운시의 한계	81
제1절 부자연스러운 시상 전개	82
제2절 운각의 교체	90

제5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4
【中文摘要】	10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次韻詩는 和韻詩의 일종이다. 和韻詩란 타인이 사용한 韻字나 그 韻目을 몇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여 지은 시를 말한다.¹⁾ 唐代 이후로 시는 엄격한 격식을 요구하여 구법과 대장, 압운과 평측에 관한 규칙들을 지켜야 했는데 여기서 압운을 응용하여 발달시킨 것이 和韻詩이다. 이 화운의 종류로는 次韻, 依韻, 用韻의 3가지 형식이 있다. 次韻은 原詩에 사용된 운자를 순서대로 사용한 것을 말하며, 依韻은 原詩의 운과 같은 운부에 속한 운자를 사용한 것, 用韻은 原詩의 운자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순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²⁾ 이 중 송대에는 차운의 방식이 가장 많이 쓰였고, 이후로 청대까지도 차운시는 보편적으로 창작되었다. 그런데 차운시에 대한 후대의 평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보인다. 차운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비평가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嚴羽와 王若虛를 들 수 있다.

화운은 사람의 시를 가장 해친다. 옛 사람들은 수창(酬唱)을 하되 차운은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기풍은 원진과 백거이, 피유희와 육구몽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조의 모든 현자들은 이를 가지고 다투어 다듬었으니, 마침내 왕복으로 8, 9차례에 이르렀다.³⁾ (嚴羽 著, <滄浪詩話>)

1) 강성위, <和韻詩의 類型과 特性考>,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30, 1998, p.169.

2) “唐詩賡和, 有次韻先後無易, 有依韻同在一韻, 有用韻用彼韻不必次.(唐詩에는 화답이 이어졌으니, 차운은 선후에 바뀔이 없는 것이며, 의운은 한 운부 안에 함께 있는 것이며, 용운은 그 운을 사용하되 반드시 차례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劉放 撰, 《中山詩話》, 清 何文煥 輯, 《歷代詩話》 卷一,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72, p.289.

차운은 진실로 시를 지을 때의 큰 병폐이다. 시의 도가 송대인에 이르러 이미 절로 쇠퇴하였는데도 또 오로지 이것을 서로 숭상하니 동파처럼 재주와 학식이 있는 사람도 또한 물결에 휩쓸려 그것을 따라감을 면치 못하여, 문집 중에 차운한 것이 약 삼분의 일이다. 비록 재주가 지극히 교묘하여 한 시대를 움직였으나, 천연스러움을 해친 바가 많다. 소공에게 이것(차운)이 없다면 그 거리가 옛 사람과 어찌 멀겠는가.⁴⁾ (王若虛, <滄南詩話>)

엄우는 화운시가 “시를 해친다”고 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 의하면 송대 모든 문인들이 차운시를 지었으며, 서로 경쟁적으로 8, 9차례까지 이어나가며 차운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운시가 얼마나 성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왕약허는 소식처럼 재주와 학식이 있는 사람조차 전체 시 중의 삼분의 일이나 되는 차운시를 지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차운시가 시의 천연스러움을 해친 바가 많았다고 하였다. 즉, 만약 소식이 차운시를 짓지 않았더라면 시를 더 잘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이렇게 대량의 차운시를 지은 소식을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편의 인용문을 종합하여 볼 때 소식을 포함한 송대 문인들 사이에 차운시가 매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송대 문인들은 왜 “시를 해치는” 차운시를 지었는지, 그들도 차운시에 대해 “시를 해친다”고 여겼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문인들은 ‘以詩爲交’, 즉 시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하여 교유를 했다. 이 경우의 詩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문인들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면서도 교유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차운시는 바로 이러한 문인들의 교유 과정에서 놀이로서 나왔는데, 唐代에 들어 元稹과 白居易가 시를 주고받으며 “次韻”을 시작하였다.⁵⁾⁶⁾ 사실 창화에서 본래 和詩는 애

3) “和韻最害人詩，古人酬唱不次韻，此風始盛於元，白，皮，陸。而本朝諸賢，乃以此而鬪工，遂至往復有八，九和者。” 何文煥 輯，〈歷代詩話(二)〉，嚴羽 著，〈滄浪詩話〉，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1983，p.699.

4) “次韻寔作詩之大病也。詩道至宋人，已自衰弊，而又專以此相尚，才識如東坡，亦不免波蕩而從之，集中次韻者幾三之一。雖窮極伎巧，傾動一時，而害于天全多矣。使蘇公而無此，其去古人何遠哉。” 王若虛，〈滄南詩話〉，丁福保 輯，〈歷代詩話續編〉 卷上，北京：中華書局，1983，p.515.

초에는 한 사람이 선창하면 다른 사람이 화답하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원운 또는 원래의 운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⁷⁾ 그러나 송대 이후 和詩는 언제나 原韻을 따르게 되었으니,⁸⁾ 문인들은 차운시를 오락의 수단 혹은 언어유희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한 것이다.⁹⁾ 이러한 특성을 지닌 차운시는 교유시의 증가와 함께 성행하였고 소식 이후 차운시는 교유의 보편적 방식으로 사용된다. 특히 문학적 영향력이 컸던 소식은 교유시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잦은 화답을 하였고¹⁰⁾ 785首¹¹⁾라는 대량의 차운시를 창작하였다. 그리고 소식의 문하생들에 이르러 차운이 성행하는 추세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으니, 이는 그들이 시대의 추세를 받아들이는 영향이며 또한 차운을 좋아했던 스승 소식의 영향이었다.¹²⁾ 대가의 시풍을 따른다는 것은 곧 주류에 속함을 의미했으며, 이 시기의 문화 집단에 편입됨을 뜻하기 때

- 5) 唐代 元稹은 <上令狐相公書>에서 “제가 해아려보건대 그를 뛰어넘을 수 없었으니 왕왕 옛 운을 장난으로 늘어놓아 새 작품을 다르게 지어, 차운이라 이름하였습니 다.(小生自揣, 不能有以過之, 往往戲排舊韻, 別創新詞, 名爲次韻)”라고 하였다.
- 6) 그러나 원진(779—831)과 백거이(772-846)는 단지 ‘次韻’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李端(?—785?)의 <野寺病居喜盧綸見訪>와 盧綸(?—799?)의 <酬李端公野寺病居見寄> 증답시에서 이미 차운을 했다.(蔣紹愚 著, 《唐詩語言研究》,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1990, p.68.)
- 7) 왕력 지음, 송용준 옮김, 《중국시율학1》, 서울: 소명출판, 2005, p.123.
- 8) 위의 책, p.124.
- 9) 예를 들어, 소식의 시 <江上值雪, 效歐陽體, 限不以鹽玉鶴鷺絮蝶飛舞之類爲比, 仍不使皓白潔素等字, 次子由韻(강 위에서 눈을 만나 구양수체를 모방하여 ‘소금·옥·학·백로·솜·나비·비행·춤’ 따위를 비유로 삼지 않고 또한 ‘皓·白·潔·素’ 등의 글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제한하여 자유의 시에 차운한다)>는 4가지의 조건(①구양수체를 모방할 것, ②‘소금·옥·학·백로·솜·나비·비행·춤’을 비유로 삼지 않을 것, ③‘皓·白·潔·素’ 등의 글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④子由의 시에 차운할 것)으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오락 또는 언어유희를 위한 시임을 알 수 있다.
- 10) 송용준, 오태석, 이치수, 《宋詩史》, 서울: 역락, 2004, p.367.
- 11) 內山精也에 의하면 중화서국에서 출판한 《蘇軾詩集》의 1권부터 45권까지 모두 2387首의 편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히 차운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785首이다. 이는 원시가 확인되지 않는 “和……”와 같은 제목의 시는 제외한 것이다.(內山精也, 王水照 主編, 《傳媒與真相-蘇軾及周圍士大夫的文學-蘇軾及周圍士大夫的文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 p.334.)
- 12) 金甫喆, <蘇軾“和陶詩”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p.67 참조.

문이다.¹³⁾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송대 여러 문인들의 차운시 창작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송대 문인들이 차운시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차운시는 놀이이기 때문에 놀이의 속성인 즐거움이 동반된다. 즉 차운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문인들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차운시를 짓고, 정해진 운각을 가지고 누가 더 잘 지었는지 경쟁을 하였다. 그리고 그 차운시는 즉흥적인 재치가 담기면서도 내용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 중 차운시를 가장 잘 지은 문인은 여러 사람에게 문인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된다. 또한 차운은 문인들의 학식을 드러내는 데 쓰였으니, 운각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시를 지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송대에는 이러한 측면이 강했다. 송대 문인들은 폼적과 임지의 이동이 잦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물들과 교유를 형성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창화는 중요한 교제수단이었고, 창화를 지식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재능으로 여겼다.¹⁴⁾ 그 중에서도 차운은 운각까지 정확히 맞추어야 하므로 그 사람의 作詩 재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었다. 차운시를 잘 지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면서도 자신의 실력에 대해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차운시를 짓는 가장 큰 목적은 유희였고, 이는 교유에 유리하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차운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 시인이 슬프거나 절망적인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이다. 다른 문인들과 모여 차운시를 짓는 동안 생활 속에서 오는 근심을 잠시나마 잊기도 하며 차운시를 통해 형성된 즐거운 감정이 그 근심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슬픔을 잊기 위해 다른 것에 집중하여 슬픈 상황에 집중된 초점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슬픔을 완화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심리학의 놀이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놀이에 참여하는 동안 긍정적인 情動의 효과로 인해

13) 서경호, 《중국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p.502.

14) 姜震, <張先 交遊詞의 ‘以詩爲詞’ 경향>,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5, p.66.

불안함이나 우울함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¹⁵⁾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효과가 차운시를 짓는 주요한 목적이 되기도 한다. 차운시 자체가 유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앞의 경우와 종합하여 정리하면 차운시는 긍정적인 정서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즐거운 상황은 더욱 즐겁게 만들고, 슬픈 상황에서는 슬픔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운시의 목적이자 효과는 바로 즐거움이라 생각한다.

이전시기의 차운시와 비교하여 볼 때, 소식은 차운시라는 정해진 규격 안에서 차운시를 매우 자유롭게 활용하였고, 차운시를 활발하게 창작하였다. 이는 소식이 당시 문단의 영수이며, 시 창작에 능했기 때문에 더욱 가능했다. 차운시는 송대 이후 和韻詩의 主流이다. 그러므로 소식의 차운시를 연구하는 것으로 소식의 차운시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시대의 차운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식의 차운시는 그 시대의 차운시의 대표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종류의 차운시를 통해 차운시의 발전사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검토함으로써 소식 차운시의 특징을 파악하고, 아울러 송대 차운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중국에는 이미 소식의 창화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위 논문이 3편¹⁶⁾ 있고, 소식과 소철이 주고받은 시를 연구한 논문¹⁷⁾, 소식 주변의 인물들의

15) Charles E. Schaefer 엮음, 김은정 옮김, 《놀이치료의 기초》,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p.21.

16) 徐宇春, <蘇軾唱和詩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閔偉偉, <蘇軾唱和詩研究>, 山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崔麗萍, <蘇軾和詩探究>, 新疆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17) 黃瑩, <蘇軾蘇轍兄弟唱和詩研究>, 廣西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趙曉星, <論蘇軾、蘇轍唱和詩>,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李艷杰, <二蘇唱和次韻詩研究>, 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차운시를 연구한 논문¹⁸⁾ 등이 있다. 그럼 먼저 소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부터 검토해보겠다.

먼저 단행본으로는 內山精也의 《傳媒與真相-蘇軾及周圍士大夫的文學-蘇軾及周圍士大夫的文學》이 있다. 이는 소식의 차운시에서 각각의 교유 대상에게 쓴 차운시의 수량을 구체적 수치로 밝히고 있으며, “次韻自作詩”와 “次韻古人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次韻自作詩”의 특징을 “대비의 명확화”라고 한 것과 “和陶詩”의 특징을 시인의 재능을 보이기 위한 유희 추구라고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설정한 “次韻自作詩”의 범위에는 창화 중의 原詩가 포함되어 있어 “自作詩”에 차운하는 것이 아니었고, “次韻古人詩”는 도연명의 시에 차운한 “和陶詩”를 다루면서 기본적인 창작동기를 소홀히 여긴 측면이 있었다.

소식의 차운시와 관련된 학위논문은 매우 많다. 그러나 창화시의 소재와 시기별 분류에만 그친 것이 대부분이었고, 차운시만의 특징을 짚어낸 경우는 없었다. 徐宇春의 <蘇軾唱和詩研究>¹⁹⁾는 소식과 蘇轍 사이, 소식과 蘇門四學士 사이의 창화시를 시기별로 분류하고, 소식의 “和陶詩”에 관하여 창작 배경과 그 내용 및 평가를 다루고 있다. 창화시를 시기에 따라 분류하여 차운시를 통해 소식의 감정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는 차운시가 아닌 일반 시에서도 보이는 경향이었다. 같은 연구로 閔偉偉의 <蘇軾唱和詩研究>²⁰⁾는 소식과 교유한 문인들을 소개하고 창화시의 思想傾向과 예술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유의 상대방을 소개했다는 점, 창화시의 사상경향과 예술특징이 소식의 창화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식 시의 특징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소식이 도연명의 시에 화운한 시를 “和陶詩”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는 金甫喲의 <蘇軾“和陶詩”研究>²¹⁾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和陶

18) 呂雪梅, <晁補之唱和詩研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高邢生, <黃庭堅次韻詩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蔡愛芳, <二蘇及“蘇門四學士”唱和詩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19) 徐宇春, <蘇軾唱和詩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20) 閔偉偉, <蘇軾唱和詩研究>, 山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詩”의 창작배경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분류하여 소식에게 “和陶詩”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차운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한편 소식은 아우 소철과도 시를 매우 많이 주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몇몇 논문에서 보인다. 趙曉星의 <論蘇軾, 蘇轍唱和詩>²²⁾에서는 소식의 유배생활 이전의 창화시, 황주시기의 창화시, 원우시기의 창화시, 다시 유배생활 했던 시기의 창화시를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반면 黃瑩은 <蘇軾蘇轍兄弟唱和詩研究>²³⁾에서 창화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풍속을 담은 것, 그림을 보고 쓴 것, 도연명의 시에 추화한 것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역시 소재 분류에 그친 다른 논문들과 비슷하였다.

唐代와 北宋 初의 다른 시인들에 비해 소식은 차운시를 매우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소식의 차운시만의 특징이 아닌 소식詩 자체의 특징을 서술하여 차운시를 통해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이 없거나 차운시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서술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또한 차운시 방면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차운시를 창작했는데, 이러한 차운시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차운시의 주된 목적인 유희와 교유의 측면이 소홀히 여겨졌다는 것이다. 차운시가 교유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인하여 오히려 차운시의 자체의 존재를 간과하였으니, 차운시의 창작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보이지 않았다. 차운시는 기본적으로 문인들의 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차운시 창작을 통해 각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보완하여 소식 차운시의 특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차운시를 주고받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함께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소식 차운시에서 확장된 대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상들의 공통점을

21) 金甫暉, <蘇軾“和陶詩”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22) 趙曉星, <論蘇軾, 蘇轍唱和詩>,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23) 黃瑩, <蘇軾蘇轍兄弟唱和詩研究>, 廣西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蘇軾 次韻詩의 특징

파악하여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그 차운시의 한계에 대해 다룰 것이다. 특히나 제4장에서 다룰 소식 차운시의 한계는 운각으로 인해 시를 창작하는 데 제약을 받은 경우를 살펴본다.

소식의 시는 《蘇軾詩集》(蘇軾 撰, 王文誥 輯注, 孔凡禮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96.)을 저본으로 삼고 《蘇軾全集校注》(張志烈, 馬德富, 周裕鍇 主編, 河北人民出版社, 2010.)를 참조하였다.

제2장 창화 방식의 다양화

창화 방식의 다양화는 이전 시기의 창화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소식의 차운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두 명의 문인들이 1수씩의 唱詩와 和詩를 지어 창화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다양한 방식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문인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교유를 하기 위하여 차운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운시는 그들의 놀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식인 창화 횟수의 연장, 창화 참여자의 다양화, 타자간 관계에의 개입이라는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소식 차운시를 통하여 놀이와 교유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논의한다.

제1절 창화 횟수의 연장

일반적으로 창화시는 한 차례의 唱과 和로 이루어진 1회성의 창화였다. 唐代의 원진과 백거이도 1회성 창화시가 대부분이며,²⁴⁾ 晚唐의 皮日休와 陸龜蒙의 창화시가 실려 있는 《松陵集》에도 절대 다수가 한 번의 唱과 和로 이루어진 창화시였다.²⁵⁾ 그 후 唐이 망하고 宋에 이르러 西崑派가 문단을 이끌게 되었고, 이들은 《西崑酬唱集》이라는 제목에 맞게 창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詩壇을 이루었다. 그러나 서곤과의 창화는 차운이 아닌 시의 내용에만 화답하는 “和意不和韻”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북송 초기

24) 원진과 백거이도 한 차례 이상 창화한 詩가 있었다. 이를 “連環式唱和”라고 하는데, 총 5組가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차운의 형식으로 “連環式唱和”를 한 것은 겨우 1組뿐이다. (李漢南, <元白唱和詩統計分析>, 河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p.53.)

25) 全錦錦, <皮陸唱和詩研究>, 河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p.31.

를 지나 구양수와 매요신도 활발하게 창화를 이어나갔는데, 그 둘은 비교적 다수의 차운시를 지어 창화하기 시작했지만 창화가 길게 이어지는 방식은 드물었다. 이는 송대 소식에 이르러 종종 여러 차례로 연장되었다. 소식은 계속 차운시를 이어가며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또한 소식은 原詩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차운을 하여 말을 계속 덧붙였고, 이는 차운시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활용되었다.

周邠 <簪履(비녀 꽂고 신을 신은 이)>

堂上歌聲想遏雲, 유미당의 노랫소리는 구름도 멈출 정도이니
玉人休整碧紗裙. 옥인은 푸른 김의 치마를 정돈하다가 쓴다네.
粧殘粉落臙脂暈, 화장은 무너져 분가루 떨어지고 연지가 번질 정도이며
飲劇杯深琥珀紋. 호박무늬의 깊은 술잔으로 과음하였네.
簪履定知高楚客, 비녀 꽂고 신을 신은 이는 분명 고고한 초나라의 객이
笑談應好却秦軍. 웃으며 얘기하다 진나라 군대를 물리치기에 좋을 것임을 안다네.
莫辭上馬玉山倒, 말 타고 옥산에서 넘어지기를 사양하지 말게나
已是遲留至夜分. 이미 늦게까지 머물러 밤중이 되었다네.²⁶⁾

蘇軾 <會客有美堂, 周邠長官與數僧同泛湖往北山, 湖中聞堂上歌笑聲, 以詩見寄, 因和二首, 時周有服>(유미당에서 손님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는데 주빈 장관이 몇몇 스님과 함께 호수에 배를 띄워 북산으로 가다가 호수 가운데에서 유미당 위에서 노래하고 웃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에게 시를 보내왔기에 이에 화답하여 두 수를 짓는다. 당시 주빈은 복상 중이었다)>

其一

靄靄君詩似嶺雲, 산 위의 구름처럼 그대의 시는 기품이 있어
從來不許醉紅裙. 붉은 치마 앞에서 취하는 것을 허용한 적 없었지요.
不知野屐穿山翠, 나막신이 푸른 산을 뚫고 다닐지는 모르겠고
惟見輕橈破浪紋. 오로지 가벼운 노가 물결을 부수는 것만 보인다오.
頗憶呼盧袁彥道, 도박장에 나간 원언도가 자꾸 생각났지만
難邀罵座灌將軍. 좌중을 꾸짖은 관장군을 부르기는 어려웠다고.

26) 文淵閣四庫全書本, 查慎行 補注, 《補注東坡編年詩》 卷九.

晚風落日元無主, 저녁 바람 지는 해는 원래 주인이 없는 법
 不惜清涼與子分. 시원함을 그대와 나누길 아까워한 게 아니라고.

其二

載酒無人過子雲, 아무도 술을 싣고 자운을 찾는 이 없었다오.
 掩關晝臥客書裙. 빗장 걸고 낮잠 잤더니 손님이 하의에 글을 썼군요.
 歌喉不共聽珠貫, 구슬 꿰미 같은 목소리를 함께 듣지 않았는데
 醉面何因作纈紋. 취한 얼굴이 어떻게 비단의 무늬가 되었으리요?
 僧侶且陪香火社, 승려들은 불교도를 늘리려 하고
 詩壇欲斂鶴鵝軍. 시단에선 군사를 철수하려 하오니
 憑君遍繞湖邊寺, 그대는 호숫가의 절이나 돌아보시오.
 漲綠晴來已十分. 날이 갠 뒤 불어난 물이 호수에 가득 찼다오.²⁷⁾

희녕 6년(1073) 5월, 소식이 杭州에서 通判으로 있었을 때였다. 錢塘縣令인 周邠은 소식의 친한 벗이었는데, 배를 타고 서호를 지나가는 도중 소식과 기녀들이 유미당에서 잔치를 하며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주빈은 유미당에서 소식과 기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상상하며 소식에게 <簪履>라는 시를 보낸다. 주빈은 유미당에서 노랫소리를 듣고는 기녀들이 춤을 추고 소식이 술을 많이 마신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면서 항주에 통판으로 온 소식이 國事를 잘 처리하는 유능한 인물이니 밤까지 계속 술을 마시라고 권한다. 이에 대해 소식은 제1수에서는 주빈이 기녀들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를 부르려고 해도 차마 부를 수 없었다고 말한다. 소식은 해명을 하는 것이다. 이는 주빈이 服喪중이었고, 소식의 입장으로서는 주빈을 잔치에 초대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2수에서는 주빈 없는 잔치였으므로 아쉬움을 나타내어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주빈이 승려들과 배를 타고 호수 주변을 둘러보기를 권한다.

위의 시는 주빈이 보내온 시 한 수에 대하여 소식이 차운시 두 수로 화

27) 《정본완역 소동파시집1》, 833-834쪽. 본고의 소식 시 번역은 기본적으로 류종목, 《정본완역 소동파시집1》,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와 류종목, 《정본완역 소동파시집2》,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를 따르되 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서명과 쪽수만 표기한다.

답한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차운시를 두 수나 지은 까닭은 무엇일까? 평소 소식은 칠언고시로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토로하기를 좋아했고,²⁸⁾ 소식의 대표적 시 형식이 칠언 고시²⁹⁾라고 할 정도로 칠언고시에 능했던 사람이었다. 古詩는 句數의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시를 지을 수 있으므로, 소식은 구구절절한 해명을 위해 고체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律詩인 原詩와는 다른 고체시로 화답한다면 原詩와의 동질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창화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유희성이 감소하게 된다. 현재 소식은 그에게 미안하고 난감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수나 되는 차운시로 재치 있게 대응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이후로도 계속 좋은 교유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식은 주변의 原詩에 두 수로써 차운을 한 것이다.

또한 차운시는 原詩의 상황에 이어 자연스럽게 다른 내용을 꺼내는 데 편리하다. 이는 차운을 통해 原詩와의 동질적 연결성을 확보했기에 한층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蘇軾 <正月二十一日病後，述古邀往城外尋春(정월 21일에 병을 앓고 난 후에, 진술고가 성 밖으로 나가 봄놀이를 하자고 초청하여)>

屋上山禽苦喚人, 지붕 위의 산새들은 애타게 사람을 부르고
檻前冰沼忽生鱗. 난간 앞의 얼었던 못엔 갑자기 비늘이 생기건만
老來厭伴紅裙醉, 나이가 들어 고운 기녀와 취하는 것도 싫증나고
病起空驚白髮新. 앓고 난 뒤 백발이 늘어 괜히 놀라기도 했었는데
臥聽使君鳴鼓角, 태수께서 울리시는 북소리 뿔피리소리 누워서 듣고는
試呼穉子整冠巾. 아이 불러 갓과 두건 매만져 본답니다.
曲欄幽樹終寒窘, 굽은 난간 그윽한 정자는 아무래도 비좁으니
一看郊原浩蕩春. 들판에 찾아온 드넓은 봄을 한번 바라보렵니다.³⁰⁾

陳讓 <和蘇子瞻通判在告中聞余出郊以詩見寄(소자첨 통판이 휴가 중에 내가 교외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게 부친 시에 화답하다)>

28)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서울: 신서원, 2005, p.118.

29) 송용준, 오태석, 이치수, 앞의 책, p.367.

30) 《정본완역 소동파시집1》, p.766.

郊原綠意動遊人, 교외 언덕의 푸른 봄기운은 나그네를 움직이고
 湖上晴波見躍鱗. 호수의 햇빛 비치는 물결에는 물고기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이네.
 閒逐牙旗千騎遠, 멀리 상아 장식의 깃발 든 일천 기마병을 한가하게 쫓다가
 暗驚梅萼萬枝新. 매화 꽃봉오리 만 가지가 새로워짐에 나도 모르게 놀라네.
 尋僧每拂題詩壁, 중을 찾아가 시를 쓴 벽을 늘 닦고
 邀客仍將濾酒巾. 손님 맞아 여전히 술 거를 두건을 들고 다니네.
 寄語文園何所苦, 사마상여에게 전하나니 무엇을 괴로워하는가
 且來相伴一行春. 잠시 와서 우리 함께 봄놀이를 한 번 가세나.³¹⁾

蘇軾 <有以官法酒見餉者, 因用前韻, 求述古爲移廚飲湖上(관아에서 담근 술을 보내온 사람이 있어서 앞의 시에 차운하여 진술고에게 주방을 옮겨 호수에서 술을 마시게 해 달라고 청원하며)>

喜逢門外白衣人, 기쁘게도 대문 밖의 흰옷 입은 이 만났으니
 欲膾湖中赤玉鱗. 호수 속의 붉은 비늘을 회 치고 싶습니다.
 遊舫已妝吳榜穩, 놀잇배로는 이미 튼튼한 오지방의 배를 꾸며놔고
 舞衫初試越羅新. 춤옷으로는 처음 새로운 월지방의 비단옷을 입혀 보렵니다.
 欲將漁釣追黃帽, 낚시를 들고 노란 모자를 따라갈까 하오니
 未要靴刀抹絳巾. 신발 신고 칼 들고 붉은 두건 매만져 맞아줄 필요 없답니다.
 芳意十分強半在, 넘치는 봄기운이 절반 이상 남았으니
 爲君先踏水邊春. 그대를 위해 물가의 봄을 사전답사하렵니다.³²⁾

위의 시는 소식→진양→소식의 차례로 창화가 이루어졌다. 소식의 原詩에 진양이 차운하고, 진양의 시에 소식이 이어서 차운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1회씩의唱과和가 연장된 형식을 보여준다. 시의 흐름은 이렇다. 먼저 소식이 같이 봄놀이를 하자는 진양의 제안을 수락하는 시를 보낸다. 이 시는 창화의 原詩가 된다. 봄이 점점 다가오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한가하게 지내다 봄의 경치를 보러 가겠다고 답한다. 그러자 진양은 교외의 언덕에는 이미 봄이 다가왔으니 봄을 즐기는 상상을 펼치며 소식을 초청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이라고 답장을 한다. 소식은 또 다시 시를 쓰는데, 봄놀

31) 《補注東坡編年詩》 卷九.

32) 《정본완역 소동파시집1》, p.768을 바탕으로 필자가 수정하였다.

이 이후 새로운 놀잇배를 준비해 놓았으니 배를 타고 호수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다.

이 3편의 시는 모두 진양과 소식이 함께 봄놀이를 하는 날을 위하여 쓴 시이다. 진양과 소식은 차운의 형식을 통해 시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마지막의 소식의 차운시에서는 “호수로 옮겨 술을 마시게 해달라는” 소식의 새로운 요구가 나타난다. 차운시에서는 原詩의 내용을 연결함과 동시에 다른 내용을 자연스럽게 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소식은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재치를 발휘하여 다시 차운을 하며 제안을 한다. 이때 놀이의 속성인 즐거운 정서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차운시는 상대방과 창화하는 데 편리하였고, 原詩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새롭게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차운이 거듭될수록 유희의 정서는 강해진다. 또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화답을 함으로써 그에게 적극적인 교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자신의 명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자 그대로 일일이 和를 해준다면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운각이 정해져 있더라도 시를 계속 지을 수 있다는 능력도 은근히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차운시를 지을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게 된다.

① 蘇軾 <次韻惠循二守相會(혜주태수와 순주태수 두 명이 모여 지은 시에 차운하여)>

共惜相從一寸陰,	서로 따르던 짧은 시간을 함께 아쉬워하니
酒杯雖淺意殊深.	술잔은 비록 얇지만 뜻은 심히 깊기 때문이라네.
且同月下三人影,	잠시 달 아래 세 개의 그림자와 함께 하나니
莫作天涯萬里心.	하늘 끝 만 리의 먼 마음은 가지지 말게나.
東嶺近開松菊徑,	동쪽 고개에는 근래에 소나무 국화 길 열었는데
南堂初絕斧斤音.	남쪽 별당에는 막 도끼 소리 그쳤다네.
知君善頌如張老,	그대가 장씨 노인처럼 頌辭를 잘하는 것 알고 있으니
猶望攜壺更一臨.	여전히 호리병 가지고는 다시 한 번 왕림해 주기를 바란다네.

② 蘇軾 <又次韻二守許過新居(두 태수가 새 집에 들르는 것을 허락하는 시에 또 차운하다)>

數畝蓬蒿古縣陰, 몇 이랑의 쭉밭 옛 현에 그늘 드리우고
曉窗明快夜堂深. 새벽의 창문은 밝고 상쾌하며 밤의 별당은 그윽한데,
也知卜築非眞宅, 점을 쳐 정한 머물 곳은 진짜 집이 아님도 알고 있으나
聊欲跼蹐看此心. 아쉬운 대로 가부좌 틀어 이 마음을 보려하네.
聞道攜壺問奇字, 듣자하니 호리병 지니고서 기이한 글자를 묻고
更因登木助微音. 또 나무에 올라 작은 소리를 돕는다네.
相娛北戶江千頃, 북쪽 대문으로 보이는 천 이랑의 강을 즐기는데
直下都無地可臨. 곧장 내려오면 왕립할 만한 곳 전혀 없다네.

③ 蘇軾 <又次韻二守同訪新居(두 태수가 함께 새 집을 방문한 시에 또 차운하다)>

此生眞欲老牆陰, 이 생애 참으로 담장 그늘에서 늙으며
卻掃都忘歲月深. 문 앞을 쓰는 것을 그만두어 세월의 깊음을 모두 잊고
자 하였네.
拔薤已觀賢守政, 염교 뽑아 어진 태수의 정치를 이미 보았으니
折蔬聊慰故人心. 나물 꺾어 그런대로 옛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네.
風流賀監常吳語, 풍류 즐기는 하지장은 항상 오 지방 말을 하고
憔悴鍾儀獨楚音. 초췌한 종의는 홀로 초 지방의 소리를 내네.
治狀兩邦俱第一, 두 지방을 다스린 공로는 모두 제일이니
潁川歸去肯重臨. 영천으로 돌아가 기꺼이 다시 왕립할 것이네.

④ 蘇軾 <循守臨行, 出小巘, 復用前韻(순주 태수가 떠나기 전에 시녀를 내놓으므로 다시 앞의 운을 사용하다)>

學語雛鶯在柳陰, 말을 배우는 어린 피꼬리는 버드나무 그늘에 있는데
臨行呼出翠帷深. 떠나기 전에 불러내는 비취색 장막은 깊은데
通家不隔同年面, 집을 왕래하며 격이 없는 동년배의 얼굴은
得路方知異日心. 신하의 길 얻고서 바야흐로 훗날의 마음을 알았다네.
趁著春衫遊上苑, 봄 적삼 입고서 상림원에서 놀며
要求國手教新音. 나라 최고의 재주꾼에게 새로운 노래 가르치기를 요구하네.

嶺梅不用催歸騎, 고개의 매화 말 타고 돌아가도록 재촉할 필요가 없으니
截鞭須防舊所臨. 등자를 잘라 모름지기 원래의 왕림할 곳을 막아야 한다네.

소식은 惠州에서 白鶴峰에 새 집을 지었는데, 이를 白鶴新居라고 한다. 소식의 백학신거는 여러 시에서 등장하는데, “이미 백학봉을 샀으니, 늙음을 보낼 것을 계획하네.”³³⁾라고 말했을 정도로 백학신거를 짓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소식은 순주태수 周彥質과 혜주태수 方子容이 창화하며 차운시를 짓는 것을 보고 그 시에 차운하게 되었다. ①번시는 소식이 周彥質과 方子容의 시를 보고 처음 차운하게 된 것이다. 과거 그들과 짧은 시간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서로 멀리 있다는 생각은 뒤로 미루고 달 아래서 즐겁게 보내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소식은 마침 새로 머물 곳이 막 지어졌다면서 그들의 시에 차운하여 자신의 白鶴新居에 초대하였다. 그러자 혜주태수 方子容이 그곳에 가겠다고 차운하여 답장을 한다. 초대에 응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식은 다시 차운하는데 이것이 ②번시이다. 이 시에서 소식은 백학신거 주변의 경치를 감상한다. 또한 백학신거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신선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어서 이곳으로 와서 함께 즐기자고 다시 말한다. 그리고 ③번시를 쓰는데, 두 태수가 백학신거에 직접 방문 하자 기쁜 마음에 다시 차운한 것이다. 소식은 두 태수가 고을을 현명하게 잘 통치해주었다고 칭송하고 있다. ④번시는 순주태수가 백학신거에서 떠나게 되므로 시녀를 불러 노래를 하도록 시켰지만, 아쉬운 나머지 말의 등자를 잘라서라도 그를 못 가게 막고자 하였다.

소식은 같은 운각을 가지고 4首의 차운시를 지었다. 같은 운각을 4회씩 사용하면서 시를 지은 것이다. 4首의 시는 각각 “자신의 백학신거로의 초청 → 초청에 응한 것에 대한 화답 →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한 감사 → 떠나려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소식은 모든 시에 대해 일일이 화답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화답한 차운시를 보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유희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33) “已買白鶴峰, 規作終老計.” <遷居并引>(<蘇軾詩集> 卷四十, p.2194.)

게다가 마지막 시는 상대방의 原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앞의 운에 차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순주태수의 입장에서는 더욱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며, 소식은 차운이라는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더하면서도 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4회나 되는 차운을 할 수 있다는 능력도 은근히 보일 수 있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들 수 있다. 소식은 효과적으로 차운을 사용했던 것이다.

송대 이전, 특히 북송 초기까지만 해도 문인들은 贈詩에 대해 “和意不和韻”으로 答詩를 지어 동일한 주제를 노래하였다. 그러나 소식을 비롯한 주변의 문인들은 차운의 방식을 통해 原詩와 차운시를 연결 짓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함께 유희를 추구하며 즐거운 이미지를 동반할 수 있었다. 차운을 사용하면 최초의 原詩부터 마지막 차운시까지 하나의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각의 시를 조금씩 재치 있게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운각은 상대방과 자신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이며, 문인들의 유희를 만족시켜주는 놀이 수단이었다. 제한된 글자를 가지고도 시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소식은 창화 횟수를 연장함으로써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운시의 이러한 특성을 적극 이용하여 교유를 했던 것이다.

제2절 창화 참여자의 다양화

문인들이 모여서 서로 교유하는 모습은 東晉 王羲之의 《蘭亭集序》와 그들의 ‘流觴曲水’의 이미지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는 후대의 문인들에게 하나의 典範이 되었다. 唐代에도 문인들은 무리지어 집단을 형성하여 그 집단 내에서 시를 쓰는 것을 즐겼다.³⁴⁾ 물론 이 시기는 初唐

이었기 때문에 차운의 형식이 아니었으며, 이들 문인집단은 시 창작을 同時性에 초점을 두었다. 창화는 양자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차운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中唐의 원진과 백거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창화한 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晚唐도 마찬가지로 창화시집인 《松陵集》에 수록된 창화시는 총 692首로, 그 중 피일휴와 육구몽의 창화시만 638首에 달한다.³⁵⁾ 다른 여러 문인들과의 창화 자체가 적은 것이다. 이후 북송 초에 西崑派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집단적으로 창화시를 창작한 최초의 시인 군체가 된다.³⁶⁾ 그러나 그들의 창화시집인 《西崑酬唱集》에 수록된 시를 보면, 楊億 75수, 劉筠 73수, 錢惟演 54수로 합하면 250수 가운데 총 202수가 되며,³⁷⁾ 그 중 次韻의 형태는 1組에 불과했다.³⁸⁾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중시했던 문인들의 심리로 인해 양자간에 이루어졌던 차운시는 다자간의 차운 창화시로 발전하게 된다. 본래 일대일 관계에서 贈答의 형식으로 발전한 창화시는 송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식은 여러 문인들과 차운하여 시를 자주 썼다. 이전의 “流觴曲水”의 이미지를 가진 집단 창작시가 여러 사람이 각자 지은 것이었다면, 소식에게는 차운 창화시로 활용된 것이다. 소식은 이러한 형태를 좋아했다.³⁹⁾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차운하는 일은 흔하게 이루어졌다.

34) 예를 들어, 정월 그믐날에 문인들이 高正臣의 정자에 모여 “華”字를 운으로 삼아 5언 율시를 지었다. <晦日宴高氏林亭>라는 제목 아래 序文을 쓴 陳子昂을 포함하여 모두 21명이 시를 썼다. 그들은 “華”字는 반드시 들어가되, “華”가 속해있는 “麻韻”의 다른 운들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시를 지었다. 이것을 用韻이라고 한다.

35) 王永波, <晚唐皮陸詩人群體研究>, 四川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p.31.

36) 朴玟貞, <北宋 西崑體 詩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1, p.218.

37) 위의 논문, p.24.

38) 위의 논문, p.93.

39) 蘇軾 <和王勝之三首(왕승지에게 화답하다 3수)> 其二

齊釀如澠漲綠波, 관청의 술은 승수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것과 같고
公詩句句可絃歌. 그대의 시는 구절구절이 현을 켜며 노래할 만 하네.
流觴曲水無多日, 유상곡수를 할 날이 많지 않으니
更作新詩繼永和. 새로운 시를 더 지어서는 영원히 화답을 이어가야겠구려.
(《蘇軾詩集》 卷二十五, p.1325.)

그런데 집단적 차운 창화에는 동질감이 더욱 뚜렷하게 형성된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집단과의 구분되는 일종의 테두리가 생겨 그들만의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 테두리 안에는 차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차운에 동참할 실력이 된다’는 암묵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또한 사람은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집단 내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주제 또는 소재를 공유하여 다수의 문인들이 함께 글을 쓰는 경우는 글쓰기 행위에 있어서의 의식의 공유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⁴⁰⁾ 집단 내 문인들에게 결속력을 심어주기 때문이다.⁴¹⁾ 더군다나 문단의 대가인 소식이 집단의 一員으로 참여한다면, 그 집단 내의 문인들은 자신이 소식과 교유할만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 소식이 집단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차운의 동기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운에 참여하는 문인들은 여러 측면에서 극대화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胡完夫 <宗愈聞子瞻舍人有懷居之興，爲短詩戲呈(내가 듣건대 자첨사인이 편안하게 지내는 흥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으므로, 짧은 시를 장난삼아 드린다)>

蘇公五十鬢髯斑, 소공이 오십 세가 되니 수염은 희끗한데
雲衲青袍入漢關. 구름 같은 적삼과 푸른 도포 입고 한나라의 관문으로 들어갔네.
賈誼謫歸猶太傅, 가의는 폼직 받아 돌아가서도 여전히 태부를 했는데
謝安投老負東山. 사안은 늙그막에 동산을 저버렸다네.
黃岡泉石紅塵外, 황강의 샘과 돌은 속세 밖에 있는데
陽羨牛羊返照間. 의흥의 소와 양은 석양 사이에 있구나.
知有竹林高興在, 대나무 숲의 심오한 흥이 있는 것을 알지만
欲閑誰肯放君閑. 한가하려 해도 누가 기꺼이 그대가 한가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⁴²⁾

40) 김상호, <당송 지식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서경호, 김월희 외 지음, 《중국의 지식장과 글쓰기》, 서울: 소명출판, 2011, p.228 참조.

41) 송대 사대부 문인들은 창화를 통해 결속력과 소속감을 재확인하였다.(鄭世珍, <烏臺詩案의 社會文化적 含意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p.44.)

蘇軾 次韻詩의 특징

蘇軾 <次韻胡完夫(호완부의 시에 차운하다)>

青衫別淚尙爛斑, 푸른 적삼에 이별의 눈물 떨어져 아직도 얼룩져있고
十載江湖困抱關. 십년 동안 강호에서 관문 지키느라 곤고했다네.
老去上書還北關, 늙어가매 상서 올려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朝來拄笏看西山. 아침에 홀을 괴고서 서산을 바라본다네.
相從杯酒酒形骸外, 육신 너머로 술잔을 서로 좇는데
笑說平生醉夢間. 웃으며 말하길 평생에 취하여 꿈속에 있는 듯하다네.
萬事會須咨伯始, 세상만사는 응당 백시에게 물어볼 것이니
白頭容我占清閑. 흰 머리의 내가 맑고 한가로움을 점하도록 허락해주시오.

錢穆父 <次完夫韻簡子瞻右史舍人(호완부의 운에 차운하여 우서사인 자첨에게 보내다)>

史觀婆娑馬與班, 역사를 보는 사마천과 반고는 필력이든 옷을 입고서
十年流落共間關. 십년동안 떠돌면서 함께 고생하였네.
鸞鳳喜見翔西省, 난새와 봉황이 중서성을 빙빙 도는 것을 보고 기뻐하니
猿鶴何勞怨北山. 원숭이와 학은 힘써 복산을 원망할 필요 없다네.
豈學三閭吟澤畔, 어찌 굴원의 澤畔吟을 배우겠는가
仍欣二陸下雲間. 두 육씨 아래 구름 사이에서 기뻐하네.
非維綸紵須椽筆, 윤발이 아니면 모름지기 큰 붓으로
讜論尤宜賜燕閑. 바른 말을 하니 잔치 베풀어주기 더욱 마땅하네.⁴³⁾

蘇軾 <次韻錢穆父(전목보의 시에 차운하다)>

老入明光踏舊班,⁴⁴⁾ 늙어서 명광궁에 들어가 옛 반열을 밟고서

42) 《補注東坡編年詩》 卷二十六.

43) 《補注東坡編年詩》 卷二十六.

44) 호완부는 原詩에서 제1구의 운각으로 “班”을 사용하였고, 소식도 이를 따른다. 여기에 호완부의 화답이 다시 이어지고 소식은 또 차운을 하는데, 역시 “班”을 사용한다. 그리고 호완부의 原詩에 차운한 전목보는 제1구에서 “班”을 사용하였고, 소식은 역시 이를 따른다. 전목보의 화답이 다시 이어지고 소식은 또 차운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班”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소식이 原詩의 운각을 얼마나 존중해주었는지 알 수 있다.

染鬚那復唱陽關. 수염 물들었으니 어찌 다시 <양관곡>을 부르겠는가.
 故人飛上金鑾殿, 옛 친구는 날아서 금란전에 오르고
 遷客來從飯顚山. 쫓겨난 객은 반과산에서 왔다네.
 大筆推君西漢手, 큰 붓으로 그대를 서한의 문장가로 추앙하는데
 一言置我二劉間. 한 마디말로 나를 두 명의 유씨 사이에 두었으니
 便須置酒呼同舍, 모름지기 술 베풀어 동료를 불러서는
 看賜飛龍出帝閑. 황제가 하사하신 준마가 황제의 마구간을 나가는 것을
 보겠네.

蘇軾 <次韻答李端叔(이단숙의 시에 차운하여 답하다)>

若人如馬亦如班, 이 사람은 마원과 같고 또 반초와 같으니
 笑履壺頭出玉關. 웃으며 호두를 밟고 옥문관을 나섰다네.
 已入西羌度沙磧, 서쪽 오랑캐의 땅으로 들어가 모래더미를 지나기도 하고
 又從東海看濤山. 동해를 따라 파도의 산을 보기도 하였다네.
 識君小異千人裏, 그대가 천 명의 사람 안에서 조금만 달라짐을 알게 되니
 慰我長思十載間. 내가 그대를 10년 동안 오래도록 그리워한 것이 위로가
 되었다네.
 西省鄰居時邂逅, 중서성에 이웃하게 되어 마침 만나게 되었는데
 相逢有味是偷閑. 만남의 묘미는 잠을 내어 만나는 것이라오.

창화에 참여한 사람은 소식과 호완부, 전목보, 이단숙이다. 먼저, 호완부의 原詩에서 호완부는 起居舍人⁴⁵⁾으로 발령을 받은 소식에게 위로를 한다. 소식은 늘상 은거에 대한 소망을 드러냈는데, 은거할 틈도 없이 조정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위로를 하는데, 소식은 인생이 한바탕의 꿈과 같이라며 자신에게 은거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차운시를 호완부에게 쓴다. 그리고 전목보는 호완부의 시에 차운하여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조정에서 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소식에게 말한다. 그러자 소식은 전목보 또한 중서사인으로 발령을 받았으니 술자리를 베풀어 즐겨야 한다고 대답한다. 한편, 이단숙(李之儀. 字 端叔)이 소식에게 시를 보내는데⁴⁵⁾ 소식은 오랜만에 만났으니 시간을 내어 만

45) 이단숙의 原詩는 현존하지 않는다.

나자며 이단숙에게 답했다.

결론적으로 5편의 시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소식이起居舍人으로 발령받은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소식을 포함한 호완부와 전목보, 이단숙 4명은 계속 같은 운을 사용하여 말을 이어나간다. 그들은 운각의 공유를 통해 다른 이들과 구분된 공간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이 운각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 집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이고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집단 내에서 마음껏 말할 수 있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깊은 공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 운각의 테두리 안에서 동질감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함께 놀이할 때, 유대감이 형성되고, 행복한 기억이 만들어지며, 새롭고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한다.⁴⁶⁾ 그래서 한 집단 내에서 상대방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므로 문인들은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었다.⁴⁷⁾

일반적으로 한 집단 내에서 창화를 할 때는 특정한 주제가 시의 소재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 주제는 일상적인 사건을 둘러싼 이야깃거리인 경우가 많았고, 소식은 이를 통해 차운이 주는 긍정적인 정서를 얻을 수 있었다.

<王晉卿示詩，欲奪海石，錢穆父、王仲至、蔣穎叔皆次韻。穆、至二公以爲不可許，獨穎叔不然。今日穎叔見訪，親睹此石之妙，遂悔前語。僕以爲晉卿豈可終閉不予者，若能以韓幹二散馬易之者，蓋可許也。復次前韻> 왕진경이 시를 보여주며 海石을 빼앗으려했는데 전목보, 왕중지, 장영숙이 모두 그 시에 차운했다. 전목보와 왕중지 두 명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장영숙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늘 영숙이 나를 방문하여 직접 이

46) Charles E. Schaefer 엮음, 앞의 책, 2015, p.276.

47) 이후 호완부는 소식의 시에 다시 차운하고, 소식은 여기에 또 화답하며 <次韻完夫再贈之什，某已卜居毘陵，與完夫有廬里之約云(호완부가 다시 보낸 시에 차운하는 바, 나는 이미 집을 쳐서 비릉에 은거할 집을 골랐으니, 완부와 오두막집의 약속에 대해 말하다)> 시를 썼다. 또한 전목보도 소식의 시에 다시 차운하고, 소식은 여기에 또 화답하며 <次韻穆父舍人再贈之什(전목보 사인이 다시 보낸 시에 차운하다)>를 썼다. 이를 통해 그들은 운각을 형성한 한 집단 내에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돌의 묘함을 보고는, 마침내 앞서 한 말을 후회했다. 나는 진경이 아마도 끝내 감추고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만약 두 마리 말이 흩어져서 노는 한간의 그림과 海石을 바꾸는 것이라면 허락할만하다. 앞의 운에 다시 차운한다.

- 1 相如有家山, 사마상여는 고향 산을 가졌는데
- 2 縹渺在眉綠. 아득히 푸른 눈썹의 여인이 있었네.
- 3 誰云千里遠, 누가 천리가 멀다 했는가
- 4 寄此一顰足. 이를 부치면 한 번 찡그리는 데 족했네.
- 5 平生錦繡腸, 평생에 비단 시문이 가득한 五臟이 있어도
- 6 早歲藜莧腹. 이른 나이부터 명아주와 비름만 먹었는데
- 7 從教四壁空, 설사 네 벽을 비게 했어도
- 8 未遣兩峰蹙. 아직 두 눈썹 산을 찡그린 적 없었지.
- 9 吾今況衰病, 나는 지금 하물며 노쇠하고 병들었어도
- 10 義不忘樵牧. 뜻은 땀감을 캐고 가축을 기르는 것을 잊지 않았으니
- 11 逝將仇池石, 구지석을 가지고 가서
- 12 歸泝岷山瀆. 민산의 도랑으로 거슬러 돌아가서는
- 13 守子不貪寶, 보배를 탐하지 않는 그대의 청렴을 지켜주고
- 14 完我無瑕玉. 옥에 흠이 없는 나의 지조를 완성하리라.
- 15 故人詩相戒, 옛 친구들은 시에서 서로 경계했는데
- 16 妙語予所伏. 묘한 말이 나를 탄복시킬 만하였네.
- 17 一篇獨異論, 한 편만이 홀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 18 三占從兩卜. 세 사람이 점치면 두 사람의 점을 따르다 하였네.
- 19 君家畫可數, 그대의 집에는 그림이 셀 만하니
- 20 天驥紛相逐. 천리마가 어지러이 서로를 쫓는데
- 21 風駿掠原野, 바람에 날리는 갈기는 들판을 정복하고
- 22 電尾捎澗谷. 번개 같은 꼬리는 계곡을 노략질한다네.
- 23 君如許相易, 그대가 만약 서로 바꾸기로 허락해준다면
- 24 是亦我所欲. 이는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네.
- 25 今朝安西守, 오늘 아침에 안서 태수인 장영숙은
- 26 來聽陽關曲. 와서 <양관곡>을 들으면서,
- 27 勸我留此峰, 나에게 “이 봉우리를 가지고 있으시오.
- 28 他日來不速. 봉우리가 없다면 훗날 내가 돌아와도 초청받지 못할테니.”라며 권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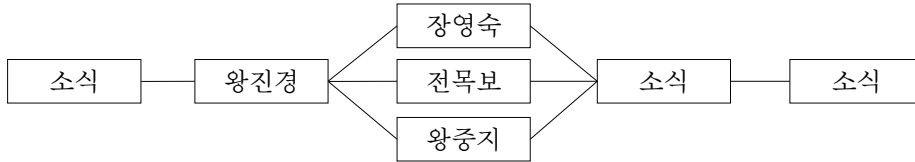
소식은 鄭德孺가 주고 간 怪石인 두 개의 海石을 가지고 있었다. 각각 초록색과 흰색의 돌이었는데, 그 중 여기서의 海石은 초록색의 돌을 말한다. 이 海石은 울퉁불퉁한 것이 마치 산봉우리 같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소식은 海石을 봉우리가 많은 仇池山의 돌인 구지석으로 말한다. 소식은 왕진경이 자신의 구지석을 빼앗으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빌려주지 않을 수는 없어 먼저 시(原詩)를 썼다.⁴⁸⁾ 그러자 왕진경이 차운시로 화답하였다. 전목보와 왕중지는 차운시를 지어 빌려주면 안 된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된다고 차운시를 썼던 장영숙도 나중에 직접 돌을 보고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바꿨다. 그러나 소식은 왕진경이 소장한 한간의 말 그림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며 시를 쓴다.

제1-8구는 구지석의 울퉁불퉁한 모양을 두 개의 봉우리로 보고 이를 眉山의 탁문군의 두 눈썹과 연결시킨 것이다. 탁문군은 사마상여와 함께 가난하게 살아도 아직 눈썹을 찡그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제9-14구는 소식이 구지석을 가지고 은거하여 자신의 지조를 완성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낸다. 제15-18구에서는 친구들이 시를 써서 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을 가리키며, 소식은 결국 두 사람의 공통된 의견을 따를 것이라 결정한다. 제19-24구는 왕진경의 집에 있는 말 그림 중에서 소식이 본 그림 속의 말의 모습이 매우 용맹하니, 그러므로 구지석과 교환해줄 수 있다고 허락한 내용이다. 제25-28구에는 장영숙이 길을 떠나며 구지석의 산봉우리 모양을 보고는 왕진경에게 이것을 주지 말고 지니고 있으라고 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⁴⁹⁾ 그렇다면 시의 흐름을 바탕으로 차운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상황을

48) 소식의 原詩는 <僕所藏仇池石, 希代之寶也, 王晉卿以小計借觀, 意在於奪, 僕不敢不借, 然以此詩先之(내가 구지석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희대의 보물이었으므로 왕진경이 잔머리를 써서 빌려 보았는데, 그 의도가 빼앗으려는 데 있었지만 나는 감히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 시로써 그에게 먼저 준다)>이다. 여기에 차운하여 지은 시가 위의 시이다.

49) 이후 소식은 <軾欲以石易畫, 晉卿難之, 穆父欲兼取二物, 穎叔欲焚畫碎石, 乃復次前韻, 并解二詩之意(소식이 돌을 가지고 그림과 바꾸려고 하니 왕진경이 난감해 하였다. 전목보가 두 가지 물건을 다 취하려고 하자, 장영숙이 그림을 태우고 돌을 부수려고 했다. 이에 앞의 운에 다시 차운하며, 함께 두 시의 뜻을 풀어본다)>라는 시를 지어 돌과 그림을 바꾸지 말고 각자 자신의 것을 즐기라고 하며 사건을 마

간단한 도식으로 정리한다.



소식과 함께 차운에 참여한 사람은 왕진경, 장영숙, 전목보, 왕중지이다. 소식을 포함한 5명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일상 속 사건을 시에 적는 것은 宋詩의 특징이었다. 송대 시인들은 특별한 감정이나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끼는 조그만 일들까지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노래하였다.⁵⁰⁾ 소식 역시 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기록하였고,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시가 많다.⁵¹⁾ 이는 차운의 형식과 어울려 일정한 효과를 주고 있다.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차운시를 통해 한 묶음이 되고, 운각은 그들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시켜 주었다. 또한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되므로, 차운시를 활용하여 거절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면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었다. 재치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차운시에서 소식은 장영숙과 전목보, 왕중지의 의견을 정리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이 과정조차도 모두 시로 기록하였다. 그들만의 특별한 사건을 차운시를 통하여 하나의 스토리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사건을 함께 겪은 사람들끼리는 동질감이 형성되므로 교유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소식은 이렇게 다자간의 차운 창화를 통해 유희성을 극대화시키며 교유를 하였다.

앞서 살펴본 시들은 세 명 이상의 문인들이 모여 지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적 시 창작이 아주 크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여러 문인들은 소식의 시에 동시적으로 차운시를 지어 화답을 하였다.

무리 지었다.

50) 金學主 譯著, 《新譯 宋詩選》, 서울: 명문당, 2003, pp.42-43.

51) 蔡愛芳, <二蘇及“蘇門四學士”唱和詩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p.30.

蘇軾 <武昌西山并敘(무창 서산시를 서문과 함께 쓰다)>

嘉祐中，翰林學士承旨鄧公聖求，爲武昌令。常游寒溪西山，山中人至今能言之。軾謫居黃岡，與武昌相望，亦常往來溪山間。元佑元年十一月二十九日，考試館職，與聖求會宿玉堂，偶話舊事。聖求嘗作，<元次山窪尊銘>刻之岩石，因爲此詩，請聖求同賦，當以遺邑人，使刻之銘側。

가우연간에, 한림학사승지 등성구가 무창의 수령이 되었다. 자주 한계의 서산에서 노닐었는데, 산 속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능히 그것을 말한다. 내가 편적된 황강은 무창과 서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또한 자주 계곡과 산 사이를 왕래하였다. 원우 원년 11월 29일에 고시관직을 맡았었는데, 성구와 함께 옥당에 묵다가 우연히 옛 일을 말하게 되었다. 성구가 일찍이 지었던 <元次山窪尊銘>을 바위에 새겼는데, 이 때문에 성구가 함께 읊고, 마땅히 읊인 왕문보에게 남겨 묘비명 옆에 새기게 할 것을 청하였다.

- 1 春江漲漲蒲萄醅, 맑은 봄 강물 불어나 푸른 색 포도주 같은데
- 2 武昌官柳知誰栽. 무창 관가에 심은 버들은 누가 심었는지 알고 있는가.
- 3 憶從樊口載春酒, 번구에서 봄 술을 싣고서
- 4 步上西山尋野梅. 서산으로 걸어 올라가 들의 매화를 찾던 일이 생각나네.
- 5 西山一上十五里, 서산은 한번 올라가면 십오 리인데
- 6 風駕兩腋飛崔嵬. 두 겨드랑이는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았네.
- 7 同游困臥九曲嶺, 함께 노닌 이들은 지쳐 구곡령에 누웠는데
- 8 褰衣獨到吳王臺. 옷 걷고 홀로 오왕대에 도착했다네.
- 9 中原北望在何許, 중원은 북쪽으로 바라보면 어디에 있는가?
- 10 但見落日低黃埃. 다만 지는 해가 누런 먼지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보였네.
- 11 歸來解劍亭前路, 돌아오는 해검정 앞길
- 12 蒼崖半入雲濤堆. 푸른 벼랑은 반쯤 구름파도 더미로 들어가 있었네.
- 13 浪翁醉處今尚在, 원결이 취한 곳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 14 石臼杯飲無樽罍. 술잔이 없으니 절구모양 돌을 쥐고 마신다네.
- 15 爾來古意誰復嗣, 그 뒤로 옛 뜻은 누가 다시 이었겠는가
- 16 公有妙語留山隈. 그대에게는 오묘한 말이 있어 산의 모퉁이에 남겼다네.
- 17 至今好事除草棘, 지금까지 호사가들은 풀과 가시나무를 없애며
- 18 常恐野火燒蒼苔. 들불이 푸른 이끼를 사를까 항상 두려워한다네.
- 19 當時相望不可見, 그 때는 서로 바라봐도 볼 수 없었는데
- 20 玉堂正對金鑾開. 옥당에서 마침 열린 금란전을 마주하고 있다네.

- 21 豈知白首同夜直, 어찌 알았겠나, 백발로 함께 밤을 새며
 22 臥看檠燭高花摧. 누워 촛불을 보며 꽃심지를 꺾을 줄을.
 23 江邊曉夢忽驚斷, 강가에서의 새벽꿈이 홀연히 놀라 끊어진 것은
 24 銅環玉鎖鳴春雷. 구리 문고리와 옥 쇠사슬이 봄 우레처럼 울려서라네.
 25 山人帳空猿鶴怨, 산 속 사람 떠나 장막이 비니 원숭이와 학은 원망하지만
 26 江湖水生鴻雁來. 강호에 봄물이 불어나면 기러기가 오겠지.
 27 請公作詩寄父老, 청컨대 그대가 시를 지어 늙은이에게 부쳐
 28 往和萬壑松風哀. 가서 만 골짜기의 소나무 바람이 슬픈 것에 화답하게나.

蘇軾 <西山詩和者三十餘人, 再用前韻爲謝(서산시에 화답한 사람이 삼십 여 명이므로, 앞의 운을 다시 사용하여 감사하다)>

- 1 朱顏發過如春醅, 붉은 얼굴 되었다 지나감이 봄 술과 같고
 2 胸中梨棗初未栽. 가슴 속의 배와 대추는 본래 심지 않았네.
 3 丹砂未易掃白髮, 단사로도 백발을 쓸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4 赤松却欲參黃梅. 적송자는 도리어 황매사람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네.
 5 寒溪本自遠公社, 한계는 본래 원공의 결사와 같아
 6 白蓮翠竹依崔嵬. 흰 연꽃과 푸른 대나무는 높은 산에 의지하네.
 7 當時石泉照金像, 그때의 바위틈의 샘물이 금상을 비추나니
 8 神光夜發如五臺. 밤에 빛나는 신령한 빛은 오대산과 같았네.
 9 飲泉鑑面得真意, 샘물 마시며 얼굴 비추어 참 뜻을 얻었나니
 10 坐視萬物皆浮埃. 만물이 모두 떠다니는 티끌임을 앉아서 보았네.
 11 欲收暮景返田里, 노년을 거두려고 전원으로 돌아가
 12 遠泝江水窮離堆. 멀리 강물을 거슬러 올라 이퇴산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13 還朝豈獨羞老病, 조정으로 돌아오니 어찌 유독 늙고 병든 것만 부끄럽겠는가
 14 自歎才盡傾空壘. 재주가 다하였으니 빈 잔을 기울이며 스스로 탄식한다네.
 15 諸公渠渠若夏屋, 여러 공들의 깊고 넓은 큰 집과 같아
 16 吞吐風月清隅隈. 풍월을 삼키고 뱉어 모서리를 맑게 하는데
 17 我如廢井久不食, 나는 버려진 우물과 같아 오랫동안 마실 수 없고
 18 古甃缺落生陰苔. 옛 벽돌은 이지러져 떨어지고 그늘에는 이끼가 생겼네.
 19 數詩往復相感發, 여러 시가 왕복하여 서로 감회를 나타내니
 20 汲新除舊寒光開. 새 것을 길어 옛 것을 없애 맑고 차가운 빛이 열리네.
 21 遙知二月春江闊, 멀리서도 아나니 2월의 봄 강은 넓어서

- 22 雪浪倒卷雲峰摧. 흰 물결이 출렁거려 높은 봉우리도 꺾겠지.
- 23 石中無聲水亦靜, 바위에 소리 없고 물 또한 고요한데
- 24 云何解轉空山雷. 어찌 빈산에 우레가 치리라 알았겠는가.
- 25 欲就諸公評此語, 여러 공들이 이 말을 평하는 데 나아가고 싶지만
- 26 要識憂喜何從來. 근심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하기에
- 27 原求南宗一勾水, 원컨대 남종의 한 국자 물을 구하여
- 28 往與屈賈湔餘哀. 가서 굴원, 가의와 더불어 남은 슬픔을 씻어야겠네.

소식은 차운시 제목에서 30여 명이 자신의 시에 화답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화운 중에서도 차운의 형식으로 화답하였다.⁵²⁾ 소식은 등성구가 시를 바위에 새긴 것을 보고는 자신도 시를 짓고 등성구가 화답시를 지음으로써 함께 바위에 시를 새겨주기를 청했다. 등성구에게 화답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소식은 은근히 자신의 시도 함께 새겨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보인다. 소식은 原詩에서 무창의 풍경과 그곳을 감상하는 자신의 감회를 길게 적는다. 그 중에서 마지막 8구는 등성구와 옥당에 묵으면서 자다가, 문고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등성구에게 화답하는 시를 지어 달라고 직접 부탁을 한다.

그리고 이 시에 삼십여 명이 차운을 하게 된다. 며칠 동안 이곳을 왔다 간 삼십 여명이 차운시를 남긴 것이다. 소식은 화답해 준 사람들에게 대한

52) 이 중 확실히 차운시를 지은 문인으로는 孔武仲<次韻蘇翰林西山詩(소자첨 한림학사의 서산시에 차운하다)>, 劉放<鄧聖求往爲武昌令, 刻石元次山滄尊, 及蘇子瞻謫官黃州遊武昌見前刻, 後同在翰林, 因有詩示余, 余爲次韻和之(등성구가 과거에 무창의 수령이었을 때 돌에 <元次山滄尊>을 새겼는데 소자첨이 황주에 폄적되어 무창에서 노닐며 앞서 새긴 것을 보았으니, 후에 함께 한림학사로 재직하면서 있었던 시를 나에게 보여준 것을 인하여 나는 차운하여 그 시에 화답했다)>, 張耒<次韻蘇公武昌西山(소공의 무창 서산시에 차운하다)>, 蘇轍<次韻子瞻與鄧聖求承旨同直翰苑, 懷武昌西山舊遊(자첨과 등성구 승지가 한림원에서 함께 당직하며 쓴 시에 차운하며, 무창 서산에서 옛날에 노닐 일을 생각하다)>, 黃庭堅<次韻子瞻武昌西山(자첨의 무창 서산시에 차운하다)>, 晁補之<次韻蘇公翰林贈同職鄧溫伯懷舊作(소공 한림학사가 함께 당직한 등온백에게 준 시에 차운하여 옛 일을 생각하며 짓다)> 등이 있다. 이로보아 소식의 시에 차운한 문인들은 모두 차운시를 지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소식이 다시 같은 운각으로 차운하여 여러 문인들에게 화답한 것도 그들이 차운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감사함으로 차운시를 짓는다. 제14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난다. 자신은 재능을 다하여 시를 잘 짓지 못했다며 탄식하며 겸손을 내비치는데, 화답한 여러 문인들은 시를 잘 지었으니 마치 깊고 넓은 큰 집과 같다고 한다. 화답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시는 맑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다. 그래서 소식은 제25구에서 여러 문인들이 시를 짓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불도를 닦아 시름을 덜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原詩에서 소식은 일차적으로 등성구에게 화답시를 요구하였다. 소식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다른 문인에게 화운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위에 그 시를 새김으로써 자신과 등성구의 시를 보는 사람들이 화답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또한 이 차운에 참여한 문인들은 소식의 시에 차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된다. 그와 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소식의 제안이 여러 문인들에게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차운시를 지을만한 수준이 된다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니 그 문인들의 입장에서 차운하는 것 자체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문인들은 28句의 고체시에 차운하며 집단적 시 창작을 한다. 운작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며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다.

문인들은 집단적으로 차운시를 지었다. 차운시가 하나의 모임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차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그 차운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같은 知的 수준에 있다는 암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차운에 동참하는 문인 중 한 사람은 문단의 영수인 소식이었다. 소식과 같은 大家와 함께 차운시를 짓는다면, 자신이 소식과 어울릴만한 문인이라는 자부심이 더욱 들게 될 것이다. 소식의 입장에서조차 자신과 같은 수준의 詩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교유의 벗으로 확보하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소식의 집단적 차운시 창작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제3절 타자간 관계에의 개입

시는 書信의 역할을 대체하였으므로 여기에는 受信者가 특정된다. 그런데 소식은 原詩의 작자가 타인에게 보내는 시에 끼어들어 차운을 하였다. 상대방을 明示한 시에 끼어들어 차운을 한 것이다. 그리고 原詩의 작자는 그 수신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둘만의 이야기가 시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다. 소식은 이러한 관계에 개입을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타자간 관계에의 개입’이라 말할 것이다. 소식은 原詩의 受信者가 아닌데도 그 시에 차운을 한 것인데, 소식 차운시의 受信者는 原詩의 시인 또는 原詩의 受信者이다.

그렇다면 소식은 왜 특정한 사람에게 쓴 타인의 시에 차운을 하였는가? 이러한 형식을 취한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차운을 한다면 그 시의 발신자 또는 수신자, 그리고 자신을 동시에 연결시키면서 그들 속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식은 차운시를 가지고 詩로 매개되는 그들의 개인적 관계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그들에게 접근하여 교유를 시도한다. 이는 原詩 작자가 보낸 贈詩에 이미 긍정적인 정서가 깔려 있어 그들과 교유하는 데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즐거운 분위기에서 교유를 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그 상태에 차운시로 더욱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였기에 이 시도는 효과적이었다. 특히나 차운시는 상대방의 운자 선택을 존중하여 상대방에 대한 예우가 드러나기 때문에⁵³⁾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까지 더해줄 수 있다. 소식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차운시의 가장 큰 장점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큰 특징을 바탕으로 타자간 관계에의 개입은 다양하게 이용된다.⁵⁴⁾

53) 강민호, <押韻의 미학으로 본 次韻詩의 특성에 대한 연구 — 元白과 蘇軾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72, 2012, p.54.

54) 소철의 시에도 이러한 특징이 발견된다. <次韻景仁丙辰除夜>, <次韻景仁招宋溫之職方小飲>, <次韻景仁飲宋溫之南軒二首>, <次韻景仁正月十二日訪吳續寺丞二絕> 등

黃庭堅 <郭明甫作西齋于潁尾請予賦詩二首(곽명보가 영미에 서재를 지어 놓고 나에게 시 짓기를 청하다)>

其一

食貧自以官爲業, 가난하게 먹으면서도 스스로가 관직을 업으로 삼았으니
聞說西齋意凜然. 서재의 뜻은 경외할 만하다 들었네요.
萬卷藏書宜子弟, 만 권의 책들은 자제들에게 마땅하고
十年種木長風煙. 十年之計로 나무를 심어 풍광이 길게 보이는군요.
未嘗終日不思潁, 아직까지 하루 종일 영주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想見先生多好賢. 선생께서 현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요.
安得雍容一樽酒, 어디서 한 잔의 술을 얻어 온화해질 수 있을까요
女郎臺下水如天. 여랑대 아래의 물은 하늘과 같다는데.⁵⁵⁾

蘇軾 <次韻黃魯直寄題郭明父府推潁州西齋二首(황노직이 관청의 추관⁵⁶⁾인 곽명보의 영주 서재에 써서 보낸 시에 차운하다)>

其一

樹頭啄木常疑客, 나무 끝의 딱따구리를 늘 손님으로 오해하였으니
客去而嗔定不然. 손님이 떠나면서 성내는 일 분명 없을 것일세.
脫輶已應生井沫, 비녀장을 빼서 던져버려 이미 우물 안에 거품 일었으니
解衣聊復起庖煙. 옷 벗고는 그런대로 다시 부엌 연기 나게 하네.
平生詩酒眞相汚, 평생의 시와 술은 참으로 서로를 더럽혔으니
此去文書恐獨賢. 이번에 보낸 서찰이 홀로 힘쓴 것일까 두렵다네.
早晚西湖映華發, 조만간 서호에 흰 머리를 비추어
小舟翻動水中天. 작은 배가 물속에 비친 하늘을 일렁이겠지.

곽명보라는 사람이 潁州에 서재를 지었다. 그것을 기념하고자 변경에 있

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철은 범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시에 차운 함으로써 그 자신도 범진과 범진의 벗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鄭世珍, 《烏臺詩案的 社會文化적 含意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2, p.129.)

55) 黃庭堅 撰, 任淵, 史容, 史李溫 注, 劉尚榮 點校, 《黃庭堅詩集注(三)》, 外集, 卷二, 北京: 中華書局, 2003. p.785.

56) 刑獄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는 황정건에게 시를 지어주기를 부탁한다. 황정건은 먼저 곽명보의 청렴한 인품과 함께 현인들을 위하여 서재를 지은 곽명보의 뜻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하루빨리 영주에 가서 곽명보를 만나고 그의 서재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영주에 있는 곽명보에게 이 시를 보냈다. 이때는 元祐 4년(1089) 4월로, 소식이 변경에서 한림학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소식은 황정건이 곽명보에게 보낸 시를 읽고 역시 차운을 하여 보낸다. 곽명보는 언제나 손님을 잘 맞아주는 사람이며 소식은 그를 만나 함께 술자리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식은 어서 영주에 가서 곽명보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

곽명보는 황정건에게 서재를 기념하는 시를 지어달라며 직접 부탁하였다. 여기에서 곽명보와 황정건 둘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소식은 자신에게 부탁하지도 않은 시를 지어 곽명보에게 보낸다. 그는 차운시를 이용하여 둘의 관계에 개입하여 곽명보에게 접근한다.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황정건의 시를 통해 자신을 그들과 연결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교유를 하는 것이다. 차운시를 이용하면 먼저 운각 자체로 인한 유희성으로 인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소식 차운시의 내용은 곽명보에 대한 칭송이다. 앞서 황정건이 곽명보의 인품을 칭송하여 이미 곽명보의 기분을 좋게 만든 상태였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의 차운시까지 더해지면서 곽명보에게 운각을 공유한 황정건과 소식 두 명의 문인이 그를 칭송한다는 기쁨을 배로 줄 수 있게 된다.

이 시는 소식과 곽명보가 시로써 교유한 첫 번째 시이며, 이후에 소식과 곽명보의 교유는 지속된다. 실제로, 元祐 6년(1091) 9월에 소식은 潁州知州로 좌천되어 부임하게 되고 곽명보와 만나 반년 동안 함께 교유하였다.⁵⁷⁾ 이것은 소식이 일찍이 황정건의 시에 차운함으로써 곽명보와의 교유

57) 이는 소식의 <與明父權府提刑>(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卷五十九, 北京: 中華書局, 1996, p.180.)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부임한 지 반년 동안 덕택으로 감싸주셨는데, 관직에서 해방되어 떠나가게 되어 심히 감복합니다.(到官半歲, 依庇德宇, 獲遂解去, 感服深矣)”라 했다.(소식은 1091년 9월부터 영주에 있다가 1092년 3월에 양주로 옮겨갔으므로, 반년이라고 한 것이다.)

의 기반을 마련한 덕분이었다. 개인적인 일로 연결된 관계 안에도 차운시를 통하여 개입하여 교류를 확대한 것이었다.

차운시는 운각의 공유로 인하여 原詩의 내용과 정서를 이어받게 된다. 차운은 原詩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운시를 지을 때 原詩의 역할은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나 原詩 작자의 贈詩 창작의 동기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며 이를 받는 상대방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原詩를 통해 타자간의 공통된 정서가 이미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즐거운 이미지를 동반하는 차운이 추가된다면 교류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

張耒 <謝錢穆父惠高麗扇(전목보가 고려선을 준 것에 감사하다)>

三韓使者文章公, 고려의 사자들은 뛰어난 문장을 쓰는 공이며
東夷守臣親掃宮. 동쪽 오랑캐 제후들은 몸소 궁중의 일을 처리한다네.
清嚴不受橐中獻, 청렴하고 엄하여 주머니 속의 헌물을 받지 않으니
萬里歸來兩松扇. 만 리에서 돌아오는 건 두 개의 송선이라네.
六月長安汗如洗, 유월의 장안은 땀으로 씻는 듯한데
豈意落我懷袖裏. 어찌 나에게 떨어뜨려 소매 안에 품는 것을 생각했으리오.
中州翦就霜雪紈, 중주에서는 눈같이 흰 비단을 잘라
千年淳風古箕子. 천 년 전의 예스러운 고향의 키를 만드네.⁵⁸⁾

蘇軾 <和張耒高麗松扇(장외의 <고려송선> 시에 화답하다)>

可憐堂堂十八公, 불쌍하게도 당당하던 소나무는
老死不入明光宮. 늙어 죽은 뒤에도 명광궁에 들어가지 못했다네.
萬牛不來難自獻, 만 마리 소가 오지 않으니 스스로를 바치기도 어려워
裁作團團手中扇. 마름질하여 손 안의 둥근 부채로 만들었다네.
屈身蒙垢君一洗, 몸 굽혀 치욕을 받은 것 그대가 한 번에 씻어주고는
掛名君家詩集裏. 그대의 시집에 이름을 올려주었으니
猶勝漢宮悲婕妤, 오히려 한나라 궁궐의 슬픈 반첩여보다
網蟲不見乘鸞子. 거미줄 보지 않은 난새 타고 간 진왕녀 보다 더 낫다네.

58) 《補注東坡編年詩》 卷二十九.

高麗松扇은 고려의 소나무 가지로 만든 부채이다. 이 부채는 고려에서 宋으로 보내지는데, 宋人들은 高麗松扇을 애호했다. 그리고 張耒는 蘇門四學士 중 한 사람으로 소식의 제자이다. 어느 날 전목보가 장뢰에게 고려의 나무로 만든 부채를 선물하자 장뢰는 그 보답으로 감사의 시를 쓰는데, 고려 사람들과 高麗松扇에 대한 칭찬이 시의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소식의 차운시에서는 안타깝게도 큰 재목이 되지는 못했으나 장뢰가 이 소나무로 만든 부채를 가지고 시를 지어주었기 때문에 부채의 신세가 반첩여나 진왕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결국 시를 지은 장뢰를 칭찬한 것이다.

原詩의 배경은 전목보가 장뢰에게 고려송선을 선물하여 장뢰가 감사하는 상황이다. 즉, 장뢰에게는 이미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식은 장뢰의 시에 차운을 하는데, 그 내용은 장뢰에 대한 칭찬이다. 그는 타자간 관계에 개입하여 이미 긍정적으로 형성된 정서 위에서 차운시로 교류를 시도한 것이다. 또한 이는 장뢰가 선택한 운각이기 때문에 장뢰를 존중한다는 마음을 함께 전달할 수 있었다. 장뢰의 시를 인정해 준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이다. 소식은 이렇게 제자인 장뢰에게 화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타자간 관계에서 온 정서를 바탕으로 즐거움이 추가되었기에 교류에 유리했다.

송별시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인들은 오랜 벗을 전송하면서 송별시를 지어 그를 보내는 정감을 전달했다. 그리고 소식은 타인의 송별시에도 차운을 하였다.

錢穆父 <出省馬上有懷蔣穎叔二首(대궐에서 나와 말 위에서 장영숙에 대한 회포가 일어 쓰다)>

其一

春雪京城一尺泥, 봄 눈 내려 서울에는 한 자의 진흙 있는데
並鞍還憶蔣征西. 안장 끼고 서쪽으로 전쟁 가는 장영숙을 아직도 그리워하네.
碧幢紅旆出關去, 푸른 휘장과 붉은 깃발 들고 관문을 나가는 그대에게
一路東風送馬蹄. 가는 길에 봄바람이 말굽을 보내겠네.⁵⁹⁾

59) 《補注東坡編年詩》 卷三十六.

蘇軾 <次韻錢穆父馬上寄蔣穎叔二首(전협이 말 위에서 장영숙에게 보낸 시에 차운하여)>

其一

玉關不用一丸泥, 옥문관에 진흙 한 덩이는 필요 없으니
自有長城鳥鼠西. 본래 조서산 서쪽에 장성이 있기 때문이라네.
剩與故人尋土物, 더욱이는 옛 친구와 토산물을 찾아서는
臘糟紅麴寄駝蹄. 납일의 술지게미와 붉은 누룩을 낙타의 발굽에 보내네.

錢穆父와 蔣穎叔은 모두 소식의 벗이다. 전협은 장영숙이 떠나게 되자 송별시를 그에게 보냈는데, 소식은 그 송별시를 보게 되어 차운을 한다.⁶⁰⁾ 전목보는 시간이 지나도 떠나간 장영숙을 아직도 그리워한다며 장영숙에게 이 시를 보냈다. 소식은 차운시를 통해 장성과도 같은 장영숙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진흙으로 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면서 그를 칭송하고 그에 대한 정을 드러냈다.

소식은 떠나간 장영숙에 대하여 새로운 운을 사용하여 시를 짓지 않고, 전목보의 시에 차운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그리워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그에게 편지를 받으면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운각을 가진 차운시를 또 받았을 때, 原詩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므로 시를 받는 장영숙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原詩와 차운시를 나란히 놓고 감상함으로써 공통된 운각이 주는 리듬감⁶¹⁾으로 인해 재미를 느끼게 된다.

차운은 놀이로서 그 속성은 즐거움이다. 공유된 운각을 보며 상대방은 즐거운 정서가 형성된다. 여기에 운각을 재치 있게 사용하여 해학적 요소를 삽입한다면 차운시는 그 효과를 더욱 발하게 된다. 따라서 차운을 하면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60) 진관은 “전협의 <次韻出省馬上有懷蔣穎叔(대궐에서 나와 말 위에서 감회가 있어 장영숙에게 쓰다> 시에 차운하다)”을 지었다. 진관 또한 전목보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61) 차운시는 압운에 의한 미감과 그 효용에 대한 인식이 창화의 관습과 결합하며 탄생하였다.(강민호, 앞의 논문, 2012, p.55.)

蘇軾 <次韻王定國謝韓子華過飲(왕정국의 <한자화가 집에 들러 술을 마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시에 차운하다)>⁶²⁾

- | | |
|-----------|------------------------------|
| 1 楚有孫叔敖, | 초나라에는 손숙오가 있을 때는 |
| 2 長城隱千里. | 장성은 천리에 숨어있었네. |
| 3 哀哉練裙子, | 슬프구나, 표백한 바지를 입은 자는 |
| 4 負薪躪破履. | 땀나무를 지고서 해진 신발을 신었으니. |
| 5 豈無故交親, | 어찌 사귄 친구가 없으라마는 |
| 6 逝去如覆水. | 가버린 것이 물을 엮지른 것과 같구나. |
| 7 不如老優孟, | 늙은 우맹이 |
| 8 談笑託諧美. | 담소 중에 해학의 아름다움을 기탁한 것만 못하고 |
| 9 世家不可恃, | 권문세가는 믿을 만하지 않으니 |
| 10 如倚折足几. | 다리가 부러진 안석에 기대는 것과 같다네. |
| 11 祥符有賢相, | 眞宗 때에는 어진 재상이 있어 |
| 12 手握天下砥. | 손으로 천하를 쥐어도 공평했다네. |
| 13 懿敏亦名公, | 懿敏 또한 이름 난 공인데 |
| 14 三貴德爵齒. | 세 가지 귀한 것은 덕과 벼슬과 나이였다네. |
| 15 蓋棺今幾日, | 관을 덮은 지 오늘로 며칠인가 |
| 16 公子誰料理. | 공의 아들을 누가 돌보아주겠으며 |
| 17 誰要卿料理, | 누가 경이 돌보아주기를 원하는가? |
| 18 欲說且止止. | 말하려고 하다가도 또 멈춘다네. |
| 19 宅相開府公, | 집터의 관상을 보고 부공을 열고 |
| 20 久爲蒼生起. | 마침내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났지만 |
| 21 如何垂老別, | 늘그막의 이별은 어떠한가? |
| 22 冰盤饋蒼耳. | 얼음 같은 쟁반의 도꼬마리를 먹기만 하는구나. |
| 23 親嫌妨鶚薦. | 친형제도는 현인을 추천하는 것을 방해하니 |
| 24 相對發微訢. | 서로 마주하면 땀을 빼질 흘린다네. |
| 25 新詩如彈丸, | 새로운 시는 탄환 같이 빨라 |
| 26 脫手不移晷. | 손을 벗어나면 해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라네. |
| 27 我亦老賓客, | 나 또한 늙은 빈객이라 |
| 28 苦語落紈綺. | 쓴 말 하며 화려한 비단에 글을 쓴다네. |
| 29 莫辭三上章, | 세 번 상소문 올리기를 사양하지 말게나 |
| 30 有道貧賤恥. | 도가 있는데 빈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 |

62) 왕정국의 原詩는 현존하지 않는다.

王定國(王鞏, 1048-1111)은 소식의 오랜 벗으로, 소식이 왕정국의 시에 차운한 작품만도 29首⁶³⁾나 될 만큼 그와의 교유활동은 활발했다. 그리고 韓子華(韓絳, 1012-1088)는 왕정국의 고종사촌 형이다. 이 시는 왕정국이 자신의 집에 고종사촌인 한자화가 들어서 술을 마시고 간 것에 대해 감사하여 쓴 시에 소식이 차운한 것이다. 소식은 차운을 통해 왕정국과 한자화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소식은 한자화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다. 초나라의 유능한 재상인 손숙오가 있을 때에는 長城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추천 받지 못한 왕정국은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이는 優孟이 楚 莊王에게 부탁하여 손숙오 아들에게 식읍을 준 것과 반대로 한자화는 왕정국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게다가 왕정국은 권문세가에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과거 眞宗(997-1022)때, 왕정국의 할아버지인 王旦이 어진 재상으로 있었고, 그의 셋째 아들인 王素도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죽어 왕정국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소식은 한자화가 왕정국을 잘 도와주어야 함을 우회적으로 말한다. 비록 한자화가 벼슬길에 올랐으나 왕정국과는 헤어지게 되었고, 親嫌으로 인해 친척인 왕정국을 추천할 수도 없어 왕정국을 마주하면 민망하여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 나타난다. 마지막 4구에서는 왕정국에게 직언처럼 쓴 소리를 계속 할 것을 제안하고 가난하지 않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

왕정국과 한자화는 사촌지간이며, 왕정국의 原詩는 전해지지 않지만 제목을 보아 감사하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소식의 차운시에 앞서 왕정국의 집에서 한자화가 들러 술을 마신 그들만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자화가 왕정국을 추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소식은 평소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차운을 시도한다. 그는 역사적 사실들을 끌어와서 왕정국을 돕지 못한 한자화를 비판하며, 왕정국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자꾸 언급한 것이다.

63) 內山精也, 앞의 책, p.334.

그러나 소식은 차운의 유희성을 이용하여 재치 있게 불만을 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3-24구에서 “親嫌妨鶚薦, 相對發微訾(친혐제도는 현인을 추천하는 것을 방해하니, 서로 마주하면 땀을 빼질 흘린다네.)”라며, 운각 “訾”를 사용하여 해학적인 정서를 부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운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소식은 한자화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주어 교유관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차운시를 지어 운각으로 인한 해학적 요소를 삽입하면 그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한자화는 감사 편지를 받고는 기분이 좋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 위의 차운시를 보낸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소식은 차운시를 통해 한자화와 왕정국을 자신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도 교유 관계를 고려하여 불만을 재치 있게 전달하였다. 소식은 이렇게 차운시를 지어 교유를 지속할 수 있었다.

타자간 관계에의 개입을 통한 차운은 다양한 효과를 주었다. 그들은 소식이 차운하기에 앞서 특정한, 개인적인 사건을 가지고 시로 연결되어 있었고, 贈詩의 특성상 시의 내용은 긍정적인이다. 이를 통해 둘 사이에는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차운시는 原詩와 결합하여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原詩 작자의 운각을 따름으로써 그를 존중하는 느낌까지 줄 수 있다. 이는 차운이 놀이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소식은 그들에게 놀이를 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교유를 시도했다. 그러므로 소식은 ‘以詩爲交’의 문화 속에서 타인의 관계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교유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3장 차운 대상의 다양화

차운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존재가 시 창작의 조건이 된다. 唱詩에 和詩로써 대응하면서 상대방과 교유를 하는 것이 차운시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식의 차운시에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原詩가 존재한다면 차운시를 지은 경우가 있었다. 그 原詩의 작자는 소식 본인이거나 이미 죽고 없는 古人이 되기도 한다. 소식은 교유 상대방의 시가 아닌 자신의 시와 古人의 시를 차운의 대상인 原詩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운 대상의 다양화는 소식 차운시의 특징이 된다. 이렇게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차운을 한다는 것은 소식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각각 놀이를 통해 자신의 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거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임을 이 장에서 논의한다.

제1절 自和詩

소식은 자신의 시에 다시 차운을 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自和詩’라 할 것이다. 자화시는 소식이 자신의 시에 차운하였기에, 두 사람 간에 唱과 和가 이루어졌던 창화시와는 다르다. 唱과 和의 주체가 모두 시인 자신이라는 점에서 자화시는 특별하다.

먼저 자화시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자화시인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자화시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次韻自作詩”를 “疊次韻”으로 규정하고, 그 수량을 87首⁶⁴⁾라 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른 문인과의 창화 과정 중에 소식 자신이 처음 지은 詩에 다시 차운하게 된 형식도 포함시켰으니, 이는 창화에서의 原詩가 ‘상대방의 시’임을 간과

64) 위의 책, p.335.

한 것이다. 즉, 소식은 상대방이 쓴 시에 화답한 것이지 최초의 자신의 시에 차운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자화시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이는 소식이 시 제목을 붙이는 습관을 통해 알 수 있다. 原詩와 차운시의 제목을 차례대로 본다.

- <除夜病中贈段屯田(제야를 맞아 병석에 누워서 단둔전에게 드린다)> / <和頓教授見寄, 用除夜韻(돈교수가 보내온 시에 화답하여 제야를 노래한 시에 차운한다)>
- <送碧香酒與趙明叔教授(조명숙 교수에게 벽향주를 보내며)> / <趙既見和復次韻答之(조씨가 이미 나의 시에 화답해 왔기에 다시 차운하여 답한다)>
- <六月十二日酒醒步月, 理髮而寢(6월 12일에 술에서 깨어 달빛 아래에서 산책하는데, 머리를 빗고는 잠에 들며)> / <和子由次月中梳頭韻(자유가 달빛 아래에서 머리를 빗는 시의 운에 차운한 시에 화답하다)>⁶⁵⁾

위의 예시를 보면 차운시의 제목에 “見寄(나에게 보냈다)” 또는 “見和(나에게 화답하였다)”와 같은 말을 적었음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예시도 자신의 시에 화답한 소철의 시에 화답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시의 제목에는 상대방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각종 표지들이 등장한다. 소식 시의 제목에는 시를 짓게 된 이유와 당시의 구체적 상황 및 창화한 사람들과 운의 사용 상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⁶⁶⁾ 소식은 이렇게 시창작의 동기 또한 구구절절하게 제목에 읊어 자신에게 화답하였기에 보낸다고 적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화시가 아닌 시를 추려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순수하게 자신의 시에 차운한 경우는 이와 다르다.

- <送魯元翰少卿知衛州(위주지주로 부임하는 노원한 소경을 전송하며)> / <用舊韻送魯元翰知洺州(옛 운을 사용하여 노원한 지명주를 전송하며)>

65) 소철은 소식의 시 <六月十二日酒醒步月, 理髮而寢>에 화답하여 <次韻子瞻梳頭>를 지었다. 이에 다시 화답한 소식의 시가 <和子由次月中梳頭韻>이다.

66) 李黎, 李寅生, <開卷遙相憶, 知音兩不遭 - 蘇軾詩作中的讀者意識探析>, 廣西大學文化與傳播學院, 《黃岡師範學院學報》, 2008, p.2.

- <鬱孤臺(울고대)> / <鬱孤臺(再過虔州, 和前韻⁶⁷)>(울고대 다시 건주를 지나며 전운에 화운하다)>
- <留別金山寶覺, 圓通二長老(금산의 보각·원통 두 장로와 작별하며)> / <余去金山五年而復至, 次舊詩韻, 贈寶覺長老(내가 금산을 5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이르렀으니, 옛 시의 운에 차운하여 보각장로께 드린다)>

이러한 예들은 “見和”나 “見寄” 등의 표현 없이 “次前韻(전운에 차운하다)”, “復次韻(다시 차운하다)”, “用舊韻(옛 운을 사용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전에 지었던 자신의 시에 차운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본고에서 설정한 대부분의 자화시는 ‘이전의 운을 사용했다’는 표지를 가지고 있다.⁶⁸⁾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原詩와 함께 묶은 자화시를 31組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소식은 같은 운각을 사용하여 자신의 原詩와 차운시, 즉 자화시를 하나의 짝으로 묶었다. 그리고 原詩와 자화시는 특정한 상황 또는 사건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소식이 자화시를 짓기 위해 原詩에 차운함으로써, 原詩의 운각에 담긴 특정한 상황 또는 사건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화시를 原詩와 관련시켰다. 또한 자화시와 原詩간에는 긴밀히 연결된 장치들이 눈에 띄는데, 이는 소식이 原詩를 고려하며 자화시를 지어 관련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차운의 속성인 유희성이 발현된 모습이 보인다. 시인이 관련성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 관련된 요소를 가지고 놀이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식은 이를 통해 놀이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자화시는 原詩와의 운각의 공유를 통해 原詩와의 동질성을 부여하고 原詩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위해 창작된 것이었다.

그런데 자화시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內山精也는 대비적 국면이 출현하면 소식은 의도적으로 자화시를 짓는다고 하였다.⁶⁹⁾ 그러나 그의 견해에

67) 소식의 自注이다.

68) 예외적인 경우가 1組 있는데, <予前後守, 倅餘杭, 凡五年. 夏秋之間, 蒸熱不可過. 獨中和堂東南頰, 下瞰海門, 洞視萬里, 三伏常蕭然也. 紹聖元年六月, 舟行赴嶺外, 熱甚. 忽憶>와 <慈湖夾阻風五首 其一>이다. 그러나 두 시의 편년시기가 비슷하고, 原詩의 내용을 통해 原詩와 차운시가 같은 소재를 다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9) 內山精也, 앞의 책, pp.337-350 참조.

따르면, 原詩와 자화시간에 대비되는 양상으로만 작품을 해석하게 되며 이외의 경우의 자화시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또한 소식의 자화시는 단순히 대비의 측면으로만 파악하기에는 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견해에서 더 나아가 소식의 자화시를 파악할 것이다. 소식의 자화시는 내용의 흐름이나 전개 방식 측면에서 原詩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나, 原詩의 상황이 자화시에서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原詩에서 다하지 못한 새로운 말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連作詩”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작시란 같은 제목 아래 두 수 이상을 연이어 지은 시로 지칭된다. 그리고 시적 대상의 공유는 연작시의 속성이자 구성 원리이다.⁷⁰⁾ 연작시를 이루는 개별시가 각기 독립적으로 온전한 시상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개별시 상호간에 내용상의 연계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연작시라 할 수 있다.⁷¹⁾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소식의 자화시는 연작시로 볼 근거가 생긴다. 앞에서 서술한 原詩와 자화시에 관련성을 부여한 것과 결합하여 연작시의 기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소식의 原詩와 자화시를 連作詩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연작시를 연구할 때,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편의 시를 지은 작품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소식의 原詩와 자화시는 개별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시적 대상을 공유하고 있고, 한 편의 긴 시처럼 내용이 이어지기도 하며, 그것들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原詩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지속되는 것이다. 이는 연속으로 시를 창작했을 경우이다. 또한 연속적으로 창작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는 原詩와 자화시간에 나타난 정서가 대체로 다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두 가지의 경우를 구분하여 시를 분석한다.

70) 최경환, <金尙容의 「四時詞」와 8수 連作詩의 構成原理>, 부산외국어대학교, 《外大論叢》, vol.20, 2000, p.179.

71) 이영주, <두보 연작시의 장법 연구>, 서울대학교 人文大學 東亞文化研究所, 《東亞文化》, vol.49, 2011, p.31.

(1) 연속 창작의 경우

이러한 자화시와 原詩는 거의 연속적으로 지어진 작품이다. 이 중 먼저 연작시의 기법을 사용하여 原詩의 내용에 이어 못 다한 말을 자화시에서 하는 경우를 보겠다.

蘇軾 <將之湖州戲贈莘老(호주로 떠나기 전에 장난삼아 손신로에게 드린다)>

餘杭自是山水窟, 여항은 본래 멋진 산수가 다 모인 곳인데
 仄聞吳興更清絕. 듣자 하니 오흥은 더욱 멋지다지요.
 湖中橘林新著霜, 호수 속의 귤 숲에는 방금 서리가 내린 듯
 溪上茗花正浮雪. 개울가의 갈대꽃은 바로 공중에 뜬 눈인 듯
 顧渚茶芽白于齒, 고저산의 차싹은 이빨보다 더 희고
 梅溪木瓜紅勝頰. 매계 가의 모과꽃은 뺨보다 더 붉다지요.
 吳兒膾縷薄欲飛, 오인의 실 같은 회는 날아갈 듯 얇디얇아
 未去先說饞涎垂. 가기 전에 먼저 얘기만 해도 침이 줄줄 흐르는군요.
 亦知謝公到郡久, 사안이 오래전에 그 고을에 가신 걸 아나니
 應怪杜牧尋春遲. 두목이 봄놀이 가는 게 너무 늦다고 나무라실 테지만
 鬢絲只可對禪榻, 머리가 하얀 이 몸은 선태이나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니
 湖亭不用張水嬉. 호숫가의 정자 앞에 수상유희는 펼칠 것 없대요.

蘇軾 <再用前韻寄莘老(다시 지난번 시의 운자를 사용하여 손신로에게 부친다)>

君不見夷甫開三窟, 그대는 보지 못했소 이보가 굴을 세 개나 뚫어도
 不如長康號癡絕. 장강이 천치라고 불린 것만 못했음을?
 癡人自得終天年, 어리석은 자는 자득하여 천수를 다 누리지만
 智士死智罪莫雪. 지혜로운 자는 지혜에 죽어 그 죄를 씻을 수 없대요.
 困窮誰要卿料理, 곤궁하다고 누가 그대에게 자기 일 잘하라 하겠소?
 舉頭看山笏掛頰. 고개를 들고 먼 산을 보며 홀로 뺨을 받칠 텐데요.
 野鳬翅重自不飛, 들오리는 날개가 무거워 스스로 안 난다지만
 黃鶴何事兩翼垂. 황학은 무슨 일로 두 날개가 축 처졌소?

泥中相從豈得久, 진흙탕 속의 상종이 어찌 오래가겠소?
今我不往行恐遲. 지금 내가 안 가면 아마 늦을 테지요.
江夏無雙應未去,⁷²⁾ 강하의 천하무쌍이 아직 가지 않았을 텐데
恨無文良相娛嬉,⁷³⁾ 그와 함께 시문으로 즐긴 적 없음이 안타깝소.⁷⁴⁾

먼저 原詩는 熙寧 5년(1072) 11월에 지은 것으로, 호주지주였던 손신로가 소식을 호주로 초청하여 호주로 떠나기 전에 손신로에게 시를 주었다. 시 전체적으로 호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호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자화시는 같은 해 11월 말에 지은 것이다. 소식은 조정을 떠나 호주에 있는 손신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손신로의 사위인 황정견을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다고 편지로 부쳤다.

소식은 原詩와 자화시를 통해 자신이 할 말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두 편의 시는 내용상 이어져 있으니, 이를 크게 요약하자면, “호주의 경치 상상(原詩) → 곧 가겠다고 대답(原詩) → 손신로를 위로(자화시) → 손신로를 빨리 만나고 싶어함(자화시) → 황정견을 만나고 싶어함(자화시)”의 순서로 내용이 전개된다. 자화시는 原詩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原詩에서 곧 가겠다고 이미 대답한 뒤에도 소식은 자화시를 통해 자신의 原詩를 이어나갔다. 이는 손신로와 함께 황정견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새로이 전하기 위해서이다. 소식은 이 때 처음으로 황정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그대의 시문을 손신로의 집에서 보고는 깜짝 놀라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소. 손신로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적으니, 제가 그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 그 후 제남에서 이공택의 집에

72) 《後漢書·黃香傳》: “黃香字文彊, 江夏安陸人也. …博學經典, 究精道術, 能文章, 京師號曰, 天下無雙, 江夏黃童(황향의 자는 문강이며, 강하 안륙 사람이다. …경전에 박학하고 도술에 정통함을 강구하며 문장에 능하니, 경사 사람들이 부르길, “천하에 둘도 없는, 강하의 황동이다”라고 하였다.)” 소식은 黃香의 姓氏를 빌려 황정견을 지칭하였다.

73) 소식은 여기에 “黃庭堅, 莘老婿, 能文(황정견은 손신로의 사위로, 글을 잘 지었다.)”이라는 自注를 붙였다.

74) 이상 두 수는 《정본완역 소동파시집1》, pp.704-709.

들러 그대의 시문을 보았는데 볼수록 그대의 위인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소.⁷⁵⁾

이는 1078년에 徐州에서 소식이 쓴 글로, 황정건의 <上蘇子瞻書(소자첨에게 올린다)>에 대한 답장이다. 실제 소식과 황정건의 만남은 元豐 元年(1078)이지만, 위의 시를 통해 소식의 자화시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소식은 자화시를 原詩의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말을 덧붙였다. 이것은 소식이 자화시를 창작하는 규칙 중 하나였다. 原詩로 인해 앞의 상황이 특정되고, 原詩와 자화시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인이 놀이를 추구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의 묶음으로 된 原詩와 자화시는 연작시에서 보이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차운시가 原詩를 특정하는 역할을 하며 原詩와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기에 상대방에게 ‘연결된 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효과적으로 기능한 것이었다.

자화시는 原詩의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사용된다. 原詩에서 말한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소식은 차운을 통해 내용을 이어받아 자화시를 지었다.

蘇軾 <送顧子敦奉使河朔⁷⁶⁾(하삭으로 부임하는 고자돈을 보내며)>

- 1 我友顧子敦, 나의 벗 고자돈은
- 2 軀膽兩俊偉. 체구와 담력 두 가지 모두 뛰어나다네.
- 3 便便十圍腹, 똥똥한 열 뼀 둘레의 배는
- 4 不但貯書史. 경서와 사서를 비축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 5 容君數百人, 그대와 같은 수백 명의 사람을 담아
- 6 一笑萬事已. 한 번 웃음에 만사가 끝나게 해 주었다네.
- 7 十年臥江海, 십 년 동안 강과 바다에 누워있었으니

75) <答黃魯直書>: “軾始見足下詩文於孫莘老之坐上, 聳然異之, 以爲非今世之人也. 莘老言, 此人, 人知之者尙少, 子可爲稱揚其名.……其後過李公擇於濟南, 則見足下之詩文, 愈多而得其爲人益詳.”(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卷五十二, 1996, pp.1531-1532.)

76) 河北路都轉運使를 말한다.

蘇軾 次韻詩의 특징

- | | |
|-----------|-------------------------|
| 8 了不見愠喜. | 성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
| 9 磨刀向豬羊, | 칼을 갈아 돼지와 양을 향하게 하고 |
| 10 醺酒會鄰里. | 술을 걸러 마을 사람들을 모았네. |
| 11 歸來如一夢, | 한 바탕의 꿈을 꾸 듯 돌아왔는데 |
| 12 豐頰愈茂美. | 볼이 통통하니 더욱 보기 좋구나. |
| 13 平生批勅手, | 평생에 비칙을 담당하여 |
| 14 濃墨寫黃紙. | 짙은 먹으로 황금빛 종이에 글을 썼는데 |
| 15 會當勒燕然, | 장차 연연산에 공을 새기러 |
| 16 廊廟登劍履. | 조정에서 올라 검을 차고 신을 신은 채 |
| 17 翻然向河朔, | 급하게 하삭으로 가면서도 |
| 18 坐念東郡水. | 다만 동군의 물난리를 염려한다네. |
| 19 河來屹不去, | 황하에서 와서는 확고히 떠나지 않나니 |
| 20 如尊乃勇耳. | 왕존 같은 사람이 용자일 따름이라네. |

蘇軾 <諸公餞子敦, 軾以病不往, 復次前韻(여러 공들이 자돈을 전별해주는 데, 나는 병으로 인해 가지 못하므로, 앞의 운에 다시 차운하다)>

- | | |
|-----------|--------------------------------|
| 1 君爲江南英, | 그대는 강남의 뛰어난 인물이 되었는데 |
| 2 面作河朔偉. | 얼굴은 하삭의 장대함을 띠었다네. |
| 3 人間一好漢, | 세상에 유일한 용감한 사내가 있으니 |
| 4 誰似張長史. | 그 누가 형주장사인 장간지와 같을까. |
| 5 上書苦留君, | 글을 올려 진실로 그대를 머무르게 하고자 했으나 |
| 6 言拙輒報已. | 말재주가 웅졸하니 즉시 안 된다고 알려주고는 끝났다네. |
| 7 置之勿復道, | 그를 두는지의 문제는 다시 말하지 말 것이니 |
| 8 出處俱可喜. | 떠나고 머무르는 것 모두 기뻐할만하기 때문이네. |
| 9 攀輿共六尺, | 육척의 수레를 잡고서 |
| 10 食肉飛萬里. | 고기를 먹으며 만 리를 날아간다네. |
| 11 誰言遠近殊, | 누가 조정에서 멀고 가까움이 다르다고 말했는가 |
| 12 等是朝廷美. | 조정의 찬미는 똑같은데. |
| 13 遙知送別處, | 멀리서도 송별할 곳 아나니 |
| 14 醉墨爭淋紙. | 취한 먹으로 다투어 종이에 휘갈겼다네. |
| 15 我以病杜門, | 나는 병 때문에 문을 닫고서 |
| 16 商頌空振履. | 상나라의 노래를 부르며 공연히 신발을 끌지만 |
| 17 後會知何日, | 후일의 모임이 언제인지 안다면 |

- 18 一歡如覆水. 한 번 기뻐함이 물을 엮지른 것과 같을 것이네.
 19 善保千金軀, 천금 같은 몸을 잘 지켜야 하나니
 20 前言戲之耳. 앞의 말들은 농담일 따름이라네.

元祐 2년(1087) 4월, 변경에 있을 때였다. 친한 벗인 고자돈이 변경인 하삭으로 부임하게 되어 송별시를 써 주었다. 그런데 고자돈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므로, 소식은 그의 배 둘레가 열 뺨이나 되며 볼이 통통하다고 희롱하였다. 고자돈은 조정에서 평생을 근무하다가 변경으로 가게 된 상황이었다. 이 때 마침 하삭에는 물난리가 났었는데 고자돈은 그것을 걱정하며 부임하여 잘 처리하고자 했다. 소식은 그의 이러한 모습에 감탄하며 송별시를 지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러 사람과 송별해주기로 하였는데, 소식이 몸이 아파 가지 못하게 되자 자화시를 쓴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전송해주기 위해 모여 송별시를 써 주었다. 그러나 소식은 제15구에서 몸이 아파 못 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다음번에 기쁘게 만나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제19-20구에서는 “앞의 말이 농담이었으니” 귀한 몸을 잘 보살피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原詩와 자화시는 “고자돈 송별”이라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편의 시는 “고자돈의 외적인 모습(原詩) → 고자돈의 결단에 대한 칭송(原詩) → 고자돈의 용감함을 칭송(原詩와 자화시를 연결) → 송별의 모습 상상(자화시) → 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자화시)”으로 이어진다. 이 중에서도 “고자돈의 용감함을 칭송”하는 부분은 原詩와 자화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이를 통해 “못 가게 되었다”는 새로운 내용을 시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꺼낸 것이다. 또한 자화시의 마지막 2구에서 原詩에서 했던 고자돈에 대한 희롱을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原詩의 내용을 가져왔다. 소식은 특정한 사건을 가진 운각을 다시 사용하며 자화시와 연결시킨 것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식은 적극적인 놀이를 하게 되었고, 결국 두 편의 시는 하나의 흐름을 가진 연작시의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자화시 중에는 原詩와 자화시가 이어지며 하나의 주제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면서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세 편

으로 이루어진 시가 그렇다.

蘇軾 <十一月二十六日, 松風亭下, 梅花盛開(11월 26일에 송풍정에서 매화가 만발하다)>

- | | |
|---------------------------|--------------------------------|
| 1 春風嶺上淮南村, | 춘풍령 위의 회남촌에는 |
| 2 昔年梅花曾斷魂. ⁷⁷⁾ | 예전의 매화가 녀을 끊어놓았었는데 |
| 3 豈知流落復相見, | 떠돌아다니다 매화를 다시 만날 줄 어찌 알았겠는가 |
| 4 蠻風蜚雨愁黃昏. | 비바람 부는 남방에 황혼 되니 근심하네. |
| 5 長條半落荔枝浦, | 긴 가지는 여지 개펄에 반쯤 달고 |
| 6 臥樹獨秀桃榔園. | 비스듬히 누운 나무는 광랑 동산에 홀로 빼어나다네. |
| 7 豈惟幽光留夜色, | 어찌 다만 그윽한 빛이 밤을 붙잡아 두었을 뿐이겠는가 |
| 8 直恐冷艷排冬溫. | 다만 차가운 자태가 따뜻한 겨울을 밀어낼까 걱정된다네. |
| 9 松風亭下荊棘裏, | 송풍정 아래의 가시나무에 |
| 10 兩株玉蕊明朝暎. | 두 그루 흰 꽃이 아침 해에 빛나네. |
| 11 海南仙雲嬌墮砌, | 남쪽 바다 신선의 구름이 교태롭게 섬돌에 떨어지고 |
| 12 月下縞衣來扣門. | 달빛 아래 흰 옷 입은 선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네. |
| 13 酒醒夢覺起繞樹, | 술도 깨고 꿈도 깬 채 나무를 맴도는네 |
| 14 妙意有在終無言. | 심오한 뜻 있어도 끝내 말이 없구나. |
| 15 先生獨飲勿歎息, | 선생은 홀로 마신다고 탄식하지 말지니 |
| 16 幸有落月窺清樽. | 다행히 지는 달이 맑은 술잔을 엿보고 있다네. |

蘇軾 <再用前韻(다시 앞의 운을 사용하다)>

- | | |
|------------|--------------------------------|
| 1 羅浮山下梅花村, | 나부산 아래의 매화촌 |
| 2 玉雪爲骨冰爲魂. | 흰 눈은 뼈가 되고 얼음은 혼이 된다네. |
| 3 紛紛初疑月掛樹, | 분분한 것이 처음에는 나무에 걸린 달이라고 의심했는데 |
| 4 耿耿獨與參橫昏. | 밝은 것이 홀로 새벽에 기울어있는 삼성과 함께 있다네. |
| 5 先生素居江海上, | 선생은 강과 바다에 외로이 사나니 |

77) [公自註]: 내가 예전에 황주에 갔을 때, 춘풍령에서 매화를 보고서 두 편의 절구시를 지었다. 다음 해 정월에 기정으로 가서 읍은 시에서 “작년 오늘 관산의 길에서, 매화에 가랑비 내리니 바로 녀을 끊는구나.”라 하였다.(“予昔赴黃州, 春風嶺上見梅花, 有兩絕句. 明年正月, 往岐亭道上, 賦詩云‘去年今日關山路, 細雨梅花正斷魂’”)

- 6 悄如病鶴棲荒園. 병든 학처럼 근심하며 황폐한 동산에 깃들어 산다네.
 7 天香國艷肯相顧, 천하의 빼어난 향기와 자태는 기꺼이 돌아볼 만하니
 8 知我酒熟詩清溫. 이는 것은 내가 술에 취해 시가 맑고 따뜻하게 된 것이라네.
 9 蓬萊宮中花鳥使, 봉래궁의 화조사인
 10 綠衣倒挂扶桑暎. 푸른 옷 입은 부상의 아침의 도궐자는
 11 抱叢窺我方醉臥, 수풀더미에서 내가 막 취해 누운 것을 보고는
 12 故遣啄木先敲門. 딱따구리로 하여금 먼저 문을 두드리게 한다네.
 13 麻姑過君急掃灑, 마고선녀가 그대에게 들러 급히 먼지 쓸고 물 뿌리
 14 鳥能歌舞花能言. 새는 능히 노래하고 춤추며 꽃은 능히 말을 한다네.
 15 酒醒人散山寂寂, 술 깨어 사람들 흩어지니 산은 적막한데
 16 惟有落蕊黏空樽. 다만 떨어진 꽃만 빈 술잔에 붙어 있구나.

蘇軾 <花落復次前韻(꽃이 떨어지니 앞의 운에 차운하다)>

- 1 玉妃謫墮烟雨村, 태진비는 가랑비 마을로 유배당했는데
 2 先生作詩與招魂. 나는 시 지어 혼을 부른다네.
 3 人間草木非我對, 세상의 초목들은 나의 짝이 아니라며
 4 奔月偶桂成幽昏. 달 속으로 달려가 계수나무와 짝 지어 혼인하였구나.
 5 闌香入戶尋短夢, 은은한 향기 사립문으로 들어와 잠깐의 꿈을 찾는데
 6 靑子綴枝留小園. 푸른 열매만 가지에 이어져 작은 동산에 남았네.
 7 披衣連夜喚客飲, 옷 걸치고 밤새도록 객을 불러 술을 마시는데
 8 雪膚滿地聊相溫. 흰 살갗이 바닥 가득하니 잠시나마 따뜻하구나.
 9 松明照坐愁不睡, 관솔로 앉은 자리 비추나 근심으로 잠들 수 없고
 10 井華入腹清而嗽. 새벽녘에 기른 물은 뱃속으로 들어가 맑고도 따뜻하구나.
 11 先生來年六十化, 선생은 내년에 육십 세가 되나니
 12 道眼已入不二門. 도의 눈은 이미 불이문을 들어갔다네.
 13 多情好事餘習氣, 정이 많아 일을 좋아하니 번뇌가 넘쳐
 14 惜花未忍都無言. 지는 꽃을 애석해함을 참을 수 없는 나머지 말이 없다네.
 15 留連一物吾過矣, 한낱 미물에 미련을 둔 것은 내 잘못이니
 16 笑領百罰空疊樽. 웃으며 빈 술잔에 벌주를 받는다네.

먼저 첫 번째 시는 紹聖 元年(1094) 11월 26일에 지은 작품이다. 이때는 해주로 온 지 약 두 달이 되었을 무렵으로, 유배당한 슬픔과 외로움이 드

러난다. 소식은 첫 번째 유배지인 黃州에서 元豐 4년(1081) 정월에 지었던 詩78)를 생각하며 예전의 매화를 떠올리는데, 현재의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시를 짓게 된다. 지금의 매화는 활짝 피어 향기가 진하며 고운 자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태는 신선 또는 선녀와도 같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런 매화를 보며 근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시는 11월 26일 이후에 지은 詩인데, 앞의 詩처럼 매화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슬퍼한다. 그런데 앞의 詩와 다르게 새로운 사건이 나타난다. 먼저 제9구에서 “화조사”가 등장하는데, “화조사”는 唐 玄宗이 미녀를 뽑아 입궁시키는 일을 담당했던 관직이다. 즉, 시와 연결하면 “화조사”는 아름다운 매화를 데려가는 세월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화조사”인 도궐자 새가 딱따구리를 시켜 매화가 다 지기 전에 어서 매화를 감상하며 즐기라고 재촉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구에서는 “떨어진 꽃”이 등장한다. 이는 모두 매화가 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다.

마지막 시는 12월에 지은 시로, 매화는 이미 떨어진 상황이다. 소식은 제2구에서 매화의 혼을 부르며 매화의 넋을 기리면서, 전설 속의 인물인 姮娥에 비유하여 달 속으로 가서 계수나무와 짝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떨어진 꽃잎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고는 순간 매화를 찾아보지만, 이미 매실(靑子)이 가지마다 달려있었다. 이러한 매화의 모습을 보며 소식은 너무나 애석해하고 있다. 이렇게 세 편의 시는 각각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78) <正月二十日往岐亭，郡人潘、古、郭三人送余於女王城東禪莊院(정월 20일에 기정으로 갔는데 군의 사람인 潘彥明, 古耕道, 郭興宗 세 사람이 나를 여왕성의 동쪽에 있는 선장원에 보내주다)>

十日春寒不出門，	십일 동안 봄이 춥다고 문을 나가지 않았으니
不知江柳已搖村。	강의 버드나무가 이미 마을을 흔들었는지도 몰랐다네.
稍聞決決流冰谷，	얼음 계곡에서 쿵쿵 흐르는 물소리는 점점 들려오고
盡放青青沒燒痕。	파릇파릇 풀들이 모조리 퍼져서 불사른 흔적을 없앴다네.
數畝荒園留我住，	수 이랑의 거친 언덕에는 나만 머물러 살고 있으니
半瓶濁酒待君溫。	반쯤 남은 탁주를 가지고 그대 기다려 따뜻하게 하네.
去年今日關山路，	작년 오늘에는 관산의 길에 있었는데
細雨梅花正斷魂。	가랑비가 매화에 내리니 정말 넋을 끊는 듯하구나.

(《蘇軾詩集》 卷二十一, pp.1077-1078.)

그런데 이 시들을 이어보면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十一月二十六日, 松風亭下, 梅花盛開〉	〈再用前韻〉	〈花落復次前韻〉
중심 소재	매화	매화	매화
창작 시기	11월 26일	11월 26일 이후	12월
주요 내용	매화가 만개한 모습	꽃잎이 조금 떨어진 모습	꽃잎이 거의 다 떨어진 모습
주된 정서	근심(愁)	근심(悄)	근심(愁)
소식 (先生)의 모습	달 아래 홀로 술을 마시고 있음	병든 학처럼 황폐한 동산에 살고 있음	육십 세가 되어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함
매화의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윽한 빛깔(幽光) · 차가운 자태(冷艷) · 신선 같은 구름(仙雲) · 달빛 아래 흰 옷 입은 선녀(月下縞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에 걸린 달(月挂樹) · 천하의 빼어난 향기와 자태(天香國艷) · 마고선녀(麻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으로 유배당한 태진비(玉妃謫墮) · 달로 달려가 계수나무와 짝함(奔月偶桂) · 푸른 열매(靑子)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起(시상의 발단: 매화가 활짝 핀 고고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承(시상의 연결: 매화가 활짝 핀 모습) · 轉(시상의 전환: 떨어진 매화 꽃잎의 흔적에 근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結(시상의 마무리: 꽃이 진 것을 애석해함)

위 세 편의 시는 “매화”라는 하나의 제목을 가진 일반적인 연작시로 보기에 충분하다. 매화가 시의 중심 소재가 되고, 매화가 만개한 모습부터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 거의 다 떨어진 모습의 각각 다른 3개의 장면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 매화는 모두 신선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 편의 시에서 모두 소식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先生”이 시 속에 직접 등장하여, 자신을 객관화시켜 마치 다른 사람과 교유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시적 주체의 감정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난다. 위의 시들은 명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작시의 기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시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즉, 개별적으로 완결성을 가진 詩가 세 편이 모였을 때에도 기승전결의 구조로 구성된 한편의 장편시가 되는 것이다. 차운을 통해 原詩와의 동질성이 생기고, 소식은 여기에 내용과 표현상에서도 原詩와의 연계를 추구하면서 자화시를 지었다. 이렇게 시인의 의도적인 시상 배치는 시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차운의 놀이적 측면이 드러난다. 적극적으로 운가를 맞추면서 내용면에서도 공통점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규칙이 되어 시인의 시 창작을 구속한다. 소식은 자발적으로 정한 규칙을 따르고, 통제되는 상황 아래에서 활동하는 것이다.⁷⁹⁾ 따라서 자화시는 原詩의 내용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며 연작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세 편의 시를 연작시로 놓고 읽는다면 더욱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2) 연속 창작이 아닌 경우

한편 자화시에는 原詩와 자화시가 연속적인 창작이 아닌 경우가 있다. 즉, 原詩와 자화시가 창작된 시기가 다른 것이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인이 가진 정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原詩와 자화시의 정서가 다르다. 본고는 이것 역시 연작시로 파악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연작시는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짓거나, 그 정서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식의 原詩와 자화시는 시의 소재를 공유하고,

79) 로제 카이와 지음, 이상률 옮김, 《놀이와 인간》, 서울: 문예출판사, 1994, p.60 참조.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原詩와 자화시가 짝을 이루어 같은 首의 原詩와 자화시로 구성되고, 또한 상황이 서로 대비되어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⁸⁰⁾ 이에 따라 본고에서 설정한 자화시 31組 가운데 14組를 시간적으로 연속 창작이 아닌 경우로 분류하였고, 본고는 그것들이 연작시로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소식은 평생에 관직생활과 3차례의 께적으로 인하여 많은 곳을 이동하였으므로, 같은 곳에 다시 가게 된 일이 있었다. 자화시는 그 때의 감정을 다른 운자를 사용하여 짓지 않고, 과거의 시에 차운을 하여 지은 것이다. 소식은 原詩의 운각을 통해 原詩에 대한 기억을 끌어오고 자화시에 같은 흐름을 사용하여 현재의 감정을 나타냈다. 原詩와 자화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내용의 순서를 맞추어 두 편의 시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시를 지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또한 놀이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식은 이렇게 차운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동질감을 극대화하여 자화시를 창작한 것이었다.

蘇軾 <留別零泉(우천을 떠나며)>

舉酒屬零泉,	술 한 잔을 들어서 우천에게 권하나니
白髮日夜新.	백발이 밤낮으로 새로이 나는구나.
何時泉中天,	언제나 샘물 속의 맑은 하늘이
復照泉上人.	샘물에 비친 이 사람을 다시금 비추려나?
二年飲泉水,	두 해 동안 이 샘물을 마셔 왔으니
魚鳥亦相親.	이곳의 물고기와 새도 서로 친한데
還將弄泉手,	이제는 또 샘물로 장난치던 손으로

80) 이에 대하여 강민호는 <杜甫 類似連作詩 고찰>에서 각각의 제목을 가진 시를 묶어 유사연작시로 파악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의 고전시가 대우를 추구한 것처럼, 두보의 대우 추구 심리도 유사연작시에 확장되어 발현되고 있다고 하였다. 유사연작시가 연작시인 이유를 ①제목에서 같은 부분을 공유하거나 시간적으로 연속되거나 상황이 서로 대비되어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②유사연작시의 詩體 형식이 거의 일치하며, ③전체적으로 나름의 연결성과 장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으로 들었다.(자세한 내용은 강민호, <杜甫 類似連作詩 고찰>,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85, 2015 참조.)

遮日向西秦. 해를 가리며 서쪽에 있는 진 땅으로 가겠구나.⁸¹⁾

蘇軾 <再過常山和昔年留別詩>(다시 상산을 지나며 옛날의 留別詩에 화답하다)>

僵僂山前叟,	산 앞의 꼬부랑 늙은이
迎我如迎新.	나를 맞아주는 것이 마치 새 사람을 맞아주는 듯하네.
那知夢幻軀,	어찌 알겠는가 꿈과 환상 같은 몸이라
念念非昔人.	찰나에도 옛적의 사람이 아닌 것을.
江湖久放浪,	강호에서 오랫동안 방랑하였으니
朝市誰相親.	조정에서 누구와 친하겠는가.
卻尋泉源去,	차라리 샘의 근원을 찾으러 떠나서는
桃花應避秦.	도화원에서 웅당 진대의 난을 피하겠네.

熙寧 9년(1076), 소식은 知河中府에 임명되어 더 이상 밀주 우천에 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아쉬워하며 <留別零泉>를 지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탄식하며 앞으로 맡게 될 관직 생활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再過常山和昔年留別詩>는 元豐 8년(1085) 10월에 密州에서 지었다. 이 시기는 黃州에서의 고된 유배생활을 마치고, 登州知州에 임명한다는 조서를 받고 등주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삶은 꿈은 꿈 끝 듯 허망하고, 조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않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소식의 심경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도화원”으로 피해, 앞으로는 세속의 관직생활을 떠나고자 한다. 이는 原詩에서 다음 관직을 담당할 일을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자화시에서는 인생여몽의 의식이 매우 짙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편의 시의 정서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을 가지고 시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작시의 특성이 보인다. 이를 알기 위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본다.

81) 《정본완역 소동파시집2》, 519쪽.

구	〈留別雋泉〉	〈再過常山和昔年留別詩〉	공통점
1-2	우천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과 우천이 자신을 마주하는 태도	우천과 마주하는 자신의 모습
3-4	회재불우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	인생무상의 삶에 대한 탄식	탄식 표출
5-6	우천에서의 생활	우천을 떠난 이후의 모습	우천에서의 생활을 기준으로 한 태도의 변화
7-8	다가올 관직 생활에 대한 계획	장차 세속을 떠나 살겠다는 의지 표현	미래에 대한 태도

위의 표로 정리하여 보면, 原詩와 자화시는 매우 긴밀하게 짜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편의 시는 같은 구조로 전개되고 있었다. 시를 네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내용의 흐름이 같은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이다. 소식은 자화시를 지을 때, 原詩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原詩와 자화시의 각각 다른 정서가 잘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관련성을 부여함으로써 유희를 추구함과 동시에 연작시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다.

고체시로 지은 자화시에서도 연작시의 기법을 사용한 것이 보인다. 소식은 짧은 율시뿐만 아니라 고체시에서도 原詩와 자화시를 연결시켰다.

蘇軾 <鬱孤臺(울고대)>

- 1 八境見圖畫, 팔경을 그림에서 보았으니
- 2 鬱孤如舊遊. 울고대는 예전에 노닐던 곳 같고
- 3 山爲翠浪勇, 산은 비취빛 물결 되어 솟아오르고
- 4 水作玉虹流. 물은 옥 무지개 되어 흐르네.
- 5 日麗崆峒曉, 해는 새벽의 공동산을 곱게 꾸미고
- 6 風酣章貢秋. 바람은 가을의 장공수를 상쾌하게 하며
- 7 丹青未變葉, 단청은 아직 잎을 변하게 하지 않았는데,

蘇軾 次韻詩의 특징

- | | |
|-----------|---------------------------|
| 8 鱗甲欲生洲. | 물고기비늘 같은 물결은 물가를 생겨나게 하네. |
| 9 嵐氣昏城樹, | 안개에 성의 나무는 흐려지고 |
| 10 灘聲入市樓. | 여울 소리는 저자의 주루까지 들어가며 |
| 11 煙雲侵嶺路, | 연기 같은 구름은 고갯길을 엄습하고 |
| 12 草木半炎州. | 초목은 후덥지근한 땅의 반을 차지한다네. |
| 13 故國千峰外, | 고향은 일천 봉우리 너머로 |
| 14 高臺十日留. | 높은 누대에서 십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으니 |
| 15 他年三宿處, | 훗날에 세 밤을 머물게 된다면 |
| 16 准擬系歸舟. | 돌아가는 배 묶어 놓기를 바라네. |

蘇軾 <鬱孤臺(再過虔州, 和前韻⁸²)> 울고대(건주를 다시 지나며, 전의 운에 화답한다)>

- | | |
|-----------|-----------------------------|
| 1 吾生如寄耳, | 내 삶은 마치 붙어사는 것 같아서 |
| 2 嶺海亦閑遊. | 영남의 바다 또한 한가롭게 노닌다네. |
| 3 贛石三百里, | 감석은 삼백 리까지 있고 |
| 4 寒江尺五流. | 추운 강은 일척 오촌을 흐른다네. |
| 5 楚山微有霰, | 초산에는 조금이나마 싸라기눈 내리는데 |
| 6 越瘴久無秋. | 월 지방에는 가을이 없어 오랫동안 장기가 돌았지. |
| 7 望斷橫雲嶠, | 횡운교를 끝까지 바라보니 |
| 8 魂飛咤雪洲. | 눈 덮인 땅이 신기하여 혼이 날아갈 정도라네. |
| 9 曉鐘時出寺, | 새벽 종소리 때때로 절에서 나고 |
| 10 暮鼓各鳴樓. | 저녁 북소리 각각 누각마다 울리는구나. |
| 11 歸路迷千嶂, | 돌아가는 길은 일천 산봉우리로 길을 잃었는데 |
| 12 勞生閱百州. | 힘겨운 삶은 일백 고을을 지났다네. |
| 13 不隨猿鶴化, | 원숭이와 학을 따라 변하지 않고 |
| 14 甘作賈胡留. | 기꺼이 오랑캐 장사꾼이 되어 머무르리. |
| 15 祇有貂裘在, | 다만 (술과 바꿀) 담비 가죽옷만 남아있다면 |
| 16 猶堪買釣舟. | 아직은 낚싯배를 사서 견디리라. |

먼저 첫 번째 <鬱孤臺> 작품은 紹聖 원년(1094) 8월에 惠州로 폄직 가는 도중에 虔州의 울고대에서 지은 것이다. 소식은 이전에 군수였던 공중환이

82) 소식의 自註이다.

그렸던 八境圖를 보았었다. 八境 중 하나가 바로 울고대였는데, 소식은 그림에서 울고대를 본 적이 있었으므로 실제 울고대를 보고 나서도 예전에 노닐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제3구부터 제8구까지는 각종 비유를 사용하여 울고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울고대를 지나 해주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풍경이 걱정스럽게 다가온다. 그런 곳에 유배로 인해 현재 십일이나 머무르게 되었으므로, 그는 혹시 훗날에 이곳에 오게 된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삼일 정도만 머무르면서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며 만끽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된다.

자화시인 두 번째 <鬱孤臺>작품은 建中靖國 원년(1101) 정월에 지은 것이다. 소식은 1097년 7월부터 세 번째 폼적을 당하여 儋州에 있었다. 그런데 소식은 儋州 유배가 풀려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虔州를 지나며 과거 7년 전에 지었던 시에 차운을 한다. 그 동안의 고생으로 초탈하게 된 소식은 첫 번째 구에서부터 “내 삶은 마치 붙어 사는 것 같아서”라며 살기 어려운 지역인 영남의 바다도 “한가롭게 노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제3구부터는 영남지역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제9구에서는 현재 돌아가는 길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동안 고생하며 지내온 삶을 되돌아보고 초탈한 정신을 지속하고자 한다. 모든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영남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의 구조(구)	<鬱孤臺>	<鬱孤臺(再過虔州, 和前韻)>	공통점
起(1-2)	실경으로 접한 울고대	유배 후의 감회 표출	작시의 계기 서술
承(3-8)	울고대의 풍경 묘사	실제 겪은 영남지역의 환경	울고대(영남)의 모습
轉(9-12)	실제 영남지역의 환경을 겪기 전의 불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의 고달픔	현 시점의 감정
結(13-16)	즐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방문하고 싶은 장소	견딜만한 장소	훗날 울고대에 대한 바람

각각 16句로 구성된 시는 위에서 나눈 句로 기승전결을 구분할 수 있다. 소식은 原詩와의 흐름을 맞추어 공통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전개하였다. 두 편의 다른 시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시를 창작한 것이다. 율시처럼 2구씩 끊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도 原詩와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이는 소식이 자화시 창작을 놀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단락을 나누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던 것이다. 소식은 이 규칙을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었다.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감회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는 原詩와 자화시의 관련성을 드러내기 위해 연작시의 기법을 사용하고, 과거의 율고대에서 느끼게 된 감정을 운각과 내용의 흐름을 통해 현재와 연결시켜 유기적으로 시를 구성한 것이었다.

그런데 시의 흐름상 비슷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 외에도 原詩와 자화시가 특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原詩와 자화시에는 관련된 지점이 보이는 것이다.

蘇軾 <贈淸涼寺和長老(청량사에 있는 화장로에게 드리다)>

代北初辭沒馬塵, 대북쪽 定州에서 막 작별하고 말 먼지에 빠졌는데
江南來見臥雲人. 강남으로 오니 구름에 누운 이를 보았지요.
問禪不契前三語, 참선을 묻지만 “前三三後三三”을 깨닫지 못하고
施佛空留丈六身. 부처에게 시주하느라 겨우 한 길 육척의 불상만 남겼네요.⁸³⁾
老去山林徒夢想, 늙어가매 산림에서 다만 헛된 생각을 하는데
雨餘鐘鼓更清新. 비 내린 뒤 종소리와 북소리는 더욱 맑고 새로워요.
會須一洗黃茅瘴, 모름지기 황모장을 한 번 씻어내야 하니
未用深藏白氎巾. 두건 속에 깊이 감추어둘 필요 없겠네요.

蘇軾 <次舊韻贈淸涼長老(옛날에 썼던 운에 차운하여 청량사의 장로에게 드리다)>

過淮入洛地多塵, 회수를 지나 낙양으로 들어가니 땅에 먼지가 많아

83) 소식의 두 번째 아내 王閏之가 죽은 지 1년 후에 그의 아들들이 아미타 불상을 그린 그림을 시주한 것을 말한다.

舉扇西風欲汚人. 부채 들어 막아도 서풍은 사람을 더럽히려 하는데
 但怪雲山不改色, 다만 괴이하게도 구름 덮인 산은 낮빛을 바꾸지 않고
 豈知江月解分身. 강 위의 달이 자기 몸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어찌 알까요.
 安心有道年顏好, 마음 편히 하고 도가 있으니 얼굴이 좋고
 遇物無情句法新. 사물을 마주쳐도 정이 없으니 구법이 참신하네요.
 送我長蘆舟一葉, 장로사에서 일엽편주를 탄 나를 전송해주고
 笑看雪浪滿衣巾. 눈 같은 물결이 옷과 두건에 가득한 것을 웃으며 보겠군요.

먼저 原詩는 紹聖 元年(1094)에 지은 것으로, 소식이 定州의 태수로 있다가 두 번째 궐적을 받고는 惠州로 가는 도중 금릉에서 청량사의 和長老를 만나 그에게 쓴 시이다. 소식은 청량사에 도착해서 구름에 누운 신선과 같은 화장로를 만났다. 자신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헛된 생각을 하는데 청량사의 풍경은 정말 이름처럼 清涼했다. 이를 통해 풍경을 묘사함과 동시에 자신과 대비되는 화장로의 불법에 대한 경지를 드러냈다. 한편, 차운시는 建中靖國 元年(1101)에 금릉에서 지은 것으로, 儋州에서의 세 번째 궐적생활을 마치고 예전의 안식처인 宜興이 있는 常州로 가게 된 상황에서 和長老에게 쓴 것이다. 금릉으로 들어가니 바람에 먼지가 날려 사람을 더럽히려 하지만, 구름 덮인 산은 먼지가 불어와도 그대로 있고 강이 맑아 달은 강에 비친 모습과 똑같다. 이를 통해 소식이 금릉으로 들어가 먼지를 덮어쓰는 상황과 반대로 청량사의 풍경과 화장로의 모습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리고 고난 끝에 상주로 가게 되었으니, 잔잔하고 고요한 소식의 마음 상태와 초탈한 경지에 이른 그의 모습이 보인다.

原詩와 자화시는 청량사의 풍경과 화장로에 대한 칭송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소식의 처지에는 변화가 있지만 청량사와 화장로는 변함없기 때문이다. 소식은 자신의 상황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청량사와 화장로를 기준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각각 다른 정서를 지닌 시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같은 운자를 사용하면서 공통적인 기준을 부여한 것이다. 이 기준을 통해 原詩와 자화시의 감정이 두드러진다. 소식은 原詩와의 동질감을 극대화하면서 原詩와 자화시를 연결시킨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상황 또는 사건을 가진 原詩에 차운함으로써 原詩와 자화시의 연결을 시도한

것이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자화시는 창화가 모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독특한 차운시임을 알 수 있었다. 소식은 이 자화시를 창작하면서 原詩와 유기적 관련을 형성하기 위해 차운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原詩와 자화시 사이에 동질감을 부여하였다. 原詩의 운각에는 특정한 상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창작된 原詩와 자화시를 결합하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가진 시가 되거나 서로 연결된 모습이 보였다. 또한 연속적인 창작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순서대로 내용을 구성하여 서로 연결된 詩임을 드러내거나 하나의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시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소식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놀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운시라는 형식 안에서 또 다른 규칙을 설정하여 유희성을 더욱 표출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타인과의 창화가 아니더라도, 차운시의 놀이적 특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개별 제목을 가진 原詩와 자화시를 연작시로 파악하였다. 소식은 자신의 시에 차운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차운시를 창작하여 본인의 유희의 추구하고 함께 독자로 하여금 시를 잘 이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제2절 追和詩

追和는 後人이 前人의 詩에 화답한 것을 말한다. 소식은 일찍이 한유와 이백, 위응물, 도연명의 시에 차운한 적이 있고, 같은 시대 사람이지만 왕안석, 매요신 등이 이미 죽고 난 후에 그들의 시에 차운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 이백과 한유, 위응물의 시에는 각각 1수씩만 차운한 반면, 도연명의 시에는 총 124수⁸⁴⁾의 차운시를 지었으니 그것을 和陶詩라고 한다.⁸⁵⁾ 화도

84) 清 王文誥, 《蘇文忠公詩編註集成總案》 卷四十三, 巴蜀書社, 1985, p.5.(金甫暉, 앞의 논문, p.19에서 재인용)

85) 일부 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복해서 화답시를 썼다.(안희진, <소식의 ‘화도시’를

시는 그 수량뿐만 아니라 소식이 해주와 담주로 펴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창작⁸⁶⁾했다는 점에서 일반 차운시와 다르다.

소식 이전의 시인들은 古人의 시에 화운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古人의 詩를 보며 그 詩體를 모방하여 시를 짓거나 그것에 대한 감흥으로 시를 지었다. 이는 古人의 시를 학습하기 위해서 혹은 古人의 감정에 공감하기 때문이었다. 소식은 여기에 차운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상대방의 존재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창화의 영역으로 古人의 시를 가져온 것이다. 原詩의 작자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화답시지만 소식에게는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식이 原詩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추화시를 짓는 것은 아니었다. 시를 지을 것인지 짓지 않을 것인지는 시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⁸⁷⁾ 소식이 추화시를 짓게 된 배경에는 그에게 ‘특별한 原詩’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것은 소식에게 특별한 창작 동기를 불러일으켰다. 그 ‘특별한 原詩’는 바로 소식이 古人과 같은 상황에서 창작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차운이라는 유희적 요소의 개입으로 즐거운 상황은 더욱 즐겁게 만들고, 운각에 몰입하여 슬픈 감정에 집중된 초점을 풀어놓아 슬픔을 완화시킬 수 있

논함>, 한국중국문화학회, 《中國學論叢》, vol.13, 2002, p.10.) 예를 들어 <和陶連雨獨飲二首>는 같은 운으로 두 수를 지은 작품이다.

86) 첫 작품인 <和陶飲酒詩二十首>를 1092년에 짓고, 그 후 1095년부터 1100년까지 나머지 시를 지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실제 화도시를 창작한 기간은 약 6년으로, 그 기간이 비교적 짧다.

87)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인은 갑자기 시를 쓰고 싶은 충동에 빠지는 때가 종종 있다. 어떤 내적인 욕구가 스스로 시 쓰기를 유혹하는 경우이다. 그것은 배가 고플 때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충동에 빠지는 것과 비유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먹고 싶은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필연적인 것이겠으나 후자의 경우는 돌발적이다. 그러나 돌발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간단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만은 물론 없다. 비록 배고프지 않은 상황에서 과일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충동은 신체의 미묘한 메커니즘-예컨대 영양소의 균형적 공급과 같은 것-이 입맛을 자극한 결과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를 쓰고 싶은 충동 역시 본질적으로는 내적인 어떤 원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정신의 한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오세영 지음, 《시 쓰기의 발견》, 서울: 서정시학, 2013, pp.96-97.)

다. 차운의 놀이적 특성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정서 때문이다. 또한 ‘같은 상황을 겪은 누군가’와 운각을 공유하며 동질감이 생기면서 그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운각을 통해 原詩의 작자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식은 자신과 같은 상황을 가진 原詩를 만났을 때 차운을 적용하였다.

소식의 추화시를 전체 시기 안에서 보았을 때, 시 창작의 목적은 크게 화도시와 그 이전시기의 시⁸⁸⁾로 구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두 경우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1) 화도시 이전의 추화시

화도시 이전의 추화시는 原詩의 작자가 古人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原詩 작자가 소식과 같은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추화시를 짓게 된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시간적 창작 순서에 따라 추화시를 살펴본다. 먼저 첫 번째로 지은 추화시의 제목을 본다.

蘇軾 <二月十六日, 與張、李二君游南溪, 醉后, 相與解衣濯足, 因詠韓公. 山石之篇, 慨然知其所以樂而忘其有數百年之外也. 次其韻(2월 16일 장군·이군과 함께 남계에서 놀 때 술에 취하여 서로 옷을 벗고 발을 씻다가 한유의 <산석> 시를 읊었는데 감개무량하게도 그가 즐거웠던 까닭을 알고는 그가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임을 잊고 그의 시에 차운한다.)>⁸⁹⁾

소식은 그의 벗들과 함께 놀다가 <山石> 시를 읊고 한유가 즐거웠던 까닭을 깨닫게 되어 차운시를 지었다. 한유의 상황이 자신의 상황과 일치하

88) 이에 대하여 金甫暻은 그의 논문 <蘇軾“和陶詩”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pp.50-51.)에서 한유, 이백, 위응물, 도연명의 <飲酒> 시에 차운한 시를 우연적이며 흥이 돌아 짓게 된 시라고 하였고, 內山精也는 그의 책 《傳媒與眞相-蘇軾及周圍士大夫的文學-蘇軾及周圍士大夫的文學》(上海古籍出版社, 2013, p.356.)에서 한유, 이백에게 차운한 시는 같거나 관련 있는 장소에 처했을 때 지은 것에 반해 위응물에 차운한 시는 비교적 명확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89) 《정본완역 소동파시집1》, pp.356-357.

였고, 한유의 마음을 깨달아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식은 이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가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임을 잊고” 차운을 한다. 原詩 작자가 古人이라는 사실은 현재 차운시를 짓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운을 통해 현재의 즐거운 정서를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蘇軾 <遊惠山并敘(혜산에서 노닐 감회를 노래한 시와 그 서문)> 節錄

余昔爲錢塘倅，往來無錫，未嘗不至惠山。既去五年，復爲湖州，與高郵秦太虛·杭僧參寥同至，覽唐處士王武陵·竇羣·朱宿所賦詩，愛其語清簡蕭然有出塵之姿，追用其韻，各賦三首。(나는 옛날에 항주통판으로 있을 때 무석을 왕래했는데 그때마다 혜산에 가지 않은 적이 없었다. 떠난 지 5년 만에 다시 호주를 다스리게 되어 고우 사람 진태허 및 항주 스님 참료와 함께 이곳으로 왔다가 당나라 처사 왕무릉·두군·주숙이 지은 시를 보았는데 그 말이 청려하고 산뜻하여 흥진에서 벗어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좋아서 그들의 운을 사용하여 각기 세 수씩을 짓는다.)

其二

勝遊豈殊昔，	멋진 유람 옛날과 다를 리가 없으며
清句仍絕塵。	산뜻한 시구가 옛날처럼 초연하네.
弔古泣舊史，	옛 일을 애도하고 옛 역사에 눈물 짓고
疾譏歌小旻。	참소를 싫어하고 <소민>을 노래했으니
哀哉扶風子，	아아 애달프게도 부풍 사람은
難與巢許鄰。	소보나 허유와 이웃 되긴 어려웠겠네.

원풍 2년(1079), 소식은 湖州知州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無錫에서 진관, 항주 스님 참료와 함께 혜산에서 노닐다가 唐代의 사람이었던 왕무릉, 두군, 주숙⁹⁰⁾이 쓴 시를 보게 되었다. 두군과 그 벗들은 혜산사에서 함께 경치를 감상하고 노닐며 시를 지었다. 소식은 그 시가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90) 왕무릉은 <宿慧山寺(혜산사에 머무르다)>, 두군은 <同王晦伯朱遐景宿慧山寺(왕회백과 주하경과 함께 혜산사에 머무르다)>, 주숙은 <宿慧山寺(혜산사에 머무르다)>를 지었다. 그들은 셋이 함께 혜산을 노닐며 그 감회를 시로 지었다.

진관과 참료와 함께 그 시에 추화시를 짓게 된다.⁹¹⁾ 이는 해산에서 벗들과 함께 노니는 소식 자신의 상황이 왕무릉, 두군, 주숙과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위의 시는 그 중에서도 두군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소식은 이렇게 즐거운 상황에서 차운으로 시를 지어 즐거움을 발산하였다. 같은 감정을 가졌던 原詩의 작자와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그런데 소식이 처한 상황이 긍정적인 경우가 아닐 때에도 추화시는 유용하게 쓰인다. ‘같은 상황에 처했던 누군가’와 운각까지 공유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슬픔에 집중된 상황에서 그의 초점을 운각을 맞추는 것으로 분산시켜 슬픔에서 한 걸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蘇軾 <和李太白并敘(이태백의 시에 화답하며 서문과 함께 쓰다)> 節錄

李太白有潯陽紫極宮感秋詩. 紫極宮, 今天慶觀也. 道士胡洞微以石本示余, 蓋其師卓玘之所刻. 玘有道行, 節義過人, 今亡矣. 太白詩云: “四十九年非, 一往不可復.” 予亦四十九, 感之, 次其韻. 玉芝一名瓊田草, 洞微種之七八年矣, 云: 更數年可食, 許以遺余. 故并記之.

이태백에게는 <潯陽紫極宮感秋作(심양의 자극궁에서 가을에 느낀 바가 있어 짓다)> 시가 있다. 자극궁은 지금의 천경관이다. 도사인 호동미가 석본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아마도 그 스승인 탁기가 새겼을 것이다. 탁기는 도술을 행하였고 절의가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데 지금은 죽었다. 이태백 시에서 이르길, “사십구 년은 잘못되었지만,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네.”라고 하였다. 나도 또한 49세이므로 느끼는 바가 있어 그 시에 차운한다. 옥지는 일명 경전초라 하는데, 호동미가 그것을 심은 지 칠팔년이 되었으니 몇 년이 지나 먹을 수 있으니 나에게 주기를 허락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함께 그것을 기록한다.

流光發永歡,	흐르는 세월에 긴 탄식을 하나니
自昔非余獨.	예부터 나 홀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네.
行年四十九,	사십구 년을 지나
還此北窗宿.	또 여기 북쪽 창에서 자는구나.

91) 秦觀은 <同子瞻賦游惠山三首(자침과 해산에서 노닐며 짓다 3수)>, 參寥는 <子瞻赴守湖州三首(자침이 호주지주로 부임하며 짓다 3수)>를 지었다.

緬懷卓道人,	아득히 탁씨 도인을 생각하니
白首寓醫卜.	흰 머리로 의술과 점술에 기대었다네.
謫仙固遠矣,	편적된 신선은 본래 멀지만
此士亦難復.	이 도사 또한 돌아오기 어렵구나.

元豐 7년(1084) 5월, 소식이 49세일 때였다. 그는 도사 호동미의 석본에 새겨진 이백의 시를 보게 되었다. 그 시에는 이백이 49세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을 탄식하는 구절이 있었고, 소식은 이에 공감을 느껴 차운을 한다. 탁기가 새긴 석본은 남아있지만 사람은 죽고 없는 상황을 마주하며 이백의 심경을 더욱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식은 이 시에서 “흐르는 세월에 긴 탄식을 하나니 예부터 나 홀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네.”라며 이백도 그러했음을 말하였다. 原詩의 작자도 자신과 상황이 같았었기에 그와 동질감을 형성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소식은 이백과 운각을 통해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그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차운의 속성인 긍정적 정서의 효과가 나타난다.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운각을 가지고 놀이를 시도함으로써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히며 슬픔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식은 자신은 물론이며 그 시를 읽는 독자들도 차운시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시의 서문을 본다.

蘇軾 <木山并敘(목가산을 서문과 함께 써서 읊다)>

吾先君子嘗蓄木山三峯, 且爲之記與詩. 詩人梅二丈聖俞, 見而賦之. 今三十年矣, 而猶子千乘, 又得五峯, 益奇. 因次聖俞韻, 使并刻之其側.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찍이 세 개의 봉우리로 된 목가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한 그것을 위해 記와 詩를 지었다. 시인 매성유가 보고는 그것을 읊었다. 지금 30년이 지나, 조카인 천승이 다섯 개의 봉우리로 된 목가산을 또 얻었는데 더욱 기이하다. 매성유의 운에 차운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그 옆에 나란히 새기게 한다.

嘉祐 2년(1057), 소식의 아버지 蘇洵은 강물에 떠다니는 산 모양의 그루터기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세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과 같아 기이하게 여기며 이 기쁨을 글로 적은 것이 바로 <木假山記>이다. 또한 그의 벗인 매요신도 목가산을 보고 <蘇明允木山(소명운의 목가산)>을 지어 그것을 玩賞하는 즐거움을 적었다. 그리고 元祐 3년(1088), 소식의 조카인 천승이 다섯 봉우리로 된 목가산을 가져오자 옛날의 목가산과 그것을 읊은 매요신의 시가 떠올라 차운을 한다.

소식은 차운시를 짓고는 기쁜 나머지 매요신의 시와 자신의 시를 목가산에 새기게 하였다. 이를 통해 소식이 차운시를 지은 이후 더욱 기쁜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굳이 原詩까지 함께 목가산에 새기게 하여, 原詩와 차운시를 나란히 놓고 즐거움을 남기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이한 목가산을 구경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새긴 原詩와 차운시까지 읽게 되기 때문이다. 소식은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었다. 운각을 공유한 詩도 玩賞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차운시가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原詩 작자가 古人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原詩에서 형성된 정서가 차운시의 감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했던 것이다.

蘇軾 <和陶飲酒二十道并敘(도연명의 음주 시 20수에 화답하며 서문과 함께 쓰다)>

吾飲酒至少，常以把盞爲樂。往往頽然坐睡，人見其醉，而吾中了然，蓋莫能名其爲醉爲醒也。在揚州時，飲酒過午輒罷。客去解衣盤礴，終日歡不足而適有餘。因和淵明飲酒二十首，庶以仿佛其不可名者，示舍弟子由、晁無咎學士。

나는 술을 매우 적게 마시는데, 항상 술잔을 잡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자주 멍하니 앉아서 졸았으니, 남들은 나를 취한 것으로 보지만 나는 또렷하였고, 아마 아무도 내가 취했는지 깨어 있는지를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양주에 있을 때, 술을 마시다가 낮이 지나면 문득 술 마시기를 마쳤다. 객이 떠나 옷을 벗고는 다리를 뻗고 앉았는데, 종일토록 기쁨은 부족하지만 한적함은 넘쳤다. 이 때문에 도연명 음주 20수에 화운하여 모호하여 취했는지 깨어 있는지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동생 자유와 조무구 학사

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元祐 7년(1092) 7월, 소식이 揚州太守로 있을 때였다. 소식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해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아 취했는지 깨어 있는지를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러한 상태를 즐겼던 것이다. 어느 날 다른 이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혼자 편하게 있었는데, 한가한 정취가 넘쳐 도연명의 <음주> 시에 차운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자신의 차운시에 자신의 즐거운 상태를 잘 묘사하여 소철과 조보지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소식은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도연명의 음주시에 차운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발산하였다. 도연명이 술을 마시며 느꼈던 감정을 소식도 느꼈으니, 시 창작을 촉발시키는 상황이 존재했던 것이다. 평소 취한 듯 깨어 있는 듯한 상태를 즐겼던 소식은 이 시를 짓고 난 후 만족감을 얻어 더욱 즐거웠던 것이다.⁹²⁾

蘇軾 <寄鄧道士并引(등도사에게 서문과 함께 부치다)> 節錄

羅浮山有野人，相傳葛稚川之隸也。鄧道士守安，山中有道者也。嘗於菴前見其足迹長二尺許。紹聖二年正月二日，予偶讀韋蘇州。<寄全椒山中首士>詩云：“今朝郡齋冷，忽念山中客。澗底束荊薪，歸來煮白石。遙持一樽酒，遠慰風雨夕。落葉滿空山，何處尋行迹。”乃以酒一壺，依蘇州韻，作詩寄之。

나부산에 야인이 있는데, 전하기로는 갈치천(갈홍)의 종이다. 등도사 수안은 산 속에 있는 도사다. 일찍이 암자 앞에서 그의 발자국 길이가 두 척 남짓임을 본 적이 있었다. 소성 2년 정월 2일에 나는 우연히 위응물의 시를 읽게 되었다. <전초산의 도사에게 부치다> 시에서 이르길: “오늘 아침 군수의 집이 서늘하니, 갑자기 산 속의 객이 생각나네. 산골짜기 밑에 가 시나무 덩불을 묶어놓고, 돌아와서 흰 돌을 삶네. 아득히 한 동이 술을 가지고서, 멀리서 비바람 치는 저녁을 위로하네. 나뭇잎 떨어져 빈산에 가득하니, 어디서 행적을 찾겠는가.”라 하였다. 이에 술 한 병을 가지고 위응물의 운에 의지하여 시를 지어 그에게 부친다.

92) <和陶飲酒> 시는 화도시 124首에 속한다. 그러나 이 시는 편적지에서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지어진 화도시와는 창작 목적의 측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화도시 이전의 추화시로 분류하였다.

幽人不可見,	숨어사는 이를 만날 수 없지만
淸嘯聞月夕.	맑은 휘파람소리가 달밤에 들리네.
聊戲菴中人,	그런대로 암자에 있는 이를 희롱하나니
空飛本無迹.	하늘을 나는 이는 본래 자취가 없기 때문이라네.

어느 날 소식은 우연히 위응물의 시를 읽게 되었는데, 위응물은 전초산의 도사를 그리워하며 그에게 시를 보냈다. 이에 소식도 평소 알고 있었던 등도사가 떠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소식이 일찍이 암자 앞에서 등도사의 발자국을 본 적이 있었는데, 위응물의 시에 의하면 도사의 행적은 남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운각인 “迹”으로 연결시켜 등도사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함과 동시에 장난스럽게 희롱을 한 것이다. 즉, 운각이 정해진 차운시였기 때문에 소식은 효과적으로 재치 있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의 추화시는 대부분 原詩 작자가 古人인지의 여부와 古人이 누구인지의 여부는 추화시를 짓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창작 시기를 고려했을 때, 평생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송대 문인들이 창화시를 지을 때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만든 운각에 차운해야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古人의 시에 차운할 일이 적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만든 운각에 차운해야 실질적인 유희와 경쟁적 요소가 부가되므로 굳이 古人의 시에 차운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도 크다. 결국 앞서 살펴본 추화시는 일반 창화시와 같이 차운의 유희성이 발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식의 상황과 原詩의 상황이 같다는 점이 추화시의 창작 동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和陶詩

소식은 그의 만년에 영남으로 유배를 받게 되는데, 이 시기에 화도시의 집중적 창작이 이루어진다. 사실 이는 소식이 평소에도 도연명을 매우 좋

아했던 것과 관계가 깊다. 도연명은 사회가 어지러워지자 彭澤현령을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갔다. 더 나아가 전원으로 돌아간 뒤에는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며 정신적인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 그래서 도연명은 하나의 전형으로서, 소식뿐만 아니라 많은 문인들에게도 추앙을 받았다. 문인들에게 도연명이란 속세를 벗어나 진정한 은거를 이루어낸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또한 소식은 평소 은거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실천할 수 없었다. 그의 초월의지는 임금을 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구제함으로써 공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세속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초연하게 살고 싶다는 조건부의 소망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⁹³⁾ 결국 정신적으로 괴로운 소식은 단순히 도연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열렬히 그의 정신적인 경지를 사모하고 닮고자 하게 되었고, 현실에서 귀향할 수 없었을 바에야 “和陶詩”를 지어 자기의 꿈을 투영하면서 자신의 정신적 경지를 시가로 승화하고자 했다.⁹⁴⁾ 소식은 身邊에 某種의 일을 당했을 때 도연명의 시 중 그 경우에 맞는 시를 골라 창화하였다.⁹⁵⁾ 和陶詩는 소식이 정치적으로 좌절했을 때,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를 극복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⁹⁶⁾ 시 창작에 있어 시적 발상의 대상을 직접 선택하였기에 화도시는 특별하게 여겨진다.

소식은 도연명과 정신적인 교유를 하며 위로를 받기 위해 화도시를 창작하였다. 도연명과 자신을 동일시하여⁹⁷⁾ 그 상황에서 도연명과 같은 태도로 대처하며 정신적 위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 목적에는 왜 굳이 차운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시인은 시를 지어 슬픈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근심을 달래는데, 차운을 하

93) 柳種睦, 《蘇軾詞研究》, 서울: 중문, 1993, p.187.

94) 안희진, 앞의 논문, p.8.

95) 진영희, <동파의 정치생애와 문학과와의 관계 시론: <화도시>를 중심으로>, 영남중국어문화회, 《中國語文學》, vol.10, No.1, 1985, p.94.

96) 金甫暲, 앞의 논문, p.187.

97) 조규백, <도연명에의 동일화양상과 도시의 창조적 수용 — 소식시의 한 단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大東文化研究》, vol.31, 1996, p.224.

면 정해진 운각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펼치기에 제약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곤궁에 빠진 시인이라면 현재의 슬픈 감정을 표출하는 데 집중을 하느라 운각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굳이 차운을 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 다음의 시를 본다.

蘇軾 <和陶歸園田居六首(도연명의 <귀원전거> 시에 화운하다)> 節錄

三月四日，游白水山佛迹岩，沐浴於湯泉，晞髮懸瀑之下，浩歌而歸。肩輿卻行，以與客言，不覺至水北荔支浦上。晚日蔥蘢，竹陰蕭然，時荔子纍纍如茭實矣。有父老年八十五，指以告余曰：“及是可食，公能攜酒來游乎？”意欣然許之。歸臥既覺，聞兒子過誦淵明<歸園田居詩六首>，乃悉次其韻。始，余在廣陵和淵明。飲酒二十首，今復爲此，要當盡和其詩乃已耳。今書以寄妙總大士參寥子。

3월 4일에, 백수산의 불적암에서 노닐다가, 탕천에서 목욕을 한 뒤 폭포 아래에서 머리를 말리고, 큰 소리로 노래하며 돌아갔다. 가마를 타고 물러나 가며 손님과 이야기하는데, 어느새 물의 북쪽으로 여지포에 이르렀다. 석양은 밝게 비치고, 대나무 그림자는 쓸쓸한데, 때마침 여지는 여러 개가 떼어져 있어 마치 가지연밥 같았다. 85세인 어떤 노인이 가리키며 나에게 말하길, “지금은 먹기 좋은 때이니, 공께서는 술을 들고 와서 노닐 수 있겠습니까?”하니 마음으로 기쁘게 그것을 허락하였다. 돌아와 자다가 이윽고 깨어났는데, 아들인 過가 도연명의 <귀원전거> 시 6수를 외우는 것이 들려 이에 그 운에 전부 차운하였다. 처음에 나는 광릉에서 도연명의 <음주> 시 20수에 화운하고, 지금 다시 이것(귀원전거)을 쓰는데, 그의 시에 모두 화운하고 나서야 그만둘 따름이다. 오늘 묘총대사인 참료자에게 시를 써서 부친다.

其六

昔我在廣陵，	옛날에 내가 광릉에 있었을 제
悵望柴桑陌。	자상의 두렁길을 슬프게 바라보았었는데
長吟飲酒詩，	<음주> 시를 길게 읊으며
頗獲一笑適。	자못 한 번 웃음의 만족을 얻었지.

소식은 그의 아들인 過가 <歸園田居> 시를 외우는 것을 듣고는 도연명

의 모든 시에 차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소식은 탕천에서 오며 일부러 큰 소리로 노래하며 자신의 슬픈 감정을 달래려했고, 여지포에 갔더니 주위 풍경은 쓸쓸하게 보였다. 또한 술을 가져와 함께 노닐자는 노인의 제안을 받고는 기쁘게 동참하였다. 여기에서라도 만족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중 제5수에서는 과거에 <음주> 시를 읽으며 기쁨을 얻었음을 말하였다. 소식은 <음주> 시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차운의 대상이 “도연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차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놀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웰빙과 고요함의 상태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놀이를 통해 이완될 때 공감과 친밀감의 능력이 증진된다⁹⁸⁾고 한다. 소식은 도연명을 떠올리며 그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놀이를 시도하며 위로를 얻었다.⁹⁹⁾ 물론 평생에 걸쳐서 차운시를 창작했기에 그것이 하나의 시 창작 습관이 되어 화도시에 반영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식은 이미 수없이 많은 차운시를 통해서 차운의 효과에 대해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속성을 지닌 놀이의 특성¹⁰⁰⁾이 드러난다. 즉, 소식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얻고자 한 것이다. 그는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운각에 몰입하여 놀이를 시도함으로써 잠시나마 슬픔을 잊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차운시는 운각을 차례대로 따라야 하고, 소식은 차운시를 잘 지었다. 힘겨운 과제가 수준 높은 실력과 결합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심도 있는 참여와 몰입이 이루어진다.¹⁰¹⁾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한 없이 쓸 때 몰입을 하게 되고,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자신이 한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행복을 느끼게 된다.¹⁰²⁾

98) Charles E. Schaefer 엮음, 백지연 옮김, 《성인을 위한 놀이치료》, 서울: 북스힐, 2011, p.18.

99)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소개한 <和李太白并叙(이태백의 시에 화답하며 서문과 함께 쓰다)>도 화도시와 같은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다.

100) Charles E. Schaefer 엮음, 앞의 책, 2015, p.59.

101)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지음, 이희재 옮김, 《몰입의 즐거움》, 서울: 해냄, 1999, p.46.

102) 위의 책, p.48 참조.

소식도 마찬가지로 도연명의 모든 시에 차운함으로써 절망적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차운의 특성을 바탕으로 도연명과 화도시가 어떻게 위로를 주었는지 본다.

陶淵明 <止酒(술을 끊으며)>

居止次城邑,	사는 곳은 성읍에 가까워도
逍遙自閑止.	거닐며 한가롭게 산다네.
坐止高蔭下,	앉기를 멈추는 곳은 높은 그늘 아래이고
步止華門裏.	걷기를 멈추는 곳은 사립문 안이라네.
好味止園葵,	좋은 맛은 동산의 푸성귀에서 그치고
大歡止稚子.	큰 기쁨은 어린 아이에게서 그치네.
平生不止酒,	평생에 술을 끊지 않았으니
止酒情無喜.	술을 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이라네.
暮止不安寢,	저물녘에 끊으면 편히 잠들지 못하고
晨止不能起.	아침에 끊으면 일어날 수 없다네.
日日欲止之,	매일매일 술을 끊고자 하나
營衛止不理.	끊으면 혈의 작용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라네.
徒知止不樂,	다만 아는 것은 끊으면 즐겁지 않다는 것이며
未信止利己.	끊으면 나에게 이롭다고 믿지 않았네.
始覺止爲善,	끊어야 좋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今朝眞止矣.	오늘 아침에야 진실로 끊었다네.
從此一止去,	지금부터 한 번 끊는다면
將止扶桑涘.	부상의 물가에서야 끊을 것이네.
清顏止宿容,	맑은 얼굴이 옛 얼굴에서 멈춘다면
奚止千萬祀.	어찌 천만년만 끊겠는가. ¹⁰³⁾

蘇軾 <和陶止酒(도연명의 <술을 끊으며> 시에 화운하다)>

丁丑歲，予謫海南，子由亦貶雷州。五月十一日，相遇於藤，同行至雷。六月十一日，相別，渡海。余時病痺呻吟，子由亦終夕不寐。因誦淵明詩，勸余止酒。乃和原韻，因以贈別，庶幾眞止矣。

103) 四部叢刊景宋巾箱本，陶潛 撰，湯漢 箋注，《箋注陶淵明集》卷三。

정축년에, 나는 해남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자유 또한 뇌주로 유배를 당했다. 5월 11일에 함께 등주에서 만나서는 뇌주까지 동행하였다. 6월 11일에 이별하고 바다를 건넜다. 나는 그때 치질에 걸려 끔찍거리며 신음하였는데, 자유 또한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도연명의 시를 읊는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술을 끊기를 권했다. 이에 원래의 운에 화운하며 이 시로써 증별하였으니 진실로 술을 끊기를 바랄 따름이다.

- | | |
|-----------|-----------------------------|
| 1 時來與物逝, | 때는 오고 만물은 가는데 |
| 2 路窮非我止. | 길이 궁하니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
| 3 與子各意行, | 너와 각각 마음대로 다니다가 |
| 4 同落百蠻裏. | 함께 남방으로 떨어졌구나. |
| 5 蕭然兩別駕, | 쓸쓸하게도 두 대의 이별하는 수레는 |
| 6 各攜一穉子. | 각각 한 어린아이가 끌고 있다네. |
| 7 子室有孟光, | 너의 집에는 맹광과 같은 아내가 있지만 |
| 8 我室惟法喜. | 나의 집에는 불법으로 인한 기쁨만이 있구나. |
| 9 相逢山谷間, | 산골짜기에서 서로 만나 |
| 10 一月同臥起. | 한 달 동안을 함께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
| 11 茫茫海南北, | 아득한 바다의 남북쪽으로 있어도 |
| 12 粗亦足生理. | 거친 밥 또한 살기에 족하다네. |
| 13 勸我師淵明, | 도연명을 스승으로 삼기를 나에게 권하니 |
| 14 力薄且爲己. | 또한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된다네. |
| 15 微疴坐杯酌, | 작은 병 있어도 앉아서 술만 따르니 |
| 16 止酒則瘳矣. | 술을 끊으면 고쳐질 것이라네. |
| 17 望道雖未濟, | 길을 내다보는데 비록 건널 수는 없지만 |
| 18 隱約見津涘. |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조용히 얘기했지. |
| 19 從今東坡室, | 오늘부터 동파의 집에서는 |
| 20 不立杜康祀. | 두강의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지 않을 것이라네. |

도연명의 原詩는 매 句마다 “止”를 사용한 시이다. 평생을 술로 보낸 도연명은 술을 끊으면 즐겁지 않을 것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술을 잠깐이나마 끊었으니, 만약 맑은 얼굴이 지속된다면 천 년 만 년도 끊을 수 있겠다면서 재치 있게 시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紹聖 4년(1097) 6월 11일, 소식은 바다를 건너 儋州로 가기 전에 소철과 만나 한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

다. 그런데 그는 평소 치질이나 각종 자질구레한 병을 많이 앓았고, 이때도 역시 치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소철과 떨어져야 할 상황이 다가왔다. 그러자 소철이 도연명의 <술을 끊으며> 시를 외우면서 소식에게 술을 끊기를 권한다. 이는 제13-14구에서 소철이 소식에게 도연명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소식은 소철이 시를 읊으며 이별시를 주기 때문이라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술을 끊으려 한다.

도연명의 시는 해학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소식 시는 슬픈 정서가 짙게 깔려있다. 편적을 받은 처지에 소철과 이별하는 상황, 치질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더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철은 도연명의 해학적인 시를 가져와 소식이 차운시를 지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차운시 창작이 근심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식은 차운시를 짓는 데 집중하여 슬픈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슬픔을 잊어보고자 하였다. 소철과 소식은 놀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이다.¹⁰⁴⁾ 또한 소식, 소철은 도연명과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여 같은 사건을 겪은 도연명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위로를 받았다. 차운으로 형성된 동질감은 소식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마련해주어 슬픔을 완화하도록 도와주었다.

놀이의 특성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이다. 추화시 중에서도 화도시에는 소식이 직접 상황에 맞추어 原詩를 골라서 차운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 창화시 보다도 더욱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식은 도연명의 시에 차운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우 소철의 경우에는 자신이 시를 보내면 화답해 주리라는 예상을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다.¹⁰⁵⁾ 이는 차운을 통해 놀이의 장을 마련하여 긍정적 정서를 얻기 위해

104) 소철은 소식의 시에 화답하여 <次韻子瞻和陶公止酒(자침이 도연명의 <술을 끊으며> 시에 화운한 시에 차운하다)> 시를 지었다.

105) <初別子由(아우와 막 작별하다)>

我少知子由,	나는 어릴 적부터 자유를 알았거니와
天資和而清.	타고난 자질이 온화하고 해맑으며
好學老益堅,	학문을 좋아함이 나이 들수록 더 굳건하고
表里漸融明.	외면과 내면이 점점 더 융화되고 명철하네.

서였다.

陶淵明 <停雲(멈추어 선 구름)>

停雲, 思親友也. 罇湛新醪, 園列初榮, 願言不從, 歎息彌襟.

<멈추어 선 구름>은 친한 벗을 그리워하는 시다. 술통에 새로 빚은 막걸리가 괴어 있고 뜰에는 갓 피어난 꽃이 늘어서 있는데, 친구가 생각나도 만날 수 없어서 가슴에 탄식이 가득하다.

其一

靄靄停雲,	어둑하게 멈추어 선 구름
濛濛時雨.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八表同昏,	사방이 온통 어두컴컴해지고
平路伊阻.	평탄한 길이 꼭 막혀버렸다.
靜寄東軒,	조용히 동쪽 창가에 기대어
春醪獨撫.	봄 막걸리를 혼자서 마신다.
良朋悠邈,	좋은 벗은 아득히 멀리 있어
搔首延佇.	우두커니 서서 머리 긁적인다. ¹⁰⁶⁾

蘇軾 <和陶停雲四首并引(도연명의 <멈추어 선 구름> 시 4수에 화답하며 서문과 함께 쓰다)>

自立冬以來風雨無虛日, 海道斷絕, 不得子由書. 乃和淵明<停雲>詩以寄.

입동 이래로 비바람이 없는 날이 없었으므로 바닷길이 끊어져 자유의 서신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도연명의 <멈추어 선 구름> 시에 화답하여 부친다.

豈獨爲吾弟,	그런 그가 어떻게 내 동생일 뿐이겠나?
要是賢友生.	요컨대 그는 나의 현명한 친구인데
不見六七年,	예닐곱 해 동안이나 못 보았으니
微言誰與廣.	미묘한 말로 그 누구와 창화하겠나?

.....

소철은 소식에게 아우이면서도 창화를 할 수 있는 벗이었다.(번역은 《정본완역 소동파시집2》, p.635 참조.)

106) 송용준 역, 《도연명 시선》,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 pp.157-158.

其一

停雲在空,	허공에 멈추어 선 구름
黯其將雨.	어둡더니 비가 오려고 하네.
嗟我懷人,	탄식하며 나는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道修且阻.	길은 길고 또 험하네.
眷此區區,	구차하게 이를 돌아보며
俯仰再撫.	고개를 숙였다 드는 사이에도 다시 쫓는다네.
良辰過鳥,	좋은 때는 지나가는 새와 같아서
逝不我佇.	가버리고는 나를 위해 멈추어주지 않는구나.

蘇轍 <和子瞻次韻陶淵明停雲詩并引(도연명의 <멈추어 선 구름>에 차운한 자침의 시에 화답하다)>

丁丑十月，海道風雨，僭雷郵傳不通，子瞻兄和陶淵明停雲四章以致相思之意，轍亦次韻以報.

정축년 10월에 바닷길에 비바람이 치므로, 담주와 뇌주의 우편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자침 형이 도연명의 <멈추어 선 구름>에 화운함으로써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르렀으니, 나 또한 차운하여 보낸다.

其一

雲跨南溟,	구름이 남쪽 바다를 넘어서
南北一雨.	남북으로 온통 비가 내리네.
瞻望匪遙,	멀지 않은 곳을 바라보니
檻穽斯阻.	함정으로 모두 막혔다네.
夢往從之,	꿈속에서 가서 형님을 따르며
引手相撫.	손을 뻗어 서로를 어루만지네.
笑言未半,	웃으며 말하는 것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
捨我不佇.	나를 떠나고는 멈추어주지 않는구나. ¹⁰⁷⁾

먼저 도연명의 시의 소재인 “멈추어 선 구름(停雲)”은 먹구름은 하늘을 어둡게 만드는 존재로, 당시 어지러운 사회현실을 비유하고 있다. 도연명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알아주는 벗을 그리워하며 시를 지었다. 그

107) 蘇轍 著，陳宏天，高秀芳 點校，《蘇轍集(三)》，北京：中華書局，1999，pp.943-944.

리고 소식은 비바람 부는 날씨 때문에 소철에게 편지를 전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도연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소철에게 화도시를 보내자 소철은 소식의 마음을 알고는 소식을 그리워하는 시를 지어 화답했다.

소식은 소철에게 화도시를 지어 보내는데, 이를 차운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소철은 소식이 도연명의 시에 차운함으로써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소철은 역시 차운을 하여 소식에게 보냈으니, 이는 소식의 제안에 응한 것이다. 둘은 도연명을 떠올리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위로를 받는다. 소식은 놀이를 통한 효과를 잘 이용하였던 것이다.

상대방이 소철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소식은 도연명의 原詩와는 다른 모습으로 화도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는 적극적으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창조성이 발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¹⁰⁸⁾

陶淵明 <贈羊長史并引(양장사에게 서문과 함께 써서 주다)>

左軍羊長史, 銜使秦川, 作此與之.

좌장군의 양장사가 명령을 받아 진천(長安)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 시를 지어 그에게 준다.

愚生三季後,	어리석은 나는 삼대(三代)뒤에 태어나
慨然念黃虞.	감개하며 황제와 우순을 생각한다네.
得知千載外,	천 년 전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正賴古人書.	바로 고인의 글에 의지해서라네.
賢聖留餘跡,	현인과 성인이 남긴 자취는
事事在中都.	일마다 중도에 있구나.
豈忘遊心目,	어찌 마음과 눈으로 노니는 것을 잊었겠는가
關河不可踰.	관문을 넘을 수가 없다네.
九域甫已一,	구주가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逝將理舟輿.	배와 수레를 장만하여 장차 갈 것이네.
聞君當先邁,	그대가 먼저 간다고 들었어도
負病不獲俱.	병들어 함께 할 수 없으니

108) 성인에게는 놀이가 창의성, 심신의 통합을 포함한 수많은 적응적 행동을 촉진한다.(Charles E. Schaefer 엮음, 앞의 책, 2011, p.14.)

蘇軾 次韻詩의 특징

路若經商山,	가는 길에 만약 상산을 지난다면
爲我少躊躇.	나를 위해 조금이나마 머무르면서
多謝綺與甬,	기리게와 녹리선생에게
精爽今何如.	지금은 정신이 어떠하신지 안부를 여쭙주소.
紫芝誰復採,	자죽빛 영지는 누가 다시 캐는가?
深谷久應蕪.	깊은 계곡은 아마도 오랫동안 황폐했을 것인데.
駟馬無貫患,	사마를 타는 이는 근심을 면할 수 없지만
貧賤有交娛.	가난한 이는 사귄의 즐거움이 있다네.
清謠結心曲,	맑은 노랫가락은 마음에 맺었지만
人乖運見疎.	사람과 어긋나고 운수와 멀어졌다네.
擁懷累代下,	여러 세대 뒤에도 이런 마음 품고 있나니
言盡意不舒.	말이 다해도 마음 속 뜻은 펼 수 없구나. ¹⁰⁹⁾

蘇軾 <和陶贈羊長史并引(도연명의 <양장사에게 주다> 시에 화답하여 서문과 함께 쓰다)>

得鄭嘉會靖老書，欲於海舶載書千餘卷見借。因讀淵明<贈羊長史>詩云 “愚生三季後，慨然念黃虞。得知千載事¹¹⁰⁾，上¹¹¹⁾賴古人書”，次其韻以謝鄭君。正가희의 글을 받았는데 배에 책 천여 권을 실어 나에게 빌려주고자 했다. 도연명의 <양장사에게 주다> 시에서 말한 “어리석은 나는 삼대(三代)뒤에 태어나, 감개하며 황제와 우순을 생각한다네. 천 년 전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인의 글에 의지해서라네.”를 읽었기에 그 운에 차운함으로써 정가희에게 감사한다.

我非皇甫謐.	나는 황보밀이 아닌데도
門人如摯虞.	문하생들은 지우와 같아서
不持兩鴟酒,	술 단지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肯借一車書.	기꺼이 책을 수레에 가득 채워 빌려주어
欲令海外士,	바다 건너의 선비로 하여금
觀經似鴻都.	경서를 보게 해 주었으니 홍도문에 있는 것과 같구나.
結髮事文史,	상투 틀고서 글을 쓴 지가

109) 《箋注陶淵明集》 卷二.

110) 도연명의 시는 事가 아닌 外이다.

111) 도연명의 시는 上이 아닌 正이다.

俯仰六十踰.	잠깐 사이에 60년이 넘었는데
老馬不耐放,	늙은 말은 버려짐을 못 견디고
長鳴思服輿.	길게 울며 수레를 그리워한다네.
故知根塵在,	육근과 육진이 존재함을 아는 고로
未免病藥俱.	병을 면치 못하면 약을 구비해야 한다네.
念君千里足,	그대의 천리마를 생각해보니
曆塊猶踟躕.	빠르게 달릴 수 있음에도 머뭇거렸지만
好學眞伯業,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진실로 원백업과 같고
比肩可相如.	사마상여에게 비견할 만하다네.
此書久已熟,	이 책은 (그대에게는) 오래도록 이미 익숙하지만
救我今荒蕪.	황무지 같은 지금의 나를 구해주었는데
顧慚桑榆迫,	늘그막에 땀박박아 과거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久厭詩書娛.	시와 글의 즐거움은 싫어진 지 오래라네.
奏賦病未能,	글 올리는 것은 병으로 쓰지 못하고
草玄老更疎.	태현경 짓는 것은 늙었으니 뜸해졌지만
猶當距楊墨,	오히려 옹당 양주와 목적을 막아
稍欲懲荊舒.	조금이나마 남방의 형서를 징계하려하네.

도연명은 양장사에게 증별시를 썼다. 양장사는 북벌에 성공한 劉裕를 축하하러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연명은 시에서 과거 황제와 순임금의 태평성대를 생각하고, 성인들이 있었던 중원지역을 그리워한다. 왕조교체 기로서,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이며 자신이 세상과 어긋나 쓰임을 받지 못함에 대해 탄식을 하였다. 그리고 소식은 이 중 첫 4구의 내용을 인용하여 화도시를 쓴다. 담주에 머무르며 마음껏 책을 볼 수 없었는데, 해주에서 관직을 하고 있었던 정가회(字 靖老)가 책을 보내주어 감사하다고 시를 지어 보낸 것이다. 60년을 살았지만 결국 먼 곳으로 유배당하고, 몸은 늙어 쇠약해졌다. 그렇지만 친구 정가회는 학문을 좋아하여 책을 많이 읽고, 그 책들을 자신에게 주었으니 열심히 읽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소식은 도연명의 시 일부분에서 착안하여 화도시를 지었다. 이는 화도시가 소식에게 하나의 놀이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놀이 안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¹¹²⁾ 소식은 도연명의 송별시를 정가회에 대

한 감사편지로 사용했다. 도연명의 原詩에서의 첫 4구는 태평성대를 말하기 위해 시의 발단으로 삼은 것인 반면 소식은 정가회가 보내준 책을 말하기 위해 그 구절을 시의 발단으로 삼았다. 또한 原詩에서는 왕조가 바뀌게 되어 혼란한 사회에 대한 개탄을 서술했다면, 화도시에서는 상대방을 칭송하고 감사를 표현했다. 그는 도연명의 原詩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았으니, 이는 놀이에서의 창조성이 발휘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추화시는 화도시와 그 이전의 추화시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原詩 작자의 상황과 소식의 상황이 같다는 점이 있었다. 소식은 여기에서도 차운시를 놀이로 삼은 모습이 나타났다. 화도시에서는 놀이의 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창조성을 발휘하여 시를 지었고, 그 이전의 추화시에서는 일반 창화시와 같이 즐거움을 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原詩 작자가 古人인지의 여부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다. “차운” 자체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도연명”을 강조한 것과 달리 “차운”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차운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이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소식은 곤궁한 상황에서도 굳이 “차운”을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112) 로제 카이와 지음, 앞의 책, p.14 참조.

제4장 소식 차운시의 한계

차운시는 송대에 매우 성행하여 문인들이 보편적으로 짓는 시의 형식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비평가들은 차운시의 폐해를 비판하였고 그 중에서도 차운시를 많이 지었던 소식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金의 王若虛는 “비록 재주가 지극히 교묘하여 한 시대를 움직였으나, 천연스러움을 해친 바가 많다. 소식에게 차운이 없다면 그 거리가 옛 사람과 어찌 멀겠는가”¹¹³⁾라 하였고, 淸의 馬星翼은 “차운시는 비록 소동파가 큰 재주가 있었지만 또한 억지로 끌어 모아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¹¹⁴⁾라고 하는 등 소식 차운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차운시는 정해진 운각을 사용하는 것이 시 창작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 운각은 시인에게 시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하는 제약이 되어, 결국 차운시라는 형식이 가져오는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¹¹⁵⁾ 소식과 같은 대시인도 모든 차운시 작품을 잘 쓰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대량의 차운시를 창작한 만큼, 한계가 드러날 개연성이 더 많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차운시의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13) 원문은 본고 p.2의 주석 4번 참조.

114) “次韻詩雖東坡大才，亦有湊泊不穩處”(淸刻本，馬星翼 撰，《東泉詩話》卷二.)

115) 실패를 낳는 두 번째 요인은 작품의 형식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장르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것도 사실 하나의 범주로 보기는 어렵지만, 역사적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어쨌든 어떤 작가들은 기꺼이 자신을 특정 범주의 작가로 자처한다. 한데 어떤 부적합한 장르를 선택하거나, 특히 선택한 주제에 부적합한 장르를 선택한 경우 역시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피에르 바야르 저, 김병욱 옮김, 《망친 책,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서울: 여름언덕, 2013, p.33.) 피에르 바야르는 실패한 작품과 관련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작품의 형식을 들고 있다. 그는 형식이 이미 한계를 가진 경우, 위대한 작가들도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식의 차운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여기서는 소식이 차운시를 잘 짓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대량의 차운시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데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것이다.

제1절 부자연스러운 시상 전개

차운시는 原詩의 운각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다. 이 조건은 차운시의 作者를 구속한다. 결국 시인은 운각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기존 시의 운각에 지배당하는 상황인 만큼, 억지로 거기에 맞는 표현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왕왕 부자연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시구를 낳기도 한다.¹¹⁶⁾ 즉, 부자연스러운 시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는 句數가 많은 古詩의 경우에 더욱 심해지는데 그만큼 지켜야 할 운각이 많기 때문이다. 소식은 시의 내용을 희생시킴으로써, 정해진 운각을 사용하는 차운시의 규칙을 준수하였다. 그러나 시의 내용이 자연스럽지 못함은 분명 차운시의 한계였다.

이 부분은 清代 학자인 紀昀의 평가에 기대어 논의를 진행한다. 紀昀은 소식 詩 전체에 대하여 비평을 하였다. 歷代로 소식의 시에 대하여 비평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비평가들과 달리, 기운은 소식의 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그의 비평을 통해 소식 詩의 문제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특히 차운시의 경우, “운각에 끌려 다녔다”는 구체적인 비판을 한 시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비평가의 지위와 학식의 수준이 보장되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 다음의 글을 본다.

건륭 신묘년(1771) 8월. 기운은 자신의 발문에서 이르기를, “내가 이 시집을 평가하기를 병술년(1766) 오월부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검은색 붓으로 하고 다시 볼 때는 붉은색 붓을 사용하여 고치고 세 번째 볼 때는 자줏빛 붓을 사용하여 고쳤으니, 중횡으로 교차하며 번갈아가며 글자가 지워져서 거의 모호해져 변별하여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므로, 친구가 옮겨 베끼면서 각각 뜻을 가지고 글자를 버리거나 남겨두었다. 기운의 문인인 편수관 갈정

116) 김보경, <시가창작(詩歌創作)에 있어서 차운(次韻)의 효과(效果)와 의의(意義)에 대하여 — 소식(蘇軾)의 시가(詩歌)를 중심으로>, 중국어문연구회, 《中國語文論叢》, vol.45, 2010, p.49.

화가 있는 곳에서 얻은 초백선생(사신행)의 수비본에 이어서 썼고, 또한 틈새에도 보충해서 썼으니, 더욱 얹혀서는 구분하기 어려웠다. 금년 6월에 우루무치에서 돌아왔는데 낮은 길고 짙이 많았으니 이 깔끔한 책에 베껴서 편하게 살펴보았다. 이에 이르러 5번 본 셈이 되었다”고 하였다.¹¹⁷⁾

기운은 병술년(1766)에 처음 시작하여 신묘년(1771)까지 5년 동안 소식시를 평가하였다. 또한 검은색 붓, 붉은색 붓, 자줏빛 붓을 사용하여 3차례를 검열하고, 사신행의 수비본에 보충해서 쓰고, 다시 깔끔하게 베껴서 살펴보면서 고치기를 약 5차례 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매우 공을 들여 소식시를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운의 지적을 바탕으로 운각으로 인해 시상이 부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시를 짚어본다.¹¹⁸⁾

蘇軾 <次韻舒堯文祈雪霧豬泉(서요문이 무저천에서 눈을 내려달라는 제사를 드린 시에 차운하다)>

- 1 長笑蛇醫一寸腹, 우습게도 사의의 한 치 배로
- 2 銜冰吐雹何時足. 물 마셔 우박으로 토해봤자 어느 세월에 충분하겠는가.
- 3 蒼鵝無罪亦可憐, 푸른 거위는 죄가 없으니 또한 불쌍하리라
- 4 斬頸橫盤不敢哭. 목 베어 쟁반에 가로로 놓았으니 감히 울 수도 없다네.
- 5 豈知泉下有豬龍, 어찌 샘 바닥에 저룡이 있어
- 6 臥枕雷車踏陰軸. 누워 우레신의 수레를 베고 지축을 밟는 줄을 알겠나.
- 7 前年太守爲旱請, 전년의 태수께서는 가뭄 때문에 도움을 빌었는데

117) “乾隆辛卯八月. 紀公自跋云, 余點論是集始於丙戌之五月, 初以墨筆, 再閱改用朱筆, 三閱又改用紫筆, 交互縱橫, 遞相塗乙, 殆模糊不可辨識, 友朋傳錄, 各以意去取之. 續於門人葛編修正華處得初白先生手批本, 又補寫於罅隙之中, 益軋轢難別. 今歲六月自烏魯木齊歸, 長晝多暇, 因繕此淨本, 以便省覽. 蓋至是五閱矣.”(清別下齋叢書本, 錢泰吉撰, 《曝書雜記》卷一.)

118) 이와 관련하여 徐美秋는 그의 논문 <紀昀評點詩歌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p.110.)에서 기운이 운각의 문제를 지적한 소식의 시 <喬太博見和復次韻答之(태상박사 교씨가 나의 시에 화답해 왔기에 다시 차운하여 그의 시에 화답한다)>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서는 기운이 소식 시의 내용과 표현 기법 등을 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본고와 같이 운각의 한계를 짚은 것은 1首에 불과하다.

蘇軾 次韻詩의 특징

- 8 雨點隨人如撒菽. 빗방울은 사람을 따라 후두둑 콩을 뿌린 듯
- 9 太守歸國龍歸泉. 태수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용이 샘으로 돌아가도
- 10 至今人詠淇園綠. 지금까지 사람들은 淇水 동산의 푸른 대나무를 노래한다네.
- 11 我今又復罹此旱, 나는 오늘 또 다시 이 가뭄을 인하여 근심하나니
- 12 凜凜疲民在溝瀆. 두려워하며 지친 백성들이 죽어 도랑에 버려졌기 때
문이라네.
- 13 却尋舊跡叩神泉, 옛 흔적을 찾아 신의 샘물을 두드리는데
- 14 坐客仍攜王子淵. 앉아있는 객은 여전히 왕자연을 이끈다네.
- 15 看草中和樂職頌, 풀 보며 <중화>와 <낙직>을 부르고
- 16 新聲妙語慰華顛. 새로운 소리와 기묘한 말로 흰 머리 늙은이를 위로하네.
- 17 曉來泉上東風急, 새벽 샘물가에 동풍이 급히 불어오니
- 18 須上冰珠老蛟泣. 늙은 蛟人이 울어 수염에는 얼음 구슬이 맺혔다네.
- 19 怪詞欲遍龍飛起, 괴이한 말로 용을 꺾박하여 날게 하려하지만
- 20 險韻不量吾所及. 험운이라 내가 미칠 바를 모르겠네.
- 21 行看積雪厚埋牛, 장차 소가 묻힐 정도로 두껍게 쌓인 눈을 볼 터인데
- 22 誰與春工掀百蟄. 누가 봄의 재주꾼과 더불어 겨울잠을 자는 온갖 짐승
을 깨울 것인가.
- 23 此時還復借君詩, 지금 돌아와서 다시 그대의 시를 빌리는데
- 24 餘力汰輞仍貫笠. 남는 힘은 끝채를 지나 또한 수레 덮개를 뚫었다네.
- 25 揮毫落紙勿言疲, 붓 휘둘러 종이에 쓰니 지쳤다고 하지 마시오
- 26 驚龍再起震失匙. 놀란 용이 다시 일어나 우레를 내면 숟가락을 떨어뜨
릴 것이니.

이 시는 총 26句의 고체시이다. 장편의 詩에 차운을 한다면 시상을 전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위의 시도 마찬가지이다. 소식의 시로 보아 原詩의 작자인 서요문의 시에서 가뭄이 들어 눈이 오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다. 서요문은 徐州教授로서, 나라의 우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때는 12월이었고, 겨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요문은 祈雪祭를 드리게 되었다. 徐州太守였던 소식은 祈雪祭를 주제로 삼아 그것과 관련된 전고들을 다수 인용하여 차운시를 전개한다.

제1-6구에서는 祈雨祭와 관련한 전고들이 등장한다. 먼저 蛇醫에 대한 전고는 蛇醫를 독 안에 넣고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푸른 대나무로 독

을 치면 비가 내린다는 내용이고, 銜冰吐雹은 전설 속 벌레인 蜥蜴 물을 마시면 우박으로 토해내는 내용이며, 거위를 斬頸하는 것은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거위를 바친다는 전고이다. 또한 豬龍은 암컷 돼지가 나왔다 들어갔기에 豬龍湫라고 불리는 연못에서, 唐 天復연간에 가뭄이 들어 守宰가 제사를 지내 비가 내렸다는 전고를 인용한 것이다. 제7-12구에서는 소식 이전의 태수였던 傅欽之가 霧豬泉에 제사를 드렸던 사실과 가뭄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걱정하는 소식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제13-16구에서는 詩文에 능했던 왕자연처럼, 서요문이 原詩에서 백성들을 걱정하며 눈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시로 잘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제17-22구에서는 봄바람이 불며 鮫人이 눈물을 흘려 주인의 쟁반에 가득 채워준 전고를 비추어볼 때, 비나 눈이 내릴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또한 서요문의 시에서 險韻을 사용하여 소식 자신이 지은 차운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면서 장차 눈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4구에서는 餘力임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끝채를 지나 수레덧개를 뚫었다는 전고를 인용하여 서요문이 餘力으로 써도 詩가 너무 뛰어난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용이 일어나 자 손에 들고 있던 손가락을 떨어뜨리며 큰 우레 소리가 날 만큼 서요문의 詩가 뛰어나다고 거듭 칭찬하고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내용
1-6	기우제와 관련한 전고 서술
7-10	이전 태수의 성공적인 기우제
11-12	가뭄으로 인한 소식의 근심
13-16	서요문의 原詩 칭찬
17-18	비 또는 눈이 내릴 조짐이 보임
19-20	서요문의 原詩 칭찬
21-22	비 또는 눈이 많이 내릴 조짐이 보임
23-26	서요문의 原詩 칭찬

기운은 이 시에 대하여 “많은 부분이 운각에 끌려 다녀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¹¹⁹⁾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기 때

문이다. 서요문의 原詩를 칭찬하며 이로 인해 비 또는 눈이 내릴 조짐이 보인다는 내용이 등장했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내용이 이어지면서 시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9-20구에는 서요문이 험운으로 시를 잘 썼다며 그의 시를 칭찬하는 내용이 또 다시 등장한다. 제21-22구도 장차 눈이 내린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제23-26구도 또 다시 原詩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어 흐름상 어색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제20구에서 험운이기 때문에 자신이 原詩만큼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는 단순히 서요문이 시를 잘 썼고 자신의 시에 대한 겸손을 표현하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험운으로 시를 창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소식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뛰어난 필력을 지닌 시인도 때로는 운각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原詩가 소식 자신이 쓴 시일 때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 소식은 原詩에서 못 다한 말을 자화시를 통해 다시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보인다.

蘇軾 <次前韻再送周正孺(앞의 운에 차운하여 주정유를 다시 전송하며)>

- 1 東川得望郎, 동천은 낭중을 얻었으니
- 2 坐與西爭重. 서천과 중요함을 다투리.
- 3 高風傾石室, 고고한 풍모는 석실을 기울게 하고
- 4 舊學鄙文冢.¹²⁰⁾ 옛 학문인 문충을 낮게 여기네.
- 5 蜀人安使君, 촉지방 사람들은 사군이 편안하다 여기며
- 6 所至野不聳.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 7 竹馬迎細侯, 대나무말 타고 꺾굽을 맞아주고
- 8 大錢送劉寵. 큰 돈 (한 장)으로 유충을 보내게 되리.
- 9 遙知句溪路, 멀리서도 아나니 구계로에서

119) “多爲韻脚所牽，不甚自如。”(曾棗莊，曾濤 編，《蘇詩彙評(二)》，臺北：文史哲出版社 印行，1998，p.743.)

120) [公自註]：劉蛻《文冢銘》，在梓州。

- 10 老稚相扶擁. 늙은이와 어린아이는 서로 이끌어 줄 것이고
 11 看畫古叢祠, 숲 속의 옛 사당에서 그림을 볼 때
 12 百怪朝幽拱. 온갖 귀신들이 조회하며 은밀히 절하리.
 13 牛頭與兜率, 우두사와 도솔사의
 14 雲木蔚堆壘. 구름 높은 나무는 언덕에 무성할 것이고
 15 醉鄉追舊游, 취향에서 옛 친구를 따라 노닐며
 16 筆陣賈餘勇. 필진은 남은 용기를 팔 만하리.
 17 聊將詩酒樂, 그런대로 시와 술로 즐기며
 18 一掃簿書冗. 번잡한 장부를 한 번에 쓸어버리고
 19 西風吹好句, 서풍은 좋은 구절을 불어오니
 20 珠玉本無踵. 옥구슬은 본래 자취가 없다네.

이 시는 소식의 시 <送周正孺知東川(동천지주로 가는 주정유를 전송하며)>¹²¹⁾에 이어 지은 자화시이다. 주정유의 고향은 四川인데, 조정에서 관직을 맡다가 東川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즉 주정유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知州를 맡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소식은 그를 위해 송별시를 짓는데, 한 편으로는 부족했는지 위의 시를 다시 써서 그에게 전한다. 소식은 동천에서의 주정유의 모습을 상상한다. 제1-6구는 考功郎中이었던 주정유가 동천으로 가게 되었으니 주정유의 고고한 기풍과 뛰어난 학식으로 석실이 기울어지고 문충은 경시 받을 것이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정유 덕분에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라고 한다. 제7-8구는 동천의 어린이들이 주정유를 맞아주고, 늙은이들은 청렴하게 지주를 맡은 그를 아쉬워하며 떠나보낼 것이라고 한다. 제9-12구는 태평성대가 되어 사람들이 서로 돕고 귀신들도 그에게 절을 할 만큼 그 지역을 잘 다스릴 것이라 한다. 제13-20구는 고향에서 옛 친구와 노닐며 좋은 시를 지을 것이라 한다.

그런데 기운은 이 시에 대하여 “운각에 끌려 다녀 많은 부분이 자연스

121) <送周正孺知東川(동천지주로 가는 주정유를 전송하며)>는 주정유가 동천으로 가게 된 일, 신하 또는 인재로서 그의 청렴한 모습을 말하며, 소식은 그러한 그를 따르겠다는 내용이다. 즉 주정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 칭송하였다. 그래서 소식은 자화시를 지어 앞으로 부임하게 될 동천에서의 모습을 상상하여 자신이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럽지 않다.”¹²²⁾고 평가하였다. 먼저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정유가 동천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¹²³⁾ 그래서 제7-10구에서 어린아이와 늙은이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서로 돕는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제11-12구의 내용이다. 주정유가 고을을 잘 다스린 나머지 온갖 귀신들까지 그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의 의도는 알 수 있지만, 시상 전개상 “숲 속의 옛 사당”과 “그림”이 갑자기 나오면서 귀신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내용이 흐름에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제13-14구에서 동천에 있는 절이 나오면서 언덕 위에 울창한 나무가 구름 높이 솟아 있는 내용도 주정유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에서 쓴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는 계속 주정유에 대한 칭송이 이어지는데, 나무가 울창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의구심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11-14구의 내용은 분명 문맥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운각의 제약이 차운시를 창작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박학다식한 소식도 운각 때문에 고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차운시 작품 이외에 시의 제목에 “用其韻”이라고 쓴 작품이 있다. 차운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소식의 창작 습관상 차운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 또한 운각의 제약을 받아 시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蘇軾 <迨作淮中遇風詩，戲用其韻(迨가 <淮中遇風詩(회수에서 바람을 만나

122) “牽於韻脚，多不自然。”(《蘇詩彙評(三)》，p.1291.)

123) 詩가 동천에서의 일을 말한다는 단서는 다음과 같다.

구	단서	관련 설명
1구	東川, 西川	四川의 東西部를 말함
3구	石室	《蜀志》: 성의 남쪽에 있음
4구	文冢	소식의 自註: 劉蛻의 《文冢銘》이 있는 곳
5구	蜀人	지금의 四川
9구	句溪路	梓州 관할의 中江縣 서쪽
13구	牛頭, 兜率	梓州에 있는 절 이름
15구	舊游	고향에서 놀던 옛 친구

다)> 시를 지었는데, 장난삼아 그의 운을 사용하여 짓다)>

- 1 我詩如病驢, 내 시는 마치 병든 준마가
- 2 悲鳴向衰草. 시든 풀을 향해 구슬프게 우는 것과 같다네.
- 3 有兒眞驢子, 우리 아들은 진짜 천리마라
- 4 一噴群馬倒. 한 번 뿜어내면 못 말들이 쓰러진다네.
- 5 養氣勿吟哦, 기운을 길렀으면 자질구레하게 퇴고하지는 말고
- 6 聲名忌太早. 너무 일찍 이름이 나는 것은 삼가야 한다네.
- 7 風濤借筆力, 바람과 큰 물결에 필력을 빌렸으니,
- 8 勢逐孤雲掃. 기세는 외로운 구름을 쫓아내어 쓸어버렸다네.
- 9 何如陶家兒, 도연명 집안 아이들이
- 10 繞舍覓梨棗. 집안을 돌며 배와 대추를 찾던 것에 비해 어떤가?
- 11 君看押強韻, 그대 보시게나, 험운을 쓰는 것이
- 12 已勝郊與島. 이미 맹교나 가도보다 앞선 것을.

소식의 아들인 蘇迨가 어느 날 <淮中遇風詩>를 지었는데, 소식은 소태의 운을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 소식은 아들의 시를 병든 준마와 같은 자신의 시와 비교해 천리마가 기세를 내뿜자 못 말들이 그 기세에 압도당한다며 아들의 시를 칭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같이 총명하여 박해를 받을까봐¹²⁴⁾ 걱정하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소식은 아들이 시를 쓴 것이 기특하였고, 도연명의 아들도 자신의 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험운(強韻)을 가지고 쓴 시는, 가난하고 궁상맞은 맹교나 가도의 시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紀昀은 이 시에 대한 평으로 “앞뒤로는 모두 칭찬하는 말을 지었는데, ‘養氣’의 두 구는 그 가운데 경계하는 말을 삽입한 것이므로, 맥락이 모두 서로 관통하지 않는데, 이 또한 운각에 끌려 다녔기 때문이다.”¹²⁵⁾라고 하

124) 소식은 이후 <洗兒戲作>(《蘇軾詩集》 卷四十七, p.2535.) 시에서 “人皆養子望聰明, 我被聰明誤一生. 惟願孩兒愚且魯, 無災無難到公卿.(사람들은 모두 자식이 총명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총명으로 일생을 그르쳤다네. 다만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리석고 노둔하여 재앙 없이 어려움 없이 공경에 이르는 것이라네.)”라고 하였다. 이러한 걱정은 모진 풍파를 겪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소식은 늘 이러한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25) “前後皆作譽詞, 而以養氣二句橫插規戒於其中, 脈絡都不相貫. 此亦牽於韻脚故也.”

며 운자의 제약 때문에 내용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소식은 전체적으로 시를 쓴 아들을 칭찬하고 있다. 그런데 제5구와 제6구에서는 일찍이 총명하여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아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기운의 평가처럼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 앞부분에는 칭찬이 나오다가 후반부에서 약간의 경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마지막 두 구이다. 소식은 아들이 맹교나 가도 같은 大詩人보다도 험운을 잘 사용했다고 칭찬하였다. 이는 험운을 사용하여 시를 짓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소식의 언급을 통하여 운각의 제약이 시 창작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대문호인 소식과 같은 문인도 모든 작품에서 시상을 완벽하게 전개하지는 못했다. 차운시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운각을 사용하였지만, 그것은 시인을 구속하여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王若虛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소식이 차운시를 쓰지 않았더라면 시를 더욱 잘 쓸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한 것이었다. 이는 차운시의 형식이 가져오는 한계이다. 운각의 제약으로 인해 분명 시의 내용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은 것이다.

제2절 운각의 교체

운각의 교체는 原詩에서 정해진 운각 대신 다른 운각으로 바꾸어 차운시를 지은 경우를 말한다. 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운각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운각의 교체”는 앞 절의 상황과는 반대의 모습이다.

(《蘇詩彙評(三)》, p.1136.)

앞에서 다룬 “부자연스러운 시상 전개”가 정해진 운각을 지켜 사용하기 위해 시의 내용을 희생한 것이라면, “운각의 교체”는 시의 자연스러운 내용을 위해 차운시의 규칙을 어기고 운각을 희생한 것이다. 소식은 운각을 교체할 때, 같은 韻部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상에 적합한 글자를 골라 썼다. 그는 차운시의 규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해진 운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역시 차운시의 한계로 지목될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王文誥의 《蘇軾詩集》을 기준으로 原詩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蘇轍 <子瞻見許驪山澄泥硯(자침이 여산의 징니연을 주기로 나에게 허락하다)>

- 1 長安新硯石同堅, 장안의 새 벼루는 굳기가 돌과 같은데
- 2 不待書求遂許頒. 글로 구하는 것 필요 없이 (나에게) 주기로 허락받았네.
- 3 豈必魏人勝近世, 어찌 반드시 위나라 사람이 요즘 사람 보다 낫겠는가
- 4 強推銅雀沒驪山. 동작대를 힘껏 밀어 여산에 빠지게 했는데.
- 5 寒煤舒卷開雲葉, 그을음으로 폼다 뭉쳤다 구름 모양을 만들고
- 6 清露霑流發涕漣. 맑은 이슬 흘리니 눈물 흘리는 것 같다네.
- 7 早與封題寄書案, 아침에 봉하여 쓴 시를 부쳐서는
- 8 報君湘竹筆身斑. 그대에게 알리나니 붓대가 상죽처럼 얼룩덜룩하다네.¹²⁶⁾

蘇軾 <次韻和子由欲得驪山澄泥硯(여산의 징니연을 얻게 되어서 지은 자유의 시에 차운하여 화답한다)>

- 1 舉世爭稱鄴瓦堅, 온 세상이 다투어 업와연이 튼튼하다 칭송하거니
- 2 一枚不換百金頒. 벼루 하나를 금 백 냥의 하사품과도 안 바꾸는데
- 3 豈知好事王夫子, 어찌 알았으리오 호사가 왕선생이
- 4 自採臨潼繡嶺山. 스스로 임동의 수령산에서 가져올 줄을?
- 5 經火尙含泉脈暖, 전쟁의 불길 거치고도 천맥의 온기가 남았으니
- 6 弔秦應有淚痕漣. 진시황을 애도하는 눈물 자국도 있으리라.
- 7 封題寄去吾無用, 나는 필요 없으니 봉하여 너에게 부쳐주마.

126) 《蘇軾集(一)》 卷二, pp.20-21.

8 近日從戎擬學班. 요즘 나는 오랑캐 쫓으려고 반초를 배우려 하니까.¹²⁷⁾

소철은 소식에게 驪山의 澄泥硯을 달라고 하였고, 소식은 소철에게 주겠다고 허락하였다. 이 징니연은 진흙을 걸러 고운 흙을 불에 태워 만든 벼루로, 당시 사람들은 이를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소철은 소식의 허락을 받고 그 감회를 시로 적었다. 그는 누군가가 銅雀臺를 밀어서 여산으로 넘어뜨렸을 것이라 상상한다. 이는 魏의 曹操가 축조한 동작대의 기와로 만든 벼루가 매우 귀했던 것과 관련 있다. 여산에서 뛰어난 벼루가 나온 이유가 넘어진 동작대의 기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운 흙을 불에 태워 그것으로 벼루를 만들며, 벼루에 먹물을 흘리는 모습을 눈물 흘리는 것에 비유하였다. 그러고는 자신은 자주 글을 써서 붓대에 먹물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소식에게 알려 그 벼루를 애용할 것이라 말하며 시를 마쳤다. 소식은 이 시를 받고는 벼루에 대한 찬사를 나타냈다. 여산에 있는 수령산에서 가져온 이 벼루가 동작대의 기와로 만든 벼루보다도 뛰어나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은 後漢의 장수인 班超처럼 武에 힘을 쓸 테니 소철에게 이 벼루를 잘 사용하라고 하였다.

原詩와 차운시의 운각은 각각 “堅, 頴, 山, 漕, 斑”과 “堅, 頴, 山, 漕, 班”이다. 제8구의 운각인 “斑”과 “班”이 다른 것이다. 《廣韻》에 의하면 “斑”은 “刪”운에 속하고, “班”도 “刪”운에 속한다. 두 글자는 같은 운부에 속한 것이다. 소식은 같은 운부 내에서 운각을 교체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철은 原詩에서 湘竹의 고사¹²⁸⁾를 인용하여 손에 묻은 먹물로 붓대가 얼룩덜룩하게 된 모습을 말하였다. 반면 소식은 글을 쓰는 도구인 벼루를 소철에게 주고, 班超¹²⁹⁾를 본받아서 나라에 공을 세우고 싶다고 말

127) 《정본완역 소동파시집1》, p.378.

128) 舜임금에게는 부인인 娥皇과 女英이 있었다. 그런데 순임금이 죽자 슬퍼하며 湘江에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니, 그 눈물이 대나무에 떨어져 대나무에 반점이 생겼다. 그것을 湘竹이라 한다.(자세한 내용은 《列女傳》참조.)

129) 《後漢書·班超傳》: “家貧, 常爲官傭書以供養, 久勞苦. 嘗輟業, 投筆歎曰, 大丈夫無他志略, 猶當效傅介子張騫立功異域, 以取封侯, 安能久事筆硯間乎.(반초는 집이 가난하여 항상 관가에서 돈을 받고 글씨를 써 주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오랫동안 고생하며 일하였다. 일찍이 일을 그만두고는 붓을 던지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소철은 “얼룩덜룩한 반점”의 의미로 “斑”을 사용하였고, 소식은 “반초”의 의미로 “班”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소식은 原詩의 운각을 교체함으로써 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타인과의 창화가 아닌 시에서도 발견된다. 소식의 자화시와 화도시에서도 운각의 교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蘇軾 <追錢正輔表兄至博羅，賦詩爲別(외사촌형인 程正輔를 전송하러 박라까지 갔다가, 시를 지어 작별하다)>

- 1 孤臣南遊墮黃菅, 외로운 신하는 남쪽에서 노닐며 누런 띠풀로 떨어졌는데
- 2 君亦何事來牧蠻. 그대 또한 무슨 일로 남방의 오랑캐를 다스리러 왔나요.
- 3 艤舟蜑戶龍岡窟, 구룡강 동굴의 오랑캐 집에 배를 대어놓고
- 4 置酒椰葉桃榔間. 광랑나무 사이에서 야자잎으로 술잔치를 베푸는데
- 5 高談已笑衰語陋, 고상한 담론에 노쇠한 말이 비루함을 이미 웃었고
- 6 傑句尤覺清詩孱. 걸출한 시구는 맑은 시가 형편없다 더욱 느끼게 하는데
- 7 博羅小縣僧舍古, 박라 작은 현의 스님의 옛 집에서
- 8 我不忍去君忘還. 나는 차마 떠나지 못하고 그대는 돌아가기를 잊었지요.
- 9 君應回望秦與楚, 그대는 틀림없이 진 땅과 초 땅을 되돌아보면서¹³⁰⁾
- 10 夢涉漢水愁秦關. 꿈속에서 한수를 건너면서 진나라의 관문에서 근심할 것이고
- 11 我亦坐念高安客, 나 또한 앉아서 고안의 객을 그리워하나니¹³¹⁾
- 12 神遊黃蘗參洞山. 정신은 황열사로 달려가며 동산사에 참배할 것이지요.
- 13 何時曠蕩洗瑕謫, 어느 때에야 용서를 받아 옥의 티를 씻어서는
- 14 與君歸駕相追攀. 그대와 수레 타고 돌아가서 서로 뒤따르고 붙잡으며
- 15 梨花寒食隔江路, 배꽃 피는 한식절에 강가 길을 사이에 두고
- 16 兩山遙對雙煙鬢. 두 산이 멀리서 마주 보는 것이 한 쌍의 구름 같은 쪽 머리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대장부가 다른 포부가 없으면, 마땅히 부개자와 장건을 본받아 이역에서 공을 세워 제후에 봉해져야지 어찌 오랫동안 글씨 쓰는 일이나 하리오?”라고 하였다.)”
 130) 정정보의 형제인 鄭之邵와 鄭之元은 각각 泗州知州와 楚州知州였는데, 秦은 정지소가 있는 泗州를 말하고 楚는 정지원이 있는 楚州를 말한다. 이는 정정보가 그의 형제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1) 高安은 筠州를 말한다. 소철은 이 당시 筠州에 껴적되어 있었다.

蘇軾 次韻詩의 특징

- 17 歸耕不用一錢物, 돌아가 농사짓는 데에는 한 푼의 돈도 필요하지 않는데
- 18 惟要兩脚飛屨顏. 다만 험준한 산을 날아다닐 두 다리만 필요하네요.
- 19 玉牀丹鏃記分我, 단사광맥의 붉은 살촉 같은 단사를 보면 나에게 나누어 줄 것을 기억하여
- 20 助我金鼎光爛斑. 나의 금술이 빛을 반짝반짝 내도록 도와주세요.

蘇軾 <再用前韻(다시 앞의 운을 사용하다)>

- 1 樂天雙鬢如霜菅, 백락천은 귀밑머리가 서리 맞은 풀과 같을 때에야
- 2 始知謝遣素與蠻. 비로소 기녀인 변소와 소만을 풀어줄 줄을 알았는데
- 3 我兄綠髮蔚如故, 우리 형님은 검은 머리가 옛날처럼 검고 무성한데
- 4 已了夢幻齊人間. 이 세상이 꿈만 같다는 사실을 이미 안 것이지요.
- 5 蛾眉勸酒聊爾耳, 고운 눈썹이 술을 권하니 즐길 따름이지만
- 6 處仲太忍茂弘屨. 왕처중은 너무 잔인하고 왕무홍은 나약하여
- 7 三杯徑醉便歸臥, 세 잔에 바로 취하여 돌아가서 누우면
- 8 海上知復幾往還. 바다 위를 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까요.
- 9 連娟六幺趁蹋鞠, 간드러지는 육요령은 축국을 좇고
- 10 杳眇三疊縈陽關. 아득한 양관곡은 삼첩으로 얹혀있네요.
- 11 酒醒夢斷何所有, 술 깨고 꿈 깨면 무엇이 있을까요
- 12 落花流水空青山. 떨어진 꽃과 흐르는 물과 빈 청산만 있겠지요.
- 13 忽驚鐃鼓發夜半, 한밤중에 징소리 북소리 나서 문득 놀랐나니
- 14 明月不許幽人攀. 밝은 달이 은거하는 이가 붙잡기를 허락하지 않네요.
- 15 贈行無物惟一語, 송별하며 드릴 게 없어 다만 말이나 한 마디 하나니
- 16 莫遣瘴霧侵雲鬢. 장기 어린 안개가 구름 같은 머리를 침범하도록 하지 마세요.
- 17 羅浮道人一傾蓋, 나부산의 도인은 한 번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는
- 18 欲繫白日留君顏. 흰 해를 매어서는 그대의 얼굴을 붙잡아두려 하네요.
- 19 應知我是香案吏, 나는 향안리이니
- 20 他年許綴蓬萊班. 훗날에 봉래궁의 반열을 잇게 될 것을 허락할 줄을 응당 알아야 하지요.

위의 시는 소식의 原詩와 그에 차운한 자화시이다. 紹聖 2년(1095) 3월, 소식이 惠州 博羅縣에서 程正輔¹³²⁾를 전송해주며 지은 것이다. 原詩는 정 정보가 소식이 있는 곳에 들러 함께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놀다가 떠나

게 되어 슬퍼하는 내용이다. 정정보가 마음속으로 동생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소식도 筠州 高安縣에 있는 소철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면을 받아 유배가 풀리면 함께 노닐고자 한다. 그리고 자화시의 내용은 이렇다. 정정보는 인생여몽을 일찍이 깨달았고, 소식과 함께 기녀들의 노래를 들으며 술을 마신다. 그런데 술이 깨고 시간이 지나면 이별이 다가오기 때문에 슬퍼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며 작별인사를 한다. 마침 나부산의 도인은 정정보와 처음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정보가 늙지 않도록 붙잡아두려 하고, 소식은 훗날에 정정보와 조정에서 만날 것을 기약한다. 原詩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을 자화시를 통해 이어나간 것이다. 原詩에서 이별의 슬픔을 말했다면, 자화시에서는 현재 이별의 상황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당부가 나온다.

그런데 두 편의 시에서 운각이 다른 부분이 보인다. 原詩에서는 “..., 攀, 鬢, 顏, 斑”을 사용하였고, 자화시에서는 “..., 攀, 鬢, 顏, 班”을 사용하였다. 앞서 예로 제시한 시와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구절의 운각인 “斑”과 “班”이 다른 것이다. 소식은 같은 운부의 다른 글자로 운각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原詩의 “斑”은 “爛斑”의 의미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반면 자화시의 “班”은 “반열”의 의미로 쓰였다.¹³³⁾ 소식은 훗날 정정보와 조정에서 만나자며 황궁을 뜻하는 “蓬萊宮”을 끌어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查愼行(1650—1728)은 “마지막 운은 앞의 작품에서는 ‘斑’을 사용했고, 이 작품(자화시)에서는 ‘班’을 사용했는데 뜻이 각각 다르므로 통용해

132) 소식의 누나 蘇八娘과 결혼한 소식의 외사촌형이다.

133) 소식은 앞서 胡完夫와 錢穆父, 李端叔과 창화한 차운시에서 첫 구에 압운한 운각들을 상대방의 그것과 똑같이 사용하였다. 호완부가 사용한 “斑”을 “얼룩”의 의미로 사용하였고, 전목보가 사용한 “班”을 “반열”의 의미로 사용한 바 있다.(본고 19-21페이지 참조) 그리고 그 후에 소식과 호완부, 전목보는 1회씩 또 차운을 하였다. 각각의 제1구를 본다.

●蘇軾 <次韻完夫再贈之什, 某已卜居毘陵, 與完夫有廬里之約云>: “詔語春溫昨夜斑(조서는 봄의 따뜻함같이 어젯밤에 반포되었다)”

●蘇軾 <次韻穆父舍人再贈之什>: “柳絮飛時簡籀斑.(버들개지 날릴 때 죽순 꺾질에 얼룩무늬가 생겨났다)”

이를 통해 소식은 분명 “班”과 “斑”을 구분하여 썼음을 알 수 있다.

서는 안 된다”¹³⁴⁾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소식은 차운시의 한계로 인해 운
각을 희생시키면서 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陶淵明 <勸農(농사를 권하다)>

- | | |
|---------|-----------------------------------|
| 1 氣節易過, | 절기는 쉬이 지나가나니 |
| 2 和澤難久. | 따뜻하고 윤택함이 오래가기 어렵네. |
| 3 冀缺攜儷, | 기결은 아내를 끌고 나갔고 |
| 4 沮溺結耜. | 장저와 결낙은 함께 밭을 갈았지. |
| 5 相彼賢達, | 저 현명하고 통달한 이들도 |
| 6 猶勤壅畝. | 여전히 부지런하게 밭두둑을 갈았다네. |
| 7 矧伊衆庶, | 하물며 저 못 사람들이 |
| 8 曳裾拱手. | 옷자락 끌며 팔짱 끼고 있으랴. ¹³⁵⁾ |

蘇軾 <和陶勸農六首, 并引(도연명의 농사를 권하는 시에 서문과 함께 화답
하다 6수)>

海南多荒田, 俗以貿香爲業. 所產秔稌, 不足於食. 乃以藷芋雜米作粥糜以取飽.
予既哀之, 乃和淵明<勸農>詩, 以告其有知者.

해남도에는 황폐한 논밭이 많아서 민간에서는 향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
는다. 생산되는 벼는 먹기에 부족하다. 이에 저우를 쌀과 섞어 죽을 끓여
배를 채운다. 나는 그러한 상황을 슬퍼하여 이에 도연명의 <농사를 권하
며> 시에 화운함으로써 아는 자들에게 농사를 알린다.

其四

- | | |
|---------|---------------|
| 1 聽我苦言, | 내 쓴 소리 들으면 |
| 2 其福永久. | 그 복은 영구하다네. |
| 3 利爾耜耜, | 농기구들을 날카롭게 하고 |
| 4 好爾鄰偶. | 이웃과 잘 지내시게. |
| 5 斬艾蓬蒿, | 온갖 잡풀들을 베고 나면 |
| 6 南東其畝. | 남쪽과 동쪽이 다 밭이니 |
| 7 父兄搢梃, | 늙은이들은 막대기를 쏘아 |

134) “結韻前作班, 此作班, 義各不同, 不應通用.”(《補注東坡編年詩》 卷三十九.)

135) 《箋注陶淵明集》 卷一.

8 以扶游手. 일없이 노는 사람을 채찍질해야 한다네.

도연명은 전원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는 삶을 추구하였다. 그는 못 사람들에게 농사를 권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였다. 기결과 장저, 결낙과 같은 옛 현인들도 농사를 지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화도시는 紹聖 4年(1097) 8월에 儋州에서 지었다. 소식은 땅이 척박하여 쌀이 생산되기 어려운 환경을 탄식하며 도연명의 시에 차운하여 농사를 권하였다. 풀들을 베고 밭을 갈아 농사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각각의 시의 운각은 “久, 耦, 畝, 手”와 “久, 偶, 畝, 手”로, 제4구의 “耦”와 “偶”가 다르다. 먼저 《廣韻》에 의하면 “耦”는 “厚”운에 속하고, “偶”도 “厚”운에 속한다. 같은 운부 내에서 운각을 교체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또한 原詩는 《論語·微子》의 전고인 “長沮桀溺耦而耕”을 인용한 것으로, “장저와 결낙이 밭을 갈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도연명은 “耦”를 “밭을 갈다”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소식 화도시의 제3구와 제4구는 對句를 이루고 있으니, “利爾耰耰, 好爾鄰偶”의 “耰耰(농기구)”와 “鄰偶(이웃)”는 모두 명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소식은 鄰과 합쳐 “이웃”의 의미로 “偶”를 사용한 것이다.¹³⁶⁾ 그는 이렇게 운각을 교체하면서 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추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운각의 교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운각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이것 역시 소식 차운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 잠시 부연해 둔다. 原詩인 황정건의 시가 총 14句인 반면 소식의 차운시는 12句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작품을 본다.

136) 참고로 소식의 화도시에 소철이 차운한 <和子瞻次韻陶淵明勸農詩(자침이 도연명의 <농사를 권하다> 시에 차운한 시에 화답하다)> 시에서는 原詩와 같은 운각을 사용하여 “孰爲沮溺, 風雨相耦.(누가 장저와 결낙이 되어, 비바람에도 함께 밭을 갈까?)”라고 하였다.

黃庭堅 <古詩二首上蘇子瞻(소자침에게 올리는 고시 두 수)>

其二

- 1 青松出澗壑, 푸른 소나무는 골짜기에서 자라는데
- 2 十里聞風聲. 십 리까지 소나무에 바람 이는 소리가 들린다네.
- 3 上有百尺絲, 위에는 백 척 길이의 새삼이 있고
- 4 下有千歲苓. 아래에는 천 년 된 복령이 있네.
- 5 自性得久要, 복령의 본래 성질은 오랫동안 살게 하는 것이며
- 6 爲人制頽齡. 사람이 나이 먹어 쇠잔함을 막기 위한 것이네.
- 7 小草有遠志, 새삼이란 작은 풀이 원대한 뜻을 가졌으니
- 8 相依在平生.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사네.
- 9 醫和不并世, 의화는 세상과 함께 하지 않으니
- 10 深根且固蒂. 뿌리를 깊게 박고 꼭지를 단단하게 한다네.
- 11 人言可醫國, 사람들은 나라를 고칠 만하다고 말하지만
- 12 何用太早計. 크게 서두름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 13 小大材則殊, 작거나 크거나 재목은 모두 다르지만
- 14 氣味固相似. 기세와 뜻은 진실로 비슷한 법이라네.¹³⁷⁾

蘇軾 <次韻黃魯直見贈古風二首(황노직이 보내온 고풍 두 수에 차운하여)>

其二

- 1 空山學仙子, 인적 없는 빈 산에서 신선을 흉내내어
- 2 妄意笙簫聲. 생황 소리 통소 소리 제멋대로 내보지만
- 3 千金得奇藥, 천금을 주고 기이한 불로약을 샀는데
- 4 開視皆絳苓. 열어 보니 모두 다 희령뿐인 풀
- 5 不知市人中, 거리의 사람들 중에
- 6 自有安期生. 이미 안기생이 있는 줄을 몰랐다네.
- 7 今君已度世, 그대는 지금 이미 세속을 초월하여
- 8 坐閱霜中蒂. 앉아서 서리 맞은 꼭지를 보고
- 9 摩挲古銅人, 옛날 거인의 동상을 어루만지며
- 10 歲月不可計. 세월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게 됐다.
- 11 聞風安在哉, 신선세계 낭풍산이 어디에 있나?
- 12 要君相指似. 그대가 나에게 좀 가리켜주기 바라네.¹³⁸⁾

137) 《黃庭堅詩集注(一)》 卷一, pp.49-50.

소식은 일찍이 손신로의 집에서 황정건의 시문을 본 적이 있었다.¹³⁹⁾ 이후 元豐 元年(1078) 6월에 황정건과 소식은 직접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유를 하였으니, 바로 위의 시이다. 황정건은 제1-8구까지가 소식에 대한 내용이며, 제9-14구까지는 자신에 대한 내용으로 시를 구성하였다. 그는 소식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소나무에 비유하며 칭송하였다. 《淮南子·說山》의 새삼과 복령을 인용하였는데,¹⁴⁰⁾ 새삼과 복령을 통하여 그것이 천년 된 소나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식이 그것과 같이 오랫동안 변함없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자신은 비록 작은 材木이지만, 소식과 같은 뜻을 지녔음을 말하였다.

소식은 제1-6구까지는 자신에 대한 내용이며, 제7-12구까지는 황정건에 대한 내용으로 시를 구성하였다. 그는 자신을 칭송하는 시에 대한 화답으로 겸손함을 보였다. 복령에는 약효가 있지만 자신은 獐菴이라며 겸손한 말로 답했다. 또한 안기생의 고사¹⁴¹⁾를 들어 안기생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즉, 자신이 그동안 황정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가 보기에 황정건은 신선과 같은 사람으로 일반 관리들처럼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식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황정건을 위로한 것이다.

原詩는 총 14구이며, 소식의 차운시는 12구로 이루어져 있다.¹⁴²⁾ 그리고

138) 번역은 《정본완역 소동파시집2》, p.814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139) 자세한 내용은 본문 p.48 참조.

140) “千年之松，下有茯苓，上有兔絲。上有叢蓍，下有伏龜。聖人從外知內，以見知隱也。(천년 된 소나무에는 아래에는 복령이 있고 위에는 새삼이 있다. 위에는 시초 덩굴이 있고 아래에는 엮드린 거북이가 있다. 성인은 밖을 통해 안을 알고 보이는 것으로써 숨어있는 것을 안다.)”

141) “安期先生者，瑯琊阜鄉人也。賣藥於東海邊，時人皆言千歲翁。秦始皇東遊，請見，與語三日三夜，賜金璧度數千萬，出於阜鄉亭，皆置去。(안기선생은 낭야군 부향 사람이다. 동해 가에서 약을 팔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를) ‘천세 노인’이라 불렀다. 진시황이 동쪽을 순행했을 때, (그에게) 접견하기를 청하여 함께 3일 밤낮 동안 얘기를 나눈 후 수천만 금에 달하는 황금과 벽옥을 하사했으나, (안기선생은) 부향정을 떠날 때 (하사받은 보물을) 모두 놓아두고 갔다.)”(번역은 劉向 지음, 김장환 옮김, 《열선전: 중국 도교의 70仙人 이야기》, 서울: 예문서원, 1996, p.30 참조)

각각의 운각은 “聲, 苓, 齡, 生, 薺, 計, 似”와 “聲, 苓, 生, 薺, 計, 似”이다. 原詩의 제5-6구에 해당하는 “齡” 운각이 차운시에는 없는 것이다. 현존하는 각종 판본상에 의하면 소식은 이 운각을 빼고 차운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식의 차운시에는 운각을 바꿔서 시를 쓴 경우도 있었다. 정해진 운각을 사용하며 시상을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식은 같은 운부 내에서 다른 운각으로 교체함으로써 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구성하였다. 차운시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원활한 시상 전개를 위한 것이었다. 차운시에는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소식과 같은 천재 시인도 완벽한 차운시의 창작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2) 황정견의 시가 실린 《豫章黃先生文集》, 《山谷內集詩注》와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蘇軾詩集》 이외에 다른 판본인 《東坡詩集注》, 《施注蘇詩》 및 南宋의 邵浩가 정리한 《坡門酬唱集》에도 모두 황정견의 시는 14구이며, 소식의 시는 12구이다. 그런데 사신행은 《補注東坡編年詩》에서 原詩인 황정견의 시를 첨부하였는데, “齡”자가 쓰인 두 구절을 삭제하되 “초계어은총화에 따르면 ‘自性得久要, 爲人制頽齡’의 두 구절이 있다(《補注東坡編年詩》 卷十六.)”라고 주석을 삽입한 바 있다.

제5장 결론

본고는 송대 문인들 사이에서 차운시가 왜 성행하였는지, 차운시를 왜 지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문단의 영수이며 대표인 소식의 차운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송대 소식에 이르러 차운시가 보편적으로 창작되며, 소식이 대량의 차운시를 창작하였고, 차운의 방식과 차운의 대상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의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는 소재 분류에 편향한 나머지 오히려 “차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반면 필자는 송대 문인들에게 “차운”이 매우 큰 의미였다고 생각한 바, 그것은 문인들의 놀이로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교유를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차운이라는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를 중심으로 소식의 차운시의 의미를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소식의 차운시의 특징인 창화 방식의 다양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유희의 극대화를 추구한 것이었다. 소식은 다른 문인들과 창화를 하며 차운시를 지어 교유를 하였다. 그는 한 번의 창과 和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창화방식을 연장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재치 있게 전달하였고, 상대방에게 일일이 화답하여 그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두 명의 문인끼리 주고받는 창화의 방식을 확대하여 여러 문인들이 참여하는 집단 차운시를 창작하였다. 문인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운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의 동질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한 집단 내에서 더욱 가까워지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며 문인으로서의 자질을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타자간 관계에 개입하여 차운하는 방식도 있었다. 原詩 작자는 분명 다른 受信者에게 시를 쓴 것이었는데, 소식은 그 시에 차운함으로써 原詩 작자와 그 受信者 사이에 개입한 것이다. 소식은 타자간에 이미 형성된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그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기에, 그들과 교유를 하는 데 유리하였다. 차운시를 통해 그 상대방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제3장에서는 소식 차운시의 두 번째 특징인 차운 대상의 다양화를 살펴 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었던 시에 차운한 자화시를 지었고, 古人의 시에 차운한 추화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의 차운시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수 조건으로 한 것과 비교되며 소식만의 독특한 차운시이기도 하다. 차운시는 본래 다른 사람과 시를 주고받으며 교유를 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제1절에서는 자화시를 다루었다. 그것은 시인의 의도 아래 原詩와 내용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연작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소식은 자화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규칙을 설정하여 자신의 原詩와 연관성을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차운의 놀이적 기능이 나타났다. 그 규칙을 기준으로 삼아 자화시를 창작하며 연작시의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화시는 연속으로 창작한 경우와 연속 창작이 아닌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소식이 자화시를 지을 때 原詩의 내용을 이어서 못 다한 말을 전하거나 原詩와 연결했을 때 한 편의 긴 詩가 되도록 만든 것이다. 후자의 경우, 공통적인 흐름 또는 기준을 설정하여 原詩와 자화시의 정서가 잘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原詩와 자화시를 함께 놓고 봄으로써 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제3장 2절에서는 추화시를 다루었는데, 크게 화도시 이전의 추화시와 화도시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화도시 이전의 추화시는 시인과 原詩 작자가 같은 상황에 처해져 만들어진 것으로 유희를 위해 지었다는 점에서 일반 창화시의 창작 목적과 비슷하였다. 또한 原詩의 작자가 古人인지의 여부가 창화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화도시는 현대의 놀이치료와 같은 목적에서 창작된 모습이 보였다. 소식은 운각에 집중하여 차운시 창작에 몰입함으로써 열악한 편집지에 처한 자신의 슬픔을 잠시 잊거나 완화시켰다. 화도시 창작을 통해 같은 처지에 있었던 도연명의 존재 자체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차운시 자체의 놀이적 특성으로 인해 슬픔에 집중된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연명의 시와 다른 모습으로 자유롭게 시를 짓기도 하였다. 소식은 화도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놀이를 하였기 때문이다.

제4장은 소식 차운시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소식과 같은 대문호도 대량의 차운시를 짓다보면 운각의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한계로는 부자연스러운 시상의 전개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한계점이 나타난 작품은 주로 고체시에 집중되었다. 이는 청대 학자인 기운의 평가에 의지하여 운각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차운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해진 운각의 사용으로 인해 시의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와 반대의 경우로 운각의 글자를 바꿔가면서 시를 자연스럽게 전개한 경우도 있었다. 앞에서 지적한 한계점은 운각을 맞추기 위해 시의 내용을 희생한 것인데 반해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진 시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운각을 사용해야 하는 규칙을 어긴 것이다. 소식은 같은 운부 내에서 운각을 교체하여 차운시를 지어 시의 흐름을 원활하게 창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차운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한계였다.

본고는 차운시가 문인들의 놀이라는 입장에서, 각각의 시에서 “차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차운시가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소식은 분명 새로운 운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시를 창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운의 방식을 선택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바로 차운시가 놀이이며, 즐거움을 얻게 해 주는 도구였기에 가능했다.

본고는 소식의 차운시를 대표로 선정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그 수량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모든 작품을 아우를 수 없었다. 또한 차운의 방식과 대상의 특징을 중점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상대방의 原詩와 차운시의 구조나 표현 기법을 비교하는 등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차운시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原詩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1. 원전 및 주석서

- 孔凡禮 點校,《蘇軾文集》,北京:中華書局,1996.
- 陶潛 撰,湯漢 箋注,《箋注陶淵明集》,四部叢刊景宋巾箱本.
- 劉攽 撰,《中山詩話》,清 何文煥 輯,《歷代詩話》,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1972.
- 馬星翼 撰,《東泉詩話》,清刻本.
- 蘇軾 撰,查慎行 補注,《補注東坡編年詩》,文淵閣四庫全書本.
- 蘇軾 撰,王文誥 輯注,孔凡禮 點校,《蘇軾詩集》,北京:中華書局,1996.
- 蘇轍 著,陳宏天,高秀芳 點校,《蘇轍集》,北京:中華書局,1999.
- 王若虛,〈淳南詩話〉,丁福保 輯,《歷代詩話續編》,北京:中華書局,1983.
- 張志烈,馬德富,周裕鍇 主編,《蘇軾全集校注》,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2010.
- 錢泰吉 撰,《曝書雜記》,清別下齋叢書本.
- 曾棗莊,曾濤 編,《蘇詩彙評》,臺北:文史哲出版社印行,1998.
- 何文煥 輯,《歷代詩話》,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1983.
- 黃庭堅 撰,任淵,史容,史李溫 注,劉尚榮 點校,《黃庭堅詩集注》,北京:中華書局,2003.

2. 단행본

- 金學主 譯著,《新譯 宋詩選》,서울:명문당,2003.
- 內山精也,王水照 主編,《傳媒與真相-蘇軾及周圍士大夫的文學》,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3.

- 로제 카이와 지음, 이상률 옮김, 《놀이와 인간》,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柳種睦, 《蘇軾詞研究》, 서울: 중문, 1993.
- 류종목, 《정본완역 소동파시집1》,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류종목, 《정본완역 소동파시집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서울: 신서원, 2005.
- 劉向 지음, 김장환 옮김, 《열선전: 중국 도교의 70仙人 이야기》, 서울: 예문서원, 1996.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지음, 이희재 옮김, 《몰입의 즐거움》, 서울: 해냄, 1999.
- 서경호, 《중국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 서경호, 김월희 외 지음, 《중국의 지식장과 글쓰기》, 서울: 소명출판, 2011.
- 송용준 역, 《도연명 시선》,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0.
- 송용준, 오태석, 이치수, 《宋詩史》, 서울: 역락, 2004.
- 오세영 지음, 《시 쓰기의 발견》, 서울: 서정시학, 2013.
- 왕력 지음, 송용준 옮김, 《중국시율학1》, 서울: 소명출판, 2005.
- 蔣紹愚 著, 《唐詩語言研究》,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1990.
- 피에르 바야르 저, 김병욱 옮김, 《망친 책,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서울: 여름언덕, 2013.
- 한비 지음, 김원중 옮김, 《한비자: 제왕학의 영원한 성전》, 파주 : 글항아리, 2010.
- Charles E. Schaefer 엮음, 김은정 옮김, 《놀이치료의 기초》,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 Charles E. Schaefer 엮음, 백지연 옮김, 《성인을 위한 놀이치료》, 서울: 북스힐, 2011.

3. 학위논문

- 姜震, <張先 交遊詞의 ‘以詩爲詞’ 경향>,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5.

- 金甫喲, <蘇軾“和陶詩”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朴玟貞, <北宋 西崑體 詩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1.
- 鄭世珍, <烏臺詩案의 社會文化적 含意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 高邢生, <黃庭堅次韻詩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仝錦錦, <皮陸唱和詩研究>, 河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呂雪梅, <晁補之唱和詩研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 徐美秋, <紀昀評點詩歌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 徐宇春, <蘇軾唱和詩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閔偉偉, <蘇軾唱和詩研究>, 山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王永波, <晚唐皮陸詩人群體研究>, 四川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李艷杰, <二蘇唱和次韻詩研究>, 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李漢南, <元白唱和詩統計分析>, 河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趙曉星, <論蘇軾, 蘇轍唱和詩>,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蔡愛芳, <二蘇及“蘇門四學士”唱和詩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 黃瑩, <蘇軾蘇轍兄弟唱和詩研究>, 廣西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4. 일반논문

- 강민호, <杜甫 類似連作詩 고찰>,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85, 2015.
- 강민호, <押韻의 미학으로 본 次韻詩의 특성에 대한 연구 — 元白과 蘇軾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72, 2012.
- 강성위, <和韻詩의 類型과 特性考>,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30, 1998.
- 김보경, <시가창작(試歌創作)에 있어서 차운(次韻)의 효과(效果)와 의의(意義)에 대하여 — 소식(蘇軾)의 시가(詩歌)를 중심으로>, 중국어문연구회, 《中國語文論叢》, vol.45, 2010.

【참고문헌】

- 안희진, <소식의 ‘화도시’를 논함>, 한국중국문화학회, 《中國學論叢》, vol.13, 2002.
- 이영주, <두보 연작시의 장법 연구>, 서울대학교 人文大學 東亞文化研究所, 《東亞文化》, vol.49, 2011.
- 조규백, <도연명에의 동일화양상과 도시의 창조적 수용 — 소식시의 한 단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大東文化研究》, vol.31, 1996.
- 진영희, <동파의 정치생애와 문학과의 관계 시론: <화도시>를 중심으로>, 영남중국어문학회, 《中國語文學》, vol.10, No.1, 1985.
- 최경환, <金尙容의 「四時詞」와 8수 連作詩의 構成原理>, 부산외국어대학교, 《外大論叢》, vol.20, 2000.
- 李黎, 李寅生, <開卷遙相憶, 知音兩不遭-蘇軾詩作中的讀者意識探析>, 廣西大學文化與傳播學院, 《黃岡師範學院學報》, 2008年 04期.

【 中 文 摘 要 】

蘇軾次韻詩的特徵

李多娟

首爾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次韻詩是和韻詩的一種，是按順序使用原詩的韻腳創作而成的詩。次韻詩從唐代的元稹和白居易開始創作，並由晚唐的皮日休和陸龜蒙積極接納，與周邊的文人一起實踐，最終作為一種詩體固定下來。後來宋代初期的西崑派登場並興起了“和意不和韻”的風潮，而隨後歐陽修和梅堯臣等文人則開始大量創作次韻詩。次韻詩的創作到了蘇軾開始普遍化，並成為豐富宋代士大夫之間交游的一種遊戲手段。這一時期交游詩出現了爆發式的增長，與次韻的交游功能相吻合的次韻詩開始盛行。其中作為這一時期文壇領袖的蘇軾充分利用次韻詩的多種樣式提升了次韻詩的效用性。

由於這一時期的次韻詩和以前相比非常盛行，所以已經有很多關於這一時期次韻詩的研究。然而，這些研究往往把重點放在唱和詩當中素材的分類與交游的對象上，對次韻詩本身意義的研究反而顯得不足。這是由於次韻詩原本以唱和為基礎，因此只在唱和內容的層面進行研究而導致的結果。所以為了把握次韻詩的本質，本文著重考察了次韻詩本身的特徵。

在文人的遊戲中誕生的次韻詩到了蘇軾這裡變得多樣化，並且得到大量創作，這正是本文研究的出發點。筆者認為蘇軾不使用新的韻腳創作自己的詩，而是偏偏選擇次韻的方式進行創作的的原因很明確。這是源於次韻詩所具有的遊戲性特徵。蘇軾在按順序使用原詩韻腳的同時可以感受到作為文人的愉悅。遊戲就其特徵而言可以產生積極的情緒。所以蘇軾用多種方式創作了這樣的次韻

詩，並將其靈活運用在自己的詩歌創作之中。本文分為次韻方式與次韻對象兩個側面分析了各自的意義。

蘇軾次韻詩的第一個特徵是唱和方式的多樣化。這可以解釋為遊戲的極大化。首先，既有的由“唱”與“和”一個回合組成的唱和被擴展的情況經常出現。詩人們通過使用不斷反復的韻腳可以追求創作的遊戲性。同時，與既有的一對一的唱和方式不同，出現了多人連續地交換次韻詩的情況。文人們在特定的集體中通過交游獲得認同感。另外也有介入他者間的關係創作次韻詩的情況。原詩的作者本來把詩寫給了其他的收信人，但是蘇軾把這首詩以次韻的方式重新創作，介入原詩的作者與收信人之間。通過這種方式，在原詩形成的帶有積極情緒的氛圍之中，蘇軾又加入他們之間的唱和，從而成功地實現了交游。

蘇軾次韻詩的第二個特徵是唱和對象的多樣化。蘇軾擺脫了既有的以他人的詩為次韻對象的創作方式，擴大了次韻詩的對象。從蘇軾開始出現了自和詩和追和詩，前者以自己所作的詩為次韻對象，後者以古人所作的詩為次韻對象。首先，從自和詩是蘇軾與自己的原詩建立相關性、根據特定的規則創作而成的角度來看，自和詩具有遊戲性的特徵。從時間上來看，又可以分為連續創作與非連續創作兩種情況，連續創作是指原詩和自和詩同時創作而成，而在非連續創作的情況下，原詩和自和詩所體現的思想感情從大體上來看會有所不同。同時，把原詩和自和詩放到一起來看時，可以更加清楚地了解詩人的心境。因此也可以把自和詩看成是組詩的一部分。蘇軾的追和詩大體上可分為和陶詩以前的追和詩與和陶詩，本文考察了兩者各自的特徵。和陶詩以前的追和詩是蘇軾在遇到和原詩作者相同的情況下，以原詩為基礎創作而成的次韻詩，從以遊戲為目的的特徵上來看，與一般唱和詩的創作目的相似。相比之下，和陶詩則是蘇軾在失意的情況下，通過集中于韻腳並沉溺於次韻詩的創作之中來排遣自己在現實中的憂傷。因為蘇軾把次韻詩作為一種遊戲來看待，所以他通過和陶詩可以得到積極的情緒並從中得到安慰。

本文的最後一章考察了蘇軾次韻詩的局限。像蘇軾這樣的大文豪創作大量次韻詩的話也會受到韻腳的制約。次韻詩必須按照順序使用固定的韻腳。因此受到韻腳的制約，詩的構思展開的方式就會顯得不自然。特別是句數很多的古體詩就有這方面的局限性。與這總情況相反，也有替換了韻腳的字讓詩的展開

方式更自然的情況。但是如果從沒有遵守次韻詩基本創作要求的角度來看，又可以被視為次韻詩的局限。出現這種情況是因為如果規定的韻腳無法展開設想好的構思，蘇軾就會在同一個韻部內選擇不同的韻腳來替換。

從整體上來看，次韻詩是文人的遊戲，蘇軾以多種多樣的方式創作了次韻詩，使得次韻對象更加多樣化。同時，在這個過程中，因為必須按照次韻詩的創作要求使用規定的韻腳而產生了局限。本文研究了蘇軾次韻詩的特徵。同時以此為基礎，通過這樣的研究也可以一起探討同時代周邊文人的次韻詩。所以研究蘇軾次韻詩的特徵，可以考察北宋文人的交游情況以及次韻方式、次韻對象的多樣化，對於把握次韻詩的本質具有重要意義。

關鍵詞： 蘇軾，次韻詩，唱和，交遊，遊戲，自和詩，追和詩，韻腳

學 號： 2014-20089